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Ⅱ):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저 자

이정림, 구자연, 최윤경, 정정호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자 정 정 호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22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73-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하였으나, 빈곤 가정의 영유아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영양과 건강, 보육·교육 기회 및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 지원 방안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던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는 2019년도에 수행되었으며 빈곤가정과 비빈곤 가정 영유아 양육 현황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2차년도 연구인 2020년도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빈곤가정 유형에 따른 양육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양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손)자녀가 있는 빈곤가정 유형을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여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가지 유형의 빈곤가정 주양육자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더 깊은 양육 요구를 파악하고자 15명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및 요구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부모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각 협회 소속 회원분들,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손가정 담당 사회복지사와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해 주신 학계 교수님들,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

<b>요약</b>	<b>1</b>
<b>I. 서론</b>	<b>1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7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24
<b>II. 연구의 배경</b>	<b>27</b>
1. 빈곤가정 영유아 및 가정유형별 수급자 현황	29
2.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	36
3. 선행연구 검토	58
<b>III. 영유아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b>	<b>73</b>
1. 양육실태 및 요구	75
2. 경제상태	101
3. 주거환경 및 건강	111
4. 문화생활	119
5.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와 요구	131
6. 소결	162
<b>IV. 영유아 빈곤가정의 가정유형별 양육경험</b>	<b>167</b>
1. 질적연구 개요	169
2. 가구유형별 양육경험 분석 결과	171
3. 소결	221

---

---

<b>V.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b>	<b>227</b>
1. 기본 방향 .....	229
2.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233
<b>참고문헌</b> .....	<b>245</b>
<b>Abstract</b> .....	<b>251</b>
<b>부록</b> .....	<b>253</b>
부록 1. 면접 질문지 .....	253
부록 2. 설문지 .....	256

---



## 표 목차

〈표 Ⅰ-3- 1〉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정	18
〈표 Ⅰ-3- 2〉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19
〈표 Ⅰ-3- 3〉 연구대상자 할당 및 실제 설문조사 참여자	20
〈표 Ⅰ-3- 4〉 설문조사 항목	21
〈표 Ⅰ-3- 5〉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22
〈표 Ⅰ-3- 6〉 정책 간담회 세부 일정	24
〈표 Ⅱ-1- 1〉 0-5세 수급자 수 및 비율	29
〈표 Ⅱ-1-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특성별 수	30
〈표 Ⅱ-1-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특성별 비율	31
〈표 Ⅱ-1- 4〉 아동가구의 박탈지수	33
〈표 Ⅱ-1- 5〉 아동의 결핍지수	34
〈표 Ⅱ-1- 6〉 0-8세 아동의 결핍 실태	34
〈표 Ⅱ-2- 1〉 아동빈곤예방법의 아동, 아동빈곤, 빈곤아동	38
〈표 Ⅱ-2- 2〉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아동	39
〈표 Ⅱ-2- 3〉 영유아 양육지원의 영역 및 연령별 지원내용	41
〈표 Ⅱ-2- 4〉 아동관련 수당	43
〈표 Ⅱ-2- 5〉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	44
〈표 Ⅱ-2- 6〉 가정내 양육 지원 정책	45
〈표 Ⅱ-2- 7〉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현물지원 정책	46
〈표 Ⅱ-2- 8〉 검진 및 예방지원 정책	47
〈표 Ⅱ-2- 9〉 의료비 지원 정책	48
〈표 Ⅱ-2-10〉 진단아동임상 지원 정책	49
〈표 Ⅱ-2-11〉 놀이 및 여가지원 정책	50
〈표 Ⅱ-2-12〉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51
〈표 Ⅱ-2-13〉 주택공급 정책	52
〈표 Ⅱ-2-14〉 주거환경 개선 정책	53
〈표 Ⅱ-2-15〉 생활비 경감 정책	54
〈표 Ⅱ-2-16〉 긴급지원 정책	55
〈표 Ⅱ-2-17〉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구의 영유아 양육 지원 내용	56
〈표 Ⅱ-2-18〉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57

---

〈표 Ⅱ-3- 1〉 저소득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	65
〈표 Ⅱ-3- 2〉 한부모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	67
〈표 Ⅱ-3- 3〉 미혼모·미혼부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	70
〈표 Ⅱ-3- 4〉 조손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	71
〈표 Ⅲ-1- 1〉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응답자 특성 .....	76
〈표 Ⅲ-1- 2〉 조손가정의 응답자 특성 .....	78
〈표 Ⅲ-1- 3〉 자녀 돌봄 시간: 주중 .....	79
〈표 Ⅲ-1- 4〉 주중 낮에 자녀 돌봄 기관/사람 .....	80
〈표 Ⅲ-1- 5〉 자녀 돌봄 시간: 주말 .....	81
〈표 Ⅲ-1- 6〉 손자녀 돌봄 시간 .....	81
〈표 Ⅲ-1- 7〉 부모/기관/아이돌봄서비스 이외 자녀 양육 도움 제공자 유무 및 도움 주는 사람(복수응답) .....	83
〈표 Ⅲ-1- 8〉 조손가정의 배우자 이외 외부 지원 정도 .....	83
〈표 Ⅲ-1- 9〉 조손가정의 기관/아이돌봄서비스 외 자녀 양육 도움 제공자 유무 및 도움 주는 사람(복수응답) .....	84
〈표 Ⅲ-1-10〉 지난 1주일 동안 영유아가 집에 보호자 없이 지낸 여부 .....	84
〈표 Ⅲ-1-11〉 조손가정의 지난 1주일 동안 영유아가 집에 보호자 없이 지낸 여부 .....	85
〈표 Ⅲ-1-12〉 기관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	86
〈표 Ⅲ-1-13〉 손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 .....	87
〈표 Ⅲ-1-14〉 자녀의 최초 기관 이용 시기 .....	88
〈표 Ⅲ-1-15〉 주중 기관 이용 시간 .....	89
〈표 Ⅲ-1-16〉 주말 기관 이용 여부 .....	89
〈표 Ⅲ-1-17〉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	90
〈표 Ⅲ-1-18〉 손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	91
〈표 Ⅲ-1-19〉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휴일 보육 이용 경험 여부 .....	91
〈표 Ⅲ-1-20〉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휴일 보육 이용 경험, 빈도, 만족도 .....	92
〈표 Ⅲ-1-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	93
〈표 Ⅲ-1-22〉 아이돌봄서비스 주중/주말 이용 여부 및 평균 이용 시간 .....	93
〈표 Ⅲ-1-23〉 양육스트레스 .....	94
〈표 Ⅲ-1-24〉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	95
〈표 Ⅲ-1-25〉 우울(PHQ-2) .....	96

---

---

〈표 Ⅲ-1-26〉 양육의 어려움 .....	97
〈표 Ⅲ-1-27〉 조부모 양육의 어려움 .....	98
〈표 Ⅲ-1-28〉 외부 지원 정도 .....	99
〈표 Ⅲ-1-29〉 부모교육 수강 여부 및 수강 받은 기관 .....	100
〈표 Ⅲ-1-30〉 부모교육 수강 여부 및 수강 받은 기관(조손) .....	100
〈표 Ⅲ-2- 1〉 경제활동 상태 .....	101
〈표 Ⅲ-2- 2〉 월평균 총 생활비 및 생활비 중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	102
〈표 Ⅲ-2- 3〉 채무 여부 및 요인 .....	104
〈표 Ⅲ-2- 4〉 자녀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및 당시 자녀 연령 .....	105
〈표 Ⅲ-2- 5〉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	106
〈표 Ⅲ-2- 6〉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	107
〈표 Ⅲ-2- 7〉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식료품비(식비/간식비) 총당 .....	107
〈표 Ⅲ-2- 8〉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	108
〈표 Ⅲ-2- 9〉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	108
〈표 Ⅲ-2-10〉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자녀의 의료비 총당 .....	109
〈표 Ⅲ-2-11〉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	110
〈표 Ⅲ-2-12〉 조손가정의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	110
〈표 Ⅲ-2-13〉 조손가정의 월 평균 총 생활비 및 생활비 중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	111
〈표 Ⅲ-3- 1〉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	112
〈표 Ⅲ-3- 2〉 조손가정의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	113
〈표 Ⅲ-3- 3〉 지역환경 인프라 접근성 .....	114
〈표 Ⅲ-3- 4〉 조손가정의 지역환경 인프라 이용 편의성 .....	114
〈표 Ⅲ-3- 5〉 자녀의 생활환경 .....	115
〈표 Ⅲ-3- 6〉 손자녀의 생활환경 .....	116
〈표 Ⅲ-3- 7〉 지난 1년 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	117

---

---

〈표 Ⅲ-3- 8〉	지난 1년 간 손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	117
〈표 Ⅲ-3- 9〉	자녀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 .....	118
〈표 Ⅲ-3-10〉	손자녀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 .....	119
〈표 Ⅲ-4- 1〉	여가활동 .....	120
〈표 Ⅲ-4- 2〉	조손가정 영유아의 여가활동 .....	121
〈표 Ⅲ-4- 3〉	여가활동: 산책 및 놀이 .....	122
〈표 Ⅲ-4- 4〉	여가활동: 여행 .....	123
〈표 Ⅲ-4- 5〉	여가활동: 영화 또는 공연 관람 .....	124
〈표 Ⅲ-4- 6〉	여가활동: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	124
〈표 Ⅲ-4- 7〉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연 평균 지출액 .....	125
〈표 Ⅲ-4- 8〉	주중과 주말의 일과활동 시간 .....	126
〈표 Ⅲ-4- 9〉	조손가정 영유아의 주중과 주말의 일과활동 시간 .....	127
〈표 Ⅲ-4-10〉	책 읽는 시간 .....	128
〈표 Ⅲ-4-11〉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 .....	129
〈표 Ⅲ-4-12〉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 .....	130
〈표 Ⅲ-4-13〉	자녀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최초 시기 .....	131
〈표 Ⅲ-5- 1〉	보육 및 돌봄 분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32
〈표 Ⅲ-5- 2〉	조손가정의 보육 및 돌봄 분야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33
〈표 Ⅲ-5- 3〉	아동수당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34
〈표 Ⅲ-5- 4〉	아동수당 지출 항목(1+2순위) .....	134
〈표 Ⅲ-5- 5〉	가정양육수당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35
〈표 Ⅲ-5- 6〉	보육·교육료 지원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36
〈표 Ⅲ-5- 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137
〈표 Ⅲ-5- 8〉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	138
〈표 Ⅲ-5- 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138
〈표 Ⅲ-5-1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39
〈표 Ⅲ-5-11〉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40
〈표 Ⅲ-5-12〉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41
〈표 Ⅲ-5-13〉	육아휴직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42
〈표 Ⅲ-5-1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43
〈표 Ⅲ-5-15〉	시차출퇴근(탄력근로제)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44

---

---

〈표 Ⅲ-5-16〉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145
〈표 Ⅲ-5-17〉 조손가정의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 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146
〈표 Ⅲ-5-18〉 주택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46
〈표 Ⅲ-5-19〉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47
〈표 Ⅲ-5-20〉 주거환경 개선 지원 수혜 여부 및 만족도	148
〈표 Ⅲ-5-21〉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49
〈표 Ⅲ-5-22〉 건강 및 의료 관련 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150
〈표 Ⅲ-5-23〉 조손가정의 건강 및 의료 관련 지원	151
〈표 Ⅲ-5-24〉 영유아 건강검진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2
〈표 Ⅲ-5-2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2
〈표 Ⅲ-5-26〉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3
〈표 Ⅲ-5-27〉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4
〈표 Ⅲ-5-28〉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4
〈표 Ⅲ-5-29〉 의료급여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5
〈표 Ⅲ-5-3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156
〈표 Ⅲ-5-31〉 영유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1+2순위)	157
〈표 Ⅲ-5-32〉 조손가정의 영유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1+2순위)	158
〈표 Ⅲ-5-33〉 희망하는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식	158
〈표 Ⅲ-5-34〉 조부모가 희망하는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식	159
〈표 Ⅲ-5-35〉 가장 큰 고민(1+2순위)	159
〈표 Ⅲ-5-36〉 조부모의 가장 큰 고민(1+2순위)	160
〈표 Ⅲ-5-37〉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	161
〈표 Ⅲ-5-38〉 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	162
〈표 Ⅳ-1- 1〉 심층면담 조사대상 및 규모	170
〈표 Ⅳ-1- 2〉 심층면담 내용	170
〈표 Ⅳ-2- 1〉 빈곤가정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172
〈표 Ⅳ-2- 2〉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173
〈표 Ⅳ-2- 3〉 빈곤가정 한모의 인구학적 특성	182
〈표 Ⅳ-2- 4〉 빈곤가정 한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182
〈표 Ⅳ-2- 5〉 빈곤가정 미혼모의 인구학적 특성	192
〈표 Ⅳ-2- 6〉 빈곤가정 미혼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192
〈표 Ⅳ-2- 7〉 빈곤가정 한부의 인구학적 특성	203

---

---

〈표 IV-2- 8〉 빈곤가정 한부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	203
〈표 IV-2- 9〉 빈곤가정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	213
〈표 IV-2-10〉 빈곤가정 조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	214

---



## 그림 목차

[그림 Ⅰ-1-1] 연구내용 .....	17
[그림 Ⅱ-1-1] 0-5세 수급자 비율 .....	30
[그림 Ⅱ-1-2] 아동 결핍 수준 국가 비교 .....	32
[그림 Ⅱ-1-3] 2016년 기준 OECD 국가 아동빈곤율 .....	32
[그림 Ⅱ-2-1] 아동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 .....	40
[그림 Ⅱ-3-1] 연령대별 투자대비효과율: Heckman 곡선 .....	60
[그림 Ⅱ-3-2]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영유아에 대한 투자대비효과율 비교 .....	60
[그림 Ⅱ-3-3]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투자의 역동적 상보성 .....	61
[그림 Ⅱ-3-4] 산전 투자 가설 곡선 .....	62
[그림 Ⅲ-1-1] 조손가정의 주중 손자녀 돌봄 시간 (조손 외 가정 주중 자녀 돌봄 시간과 비교) .....	82
[그림 Ⅲ-1-2] 조손가정의 주말 손자녀 돌봄 시간 (조손 외 가정 주말 자녀 돌봄 시간과 비교) .....	82
[그림 Ⅲ-1-3] 조손가정의 외부 손자녀 양육지원 (조손 외 가정 자녀 양육지원과 비교) .....	84
[그림 Ⅲ-4-1]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 (영화 또는 공연 관람) .....	121
[그림 Ⅲ-4-2]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	122
[그림 Ⅲ-4-3]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영상시청 시간 .....	127
[그림 Ⅴ-1-1]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원방안 .....	232

---



## 1. 서론

###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보편적 지원에서도 여전히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가구소득과 가정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 열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에 관한 2차년도 연구로서, 빈곤가정 내에서 빈곤가정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해서 가정유형별에 따른 양육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 2차년도에 걸친 연구로 본 연구는 가족유형별 빈곤가정 규모 파악, 양육지원 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 파악, 애로사항, 만족도 개선 요구 파악, 다차원적 빈곤영역분석을 내용으로 함.

###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설문조사
  - 영유아를 양육하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일반빈곤가정 150가구, 한부모빈곤가정 100가구, 미혼모(부)빈곤가정 100가구, 조손빈곤가정 24가구, 총 374가구가 참여하였음.
  - 조사 항목으로는 가족생활 및 관계, 양육 스트레스 및 효능감, 자녀 돌봄 실태 및 애로사항, 자녀의 건강, 영양, 식생활, 안전,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 주거 및 지역 환경, 여가시간 활용,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인적사항이 포함됨.

□ 심층면담

- 영유아 자녀를 둔 양부모 빈곤 부모 3명, 한부모 7명, 미혼모 3명, 영유아 손 자녀를 둔 조부모 2명으로 총 15명이 참여함.

□ 정책 간담회 개최

## 라.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을 일반 빈곤 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조손가구의 경우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모집하여 해당 지자체의 사업 대상에서 벗어난 조손가구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문조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대상 축소함. 이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 연구의 배경

### 가. 빈곤가정 영유아 및 가정유형별 수급자 현황

- 전체 수급자 대비 0-5세 수급자 비율은 점차 감소 및 체 영유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이는 저출산 가구에서 일반 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아동빈곤율은 가구 형태별로 격차가 매우 큼.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한부모 가구와 조손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음.
-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빈곤율과 아동결핍 수준의 국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의 결핍 수준은 OECD의 23개 국가 중 최하위인 반면, 아동빈곤율의 수준은 중위권 정도로 나타남.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아동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보아야 함.

### 나.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

#### 1) 빈곤가정 지원의 법적 근거

- 빈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며, 헌법상

의 기본원리를 고찰하여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헌법적 요청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은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정책의 한계를 인지하고, 단순히 아동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지원이 아닌 빈곤에 대한 사회, 문화, 정서적의 다차원적 접근과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 2)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 현황

-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은 보육·돌봄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놀이 및 여가 지원, 취약계층 통합지원, 주거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가구특성별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포함됨. 미혼모(부) 혹은 청소년한부모 특화 지원정책이 아닌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가 동일한 수혜 대상이 됨.

## 다. 선행연구 검토

-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어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며, 취약계층 영유아가 상위계층의 영유아에 비해서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의 대물림이 단순히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인지적 및 비인지적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봄. 또한,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의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 연구 결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빈곤률 기준 55조 3천 억원(국내총생산(GDP)의 3.5%), 상대빈곤률 기준 99조 6천억원(GDP의 6.5%)으로 나타나, 아동 빈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3. 영유아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 가. 양육실태 및 요구

- (손)자녀 돌봄

- 주중에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평균 270분임. 주중 낮에 ‘어머니’,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순으로 자녀를 주로 돌봄. 주중 낮에 일반 빈곤가정은 ‘어머니’,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조손가정 돌봄 시간 평균은 주중 384.6분, 주말은 677.5분으로 조손 외 빈곤가정의 주중 270분, 주말 429.9분에 비해서 김.
- 지난 1주일 동안 자녀가 하루에 30분 이상 보호자 없이 집에서 혼자 있었던 지를 질문한 결과, 혼자 있었다는 응답이 14.6%였음.
  - 조손가정의 16.7%가 지난 1주일 간 혼자 있었다고 응답하여 조손 외 가구의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 기관 이용

- 조손 외 가정 자녀의 기관 이용 비율은 62.9%로 나타남. 조손가정의 기관 이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평균 이용 시간도 낮았음.
- 자녀가 최초로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응답자의 48.0%가 ‘만 12개월~36개월 전’이라고 답함. 자녀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474.4분이며, 97.7%가 주말 및 휴일에 기관 미이용

□ 아이돌봄서비스는 88.0%가 미이용. 주중 서비스 이용률은 90.5%, 주말 서비스 이용률은 23.8%임.

□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 및 부모교육

- 양육스트레스 중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함. 양육자의 우울의 정도는 평균 2.4점/6점.
- 양육의 어려움 항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나타남.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돌봄인력의 부재, 정보 및 기술 조연의 어려움이 나타남.
- 배우자 이외 다른 가족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5점 척도 기준)
  - 정서적 도움: 평균 3.0점, 긴급 시 돌봄 지원: 평균 2.8점, 정보 및 기술 조연: 평균 2.8점, 경제적 도움: 평균 2.3점 순으로 나타남.

## 나. 경제상태

□ 경제활동 상태

- 조사 대상 빈곤가정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36.0%, ‘상용직’이 32.0%, 미

혼모 가정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51.9%임.

- 빈곤가정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평균 144만원, '100~20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
- 채무가 있는 경우가 74.9%로 주된 요인은 '주택 마련 및 보증금',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은 '생활비'가 채무의 주된 요인으로 조사됨.
- 빈곤가정의 58.3%가 자녀 출산 또는 양육으로 경제활동 중단을 경험했으며, 자녀가 '만 0세'일 때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됨.

#### □ 경제적 어려움

- 지난 1년간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지출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49.4%,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39.4%, '식료품비(식비/간식비) 충당' 44.9%,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27.4%,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42.3%, '자녀의 의료비 충당', 32.3%,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41.1%로 나타남.

#### 다. 주거환경 및 건강

- '아파트' 52.3%, 다가구 주택에 38.6%로 나타났으며, 점유 형태는 '월세(38.8%)', '전세(32.9%)'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의 인프라 접근성(5점 척도 기준)
  - 보육교육기관: 평균 3.7점, 여가 및 놀이활동 시설: 평균 3.4점, 아동을 위한 의료기관: 평균 3.3점, 문화 및 체험시설: 평균 2.9점, 육아관련 관련 서비스 기관: 평균 2.8점, 드림스타트/영유아통합지원센터: 평균 2.7점
- 자녀의 생활환경(5점 척도 기준)
  - 자녀의 청결 지도: 평균 4.3점, 장난감 및 기구 보유: 평균 4.1점, 적절한 주거환경: 평균 3.9점, 기본생활습관 지도: 평균 3.9점, 책/그림책 보유: 평균 3.7점, 취침시간 지도: 평균 3.7점, TV 등 시청시간 제한: 평균 3.5점
- 지난 1년 간 자녀의 건강상태는 평균 4.0점으로 대체로 양호
  - 응답자의 92.0%가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때에 했다'고 응답함. 영아 74.2%, 유아 65.8%가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함. '모유수유' 했던 비율은 56.6%, '치과 검진'을 받았던 비율은 54.0%,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비율은 30.9%로 나타남.

## 라. 문화생활

-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율과 '1년에 1~2회' 한다는 비율을 합치면 약 80% 정도로 나타남. 조손가정에서 손자녀와 모든 여가활동에서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현저히 높음.
- 영유아 (손)자녀의 일과활동
  - 주중과 주말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은 각각 평균 79.4분, 102분임.
  - 주중과 주말 책 읽는 시간은 각각 32.9분, 36.3분이고, 주중과 주말 게임하는 시간은 각각 22.6분, 30.5분임.
  - 자녀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최초 시기는 만 1세의 비율이 3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마.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와 요구

- 보육 및 돌봄 분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서비스/인프라 지원 제도와 시간 지원 제도에 비해서 비용 지원 제도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남.
    -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3.9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4.3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 관련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주거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의 경우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수혜 경험이 가장 많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주택 지원,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모두 평균 4.3점 이상임.
-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각 94%와 8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조손가정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각 66.7%로, 다른 빈곤가정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임.
    - 이는 필수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사업으로 미이용 시 영유아에 대한 방임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건강 및 의료 관련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2~4.7점임.

#### □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 영유아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 중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78.6%).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홍보보다 ‘안내 책자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비율이 46.9%로 높게 나타남.
- 가장 큰 고민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79.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으로는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4. 영유아 빈곤가정의 가정유형별 양육경험

### □ 일반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 가정보육과 양육스트레스: 가정보육을 선택함,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
- 자녀양육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 부부간 양육가치관의 차이, 남편의 제한적인 양육참여, 주변의 도움이 제한적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짐: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되거나 미루어짐,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 아이들이 받는 영향을 걱정함.
- 양육을 돕는 사회적 지원들: 이웃, 친지의 도움 및 사회서비스 기관의 지원
-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됨.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함.

### 나. 빈곤가정 한모의 양육경험

-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나홀로 생계부양, 나홀로 출산, 이혼 선택, 막막한 생계, 양육비 받지 못함.
-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 필요한 지원 받지 못함, 서비스의 질이 열악하고 제한이 많음.
-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문제점: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조건부수급, 보육서비스 도움 및 문제
- 가정에서의 돌봄 체계: 아이와 함께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려고 함, 위기 시

아이를 돌봐줄 지원체계를 확보함.

- 부모됨의 의미: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함. 부의 부재가 갖는 영향을 고민함.

□ 빈곤가정 미혼모의 양육경험

-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나홀로 생계부양, 출산, 산후조리 제대로 하지 못함.
- 자녀양육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미룸. 경제적인 어려움 및 양육 스트레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병을 얻음.
- 관계의 단절: 주위 시선에 대한 불안,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됨.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됨
-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음, 부족하고 제한된 지원 및 부적절한 자격기준
- 보육서비스의 도움 및 문제들
- 부모가 된 후 변화와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 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 빈곤가정 한부의 양육경험

- 아내의 가출과 이혼, 나홀로 육아
- 자녀양육의 어려움: 식사/의복준비의 어려움, 아이들과 제한적 상호작용, 자녀 교육지원의 어려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
- 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의존도가 높음, 아쉬운 서비스체계들, 위기 시 아동돌봄 체계
- 근로중단과 경제적 어려움: 육아를 위한 근로중단, 조건부수급, 자활참여, 지원을 받으며 버텨, 아이 양육비를 못 받음, 편법적인 근로를 함.
- 책임감을 느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함.

□ 빈곤가정 조부모의 양육경험

- 자녀의 출산과 가출: 자녀가 낙태를 거부, 가출, 친생부 측에서 아이를 거부함.
-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싶었음, 가정위탁 신청,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힘든 육아, 병을 얻음.
-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가정위탁서비스체계의 도움, 보육서비스의 도움

- 을 받음,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서비스, 위기시 아이를 돌봐줄 지원체계 부족
- 아이를 키우는 보람을 느낌, 다른 사람에게 부탁,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음.

## 5.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가. 기본 방향

-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 필요: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성장하면서 다차원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결핍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발달 궤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짐.
-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
  - 빈곤가정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정 유형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함.
  -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 긴급 시 돌봄인력 부재 및 정서적 지지체계의 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과정, 어린 자녀를 혼자 돌봐야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손가정의 경우 육체적 노쇠함, 사회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이 떨어짐으로 인한 손자녀 훈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나.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빈곤 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 식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거나 식당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빈곤가정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 영유아 대상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확대
  -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구의 수당 적정성 제고: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고소득의 정규직 형태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양육 수당 제공 필요
  - 책읽기 프로그램 등의 참여 연계 및 활성화: 빈곤가정의 영유아가 미디어 등

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등의 제공

-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 빈곤가정 영유아의 소질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하여 영유아가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에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 프로그램 연계 중심의 사례관리가 아닌 해당 영유아와 가족에 적합한 맞춤형 방식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촘촘한 사례중심의 영유아 관리
- 드림스타트 자체적으로 영유아 사례관리 발굴
-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학부 모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보다 더 활성화 하여 조손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지원
- 빈곤가정의 양육비 등에 관한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연계하여 서로 진행 사항을 공유하여 법률적 지식 제공 및 경제적 지원

□ 조기드림스타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 만3세 혹은 만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빈곤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국과 같은 조기드림스타트 마련 기획

□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일반 빈곤가정 지원 방안: 일반 빈곤가정의 사례관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권장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지원 방안: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한부모 및 미혼모(부)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조손 가정 지원 방안: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 및 업무 명확화

□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

-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기존체계의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 I

##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에 입각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생활, 주거환경, 보육 및 교육 기회, 영양과 건강,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서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정립·김아름·엄지원(2018)의 연구에서 보편적 복지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부모 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발생을 줄이고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2011년에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2012년에는 만 5세만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였고, 2013년 이후로는 만 3~5세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을 포함한 2013년 0~5세아 무상보육 실시와 2019년 전(全)계층 아동수당 지급 등 보편적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지원만으로 빈곤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2018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중심으로’ 연구(이정립 외, 2018)에서 일부 밝혀졌다.

이정립 외(2018)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이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과 같은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 보장으로써의 효과가 있는지를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전국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기중(5~6월)과 학기말(10월)에 담임교사가 유아의 행동 및 성취에 관하여 관찰하여 평정하도록 한 결과, 취약계층 만 4~5세 유아들

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능력과 같은 누리과정 5개 영역에 대한 관찰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취약계층 유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빈곤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에서의 격차 이외에도 빈곤 가정 유아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 2008; 이정림·민정원·조혜주, 2014).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 외(2009)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를 파악한 결과, 저소득 가정 영유아는 소득별, 가정유형별에 따른 양육실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정 영유아가 차상위가정보다 전반적으로 양육 관련 영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서 소득별, 가정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신생아 및 영유아와 같은 생애의 초기 단계에서 조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조기 투자가 이후 시기에서의 투자 효과 보다 효율적이라는 보고가 노벨 경제학 분야 수상자인 Heckman을 비롯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다(김수정·정익중, 2017; Heckman, 2008b; Wößmann, 2008; Heckman & Corbin, 2016; Doyle et al., 2009). 특히 Doyle, Harmon, Heckman, & Tremblay(2009)은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 및 건강 등에서 불평등이 만 3세의 어린 시기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산전 및 산후투자의 효과성을 밝히고 산후보다 산전 투자(antenatal investment hypothesis)의 효과가 더 높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기 시기 투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정도에 해당하는 2016~2018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취약대상 아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3세 이상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영유아의 비중이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 2019: 123).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지원에서도 여전히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취약계층 관련 연구에서도 가구소득과 가정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 열악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기조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과 가정유형 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등에서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 내용이 해당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10여 년 전보다 줄어든 사회적 배경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보강되어야 할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또한, 최근 빈곤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현금 및 현물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정책 등에 대한 빈곤가정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빈곤가정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곤 가정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영유아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빈곤가정 영유아를 넘어 빈곤가정의 출산 지원 등을 포함한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자보건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에 관한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가 2019년도에 수행된 바 있으며 1차년도 연구에서는 빈곤가정과 비빈곤 가정 영유아 양육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2차년도 연구인 2020년도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내에서 빈곤가정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해서 가정유형별에 따른 양육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배경을 토대로 본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초기의 신생아·영유아시기부터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양육환경의 격차와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최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빈곤가정 영유아의 불리한 양육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가구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 가. 2019년도(1차년도) 연구내용

본 연구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 2차

년도에 걸친 연구로써 1차년도(2019)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를 분석하였다.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빈곤 가정(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 실태, 양육의 물리적 환경, 부모참여·시간 투자 실태,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실태, 사교육 이용실태, (자녀 양육지원)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인지도, 수혜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실제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빈곤가정과 비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영유아 자녀를 둔 빈곤가정을 위한 국내외 통합적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 부모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국내외 프로그램을 비교분석 하였다.

넷째,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에 있어 일반가정의 영유아 대비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성장·발달에서의 격차 해소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 나. 2020년도(2차년도)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가족유형의 변화 및 추이, 가족유형별 빈곤가정 영유아 규모를 파악한다. 영유아를 둔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부) 가정, 조손가정 규모 및 추이 변화와 제 특성과 이들 가구의 빈곤가정 영유아 규모를 분석하고 파악한다.

둘째, 가족유형별 저소득층 가정 양육지원 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를 파악한다. 영유아를 둔 일반 저소득가정(양부모 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관련 추진 계획을 파악한다.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 주거 등 물리적 환경, 건강 및 영양, 의료지원, 육아 정보 및 문화 부문의 지원을 포괄하여 살펴본다. 또한, 가정유형별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를 파악한다.

셋째, 가정유형에 따른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양육지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한다. 빈곤가정의 비율이 높고 주된 돌봄 취약계층으로 지목되는 1) 일반 저소득가정(양부모 가정), 2) 한부모 빈곤가정, 3) 미혼모(부) 빈곤가정, 4) 조손 빈곤가정의 자녀양육 특성 및 애로사항 등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가정유형별 다차원적 빈곤 영역에 관하여 비교 분석한다. 가정유형에 따른 빈곤 특성 규명, 즉 다차원적 양육지원 영역의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한다.

다섯째, 빈곤가정 특성에 따른 양육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가정특성별 양육 시 어려움, 다차원적 양육지원 영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특성별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과 세부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I-1-1] 연구내용

2019년도(1차년도)	2020년도(2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li> <li>• 양육 관련 다측면 실태 분석</li> <li>• 국내외 통합적 지원 사례 분석</li> <li>• 영유아 양육에 있어 성장, 발달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유형별 빈곤가정 규모 파악</li> <li>• 가족유형별 빈곤가정 양육지원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 파악</li> <li>• 가족유형별 빈곤가정 양육실태 및 애로 사항, 양육지원 만족도 개선 요구 파악</li> <li>• 가족유형별 다차원적 빈곤 영역 분석</li> </ul>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첫째, 가구유형별 규모 추이 변화, 빈곤가구 비율 및 영유아 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가구특성별 양육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관련 계획 등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조기투자의 효과성 및 빈곤의 대물림 등에 관한 선행연구, 빈곤가구 유형별 양육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나.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 방향의 설정, 설문 문항 검토, 정책제언 검토 등 연구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연구 방향 및 현행 지원정책, 정책지원 방향 등을 협의하였다. 한부모 단체, 미혼모 단체, 지역 복지관 등의 관련

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부모 및 미혼모(부) 빈곤가정 및 조손 빈곤가정의 영유아 주양육자들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일정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4. 9.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연구 방향 및 내용 검토
2차	5.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빈곤가정 유형별 설문지 검토
3차	6. 5.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면담 대상자 모집 및 내용 등 논의
4차	6. 11.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한부모연합회 대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빈곤 한부모/미혼모 현황 자문 및 면접 대상자 협조 요청
5차	6. 1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빈곤 한부모/미혼모 및 조손가정 지원정책 현황 파악 등
6차	7. 3.	미혼모연합회 회원 20여명	미혼모의 영유아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파악
8차	7. 17.	사회복지사 4인	조손가정 대상 사업 현황 및 애로점 파악
9차	11. 23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외 1명 제주지역 미혼모 4명	미혼모 가정 영유아에 대한 양육 요구 및 정책 방안 논의
10차	11. 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읍면지역 빈곤가구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 방안 논의

## 다.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모집,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220996-200603-HR-008)받았으며, 다음에서 설문조사 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1) 조사대상 규모 및 특성

다음에서 설문조사 대상 선정기준, 설문조사 대상자 표집 할당 및 실제 조사 참여자 수, 조사 참여자 특성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 가)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참여자 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빈곤가정의 특성별 분석을 위해 ①일반저소득가정(양부모), ②한부모 빈곤가정, ③미혼모(부) 빈곤가정, ④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1명 이상의 영유아(손)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빈곤가정의(조)부모 중 1인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빈곤가정과 빈곤가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빈곤가정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속 과제로 2019년 기준과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취학 전 영유아가 한 명 이상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가정으로 한정하였다.

〈표 I-3-2〉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50%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12.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 유형은 일반 저소득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고, 다음에서 각 가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첫째, 일반저소득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가정으로 한부모, 조손가정이 아니면서 부부와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하였다.

둘째, 한부모 빈곤가정은 영유아의 조부모나 친인척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을 했던 적이 있고 이혼, 사별, 별거로 한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으로 간주하며, 한부 가정, 한모 가정을 모두 포함한다.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양육실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한부모 빈곤가정은 한부모가 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셋째, 미혼모(부) 빈곤가정은 영유아의 조부모나 친인척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사실혼 제외)로 출산하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미혼모나 미혼부 가정을 모두 포함하였다.

셋째, 조손 빈곤가정은 손자녀 부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조부모(조모 혹은 조부)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가정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조손 빈곤가정은 영유아가 조부모 모두, 혹은 조모나 조부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곤수준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채홍·현승현·김수용, 2011) 및 조손가정에서 영유아 손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선행연구 결과(여성가족부, 2010)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다음 <표 I-3-3>과 같이 영유아가 있는 빈곤가정의 주양육자를 일반 저소득 가정에서 150명,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에서 각 100명, 조손가정에서 24명으로 총 374명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가정유형과 지역을 할당하여 해당 가정의 주양육자 1명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설문조사에서 영아와 유아의 비율이 가능한 비슷한 비율로 표집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한편, 조손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2020년도의 특수한 상황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부모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표본을 적게 할당하였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수는 가정유형별로 일반 저소득 가정의 주양육자 150명, 한부모 96명, 미혼모 104명, 조손가정의 조부모 24명으로 총 374명이었다.

<표 I-3-3> 연구대상자 할당 및 실제 설문조사 참여자

단위: 명

구분	일반저소득가정	한부모빈곤가정	미혼모(부)빈곤가정	소계	조손빈곤가정	합계
전체	150(150)	100(96)	100(104)		24(24)	
수도권	75	50	50	350	-	374
비수도권	75	50	50		-	

주: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50:50으로 할당하고자 하였으나, 표집이 어려운 조사대상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2. 괄호( ) 안의 수는 실제 설문조사 참여자 수

## 2)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자녀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양육지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으로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 <표 I-3-4>와 같다.

〈표 I-3-4〉 설문조사 항목

구분	질문지 내용
가족생활 및 관계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돌봄지원, 정서적 지원
양육 스트레스 및 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 효능감
자녀 돌봄 실태 및 애로사항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자녀 혼자 있는 시간, 자주로 돌보는 사람 혹은 기관, 기관 이용(최초시기, 이용 시간, 이용 정도, 정규시간 외 이용 경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유형, 이용 시간), 기관 이용 여부, 도움 인력, 부모 교육 수강 경험, 생활환경
자녀의 건강·영양·식생활·안전	자녀의 건강 상태, 입원 경험, 건강관리·영양·식생활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	지출하지 못한 경험, 지원금액, 월 평균 생활비, 양육비, 채무, 채무의 원인, 퇴직 경험 및 시기
주거 및 지역 환경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소유주, 지역 환경
여가시간 활용	여가활동 빈도,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자녀의 독서, 영상, 게임, 영상 시청 시기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육아지원정책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아동수당 소비, 아동수당 도움 정도, 건강 및 의료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주거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필요한 육아지원, 희망 정보 제공 방식, 고민, 양육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부문
인적사항	성별, 출생연도, 학력,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주: 조사항목 표에는 함께 제시하나 각 가구 유형별 특성상 설문지는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임.

### 3)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웹설문조사 및 지류설문조사이었다. 일반저소득 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의 주양육자 대상 조사는 웹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조손가정의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지류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웹설문조사의 경우 1차적으로는 전문조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통해서 응답자를 모집하였고, 모집이 어려울 시에는 해당 응답자가 속해있는 협회나 지역 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통하여 추가 모집하였다.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연합회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협조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집되었다. 다음에서 각 조사방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가) 웹 설문조사(패널)

웹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 자체 패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조사 URL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조사업체 패널 해당자에게 발송하면, 링크를 받은 대상자는 링크를 통해 조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웹 설문조사(한부모연합회/미혼모가족협회 및 각 지역 사회복지관 협조)

전문조사기관 자체 패널을 통해서 표집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한부모연합회 및 미혼모가족협회, 지역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하였다. 양부모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응답자가 조사기관의 패널을 통하여 조사에 응하였으므로 지역 사회복지관의 협조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대부분의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연합회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협조를 받아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각 기관(한부모연합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충분히 제공하고, 조사 URL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각 기관에 발송하면, 기관 담당자가 링크를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링크를 통해 조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 지류 설문조사(각 지역 사회복지관 협조)

지류 설문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조손가정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 설명문 등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각 기관에 충분히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조손가정을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1-3-5〉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구분	일반저소득가정	한부모빈곤가정	조손빈곤가정
웹설문	- 조사기관 패널	- 조사기관 패널 - 부족분 한부모협회 및 사회복지관 협조 요청	- 조사기관 패널 - 부족분 사회복지관 협조 요청
지류설문	-	-	- 인터넷 및 모바일 접근성 저하 가구 대상 조사기관 담당자 방문하여 지류 설문 실시 - 사회복지관 협조 요청

라. 심층면담

본 연구의 심층면담과 설문조사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절차를 각기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대상, 심층면담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

(220996-200603-HR-008)을 받았다. 4장에서 설문조사 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다음에서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1) 조사대상 및 규모

심층면담 조사대상 및 규모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양부모 저소득가정 부모 3명, 한부모 7명, 미혼모 3명, 영유아 손자녀를 둔 조부모 2명으로 총 15명이었다. 가정 유형(일반 저소득/한부모/미혼모/조손 가정)과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을 할당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양육자 1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 2) 조사내용

심층면담 조사내용은 자녀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양육지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이었다. 심층면담 사례조사는 구조화된 면접이 아닌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됨으로 면접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해당 면접내용의 포함 범위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결혼, 임신 및 출산 관련 질문의 경우 빈곤 가정에서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혼, 임신 및 출산 등과 관련된 경험은 현재의 영유아 어머니(주양육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양육 부담 및 양육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양육 실태 파악을 위해 중요한 질문인 반면, 조손 가정이나 한부 가정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과정에 관한 질문의 경우에도 조손가정의 경우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손자녀를 돌보게 된 이유 및 양육기간 등과 같은 내용은 조손가정에만 한정해서 면접할 수 있게 하였다.

### 3) 조사방법

심층면담 조사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본 연구의 연구진과 빈곤가정 주양육자와 60~90분 정도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마. 정책 간담회 개최

빈곤가정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전략 및 세부 방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관계자,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12월 22일에 개최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간담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I-3-6〉 정책 간담회 세부 일정

세 부 일 정		
10:00~10:10	인사말	
10:10~10:50	주제발표	주제발표 1: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및 지원 방안
		주제발표 2: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 생활실태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10:50~11:50	지정 토론	정정호 교수(청운대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신혜원 교수(서경대 아동학과) 김도경 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손유미 사무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단비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1:50~12:00	종합토론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먼저,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을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구분한 모든 가정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두 저소득인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각 가정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 저소득 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소득이 낮은 가정으로 지칭하고자 하였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한부모, 조손가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 저소득이면서 조손가정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저소득 가정은 한부모, 조손 가정이 아니면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소득이 낮은 가정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부모 빈곤가정의 경우 남자 가구주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여자 가구주

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모두 포함하여 한부모 가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미혼모(부) 가정의 경우도 미혼부, 미혼모 저소득 가정 모두를 포함하여 범주화하였다.

넷째, 조손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저소득이면서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를 조손가정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조모와 조부인가에 따른 구분 없이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인 저소득가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정의 경우 대리양육 가정위탁 유형의 조손가정을 포함하였다. 대리양육 가정위탁 형태의 조손가정은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임으로 가구 단위로 수급을 받고 있는 일반 저소득가정과 한부모 빈곤가정의 경우와는 수급 대상 범주가 다르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인 조손가정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리양육 가정위탁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서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아닌 저소득 조손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유형의 조손가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 유형별 설문조사 수행 시에도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정이 많지 않음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협조의 용이성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조손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손가정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조손가정의 양육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수급가구를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빈곤가정 유형별 설문조사 대상은 2019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500명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대면 설문조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324명으로 축소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수가 많지 않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실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 II

## 연구의 배경

- 01 빈곤가정 영유아 및 가정유형별 수급자 현황
- 02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
- 03 선행연구 검토



## II. 연구의 배경

### 1. 빈곤가정 영유아 및 가정유형별 수급자 현황

#### 가. 빈곤가정 영유아 수급자 규모

빈곤가정 영유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영유아 수급자의 규모와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대비 영유아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통계는 제공되지 않아 연령별 통계를 이용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대비 0-5세 수급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영유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 빈곤률 감소 추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따른다. 이는 최근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 감소와 특히 저출산 가구에서 일반 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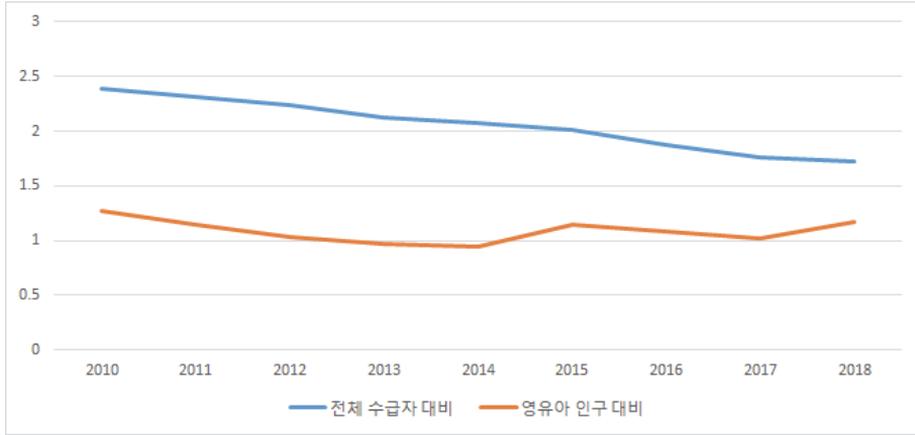
〈표 II-1-1〉 0-5세 수급자 수 및 비율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5세 수급자 전체	34,827	31,910	29,111	26,815	25,700	31,219	28,921	26,241	28,371
0세	3,711	3,570	3,091	2,631	2,582	3,084	2,640	2,370	2,630
1세	4,552	4,551	4,250	3,902	3,479	4,121	3,916	3,491	3,664
2세	5,521	4,694	4,654	4,527	4,281	4,694	4,424	4,155	4,438
3세	6,552	5,591	4,744	4,872	4,882	5,752	4,973	4,630	5,222
4세	6,770	6,608	5,673	4,939	5,204	6,591	6,035	5,240	5,790
5세	7,721	6,896	6,699	5,944	5,272	6,977	6,933	6,355	6,627
전체 수급자 대비 0-5세 수급자 비율	2.39	2.31	2.24	2.13	2.08	2.01	1.88	1.76	1.72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대비 0-5세 수급자 비율	1.27	1.15	1.03	0.97	0.94	1.14	1.08	1.02	1.17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2020.02.27.인출)

2) 통계청. 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kosis.kr>) (2020.02.27.인출)

[그림 II-1-1] 0-5세 수급자 비율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2020.02.27.인출)  
 2) 통계청. 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kosis.kr>) (2020.02.27.인출)

## 나. 빈곤가정 유형별 수급자 수

생활보장수급자가구 특성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수는 2010년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구에서 모자가구, 부자가구, 미혼부모가구, 조손가구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특성별 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878,799	850,689	821,879	810,544	814,184	1,014,177	1,035,435	1,032,996	1,165,175
노인	243,708	237,213	236,617	235,601	236,548	262,124	261,680	263,475	337,788
일반	291,774	277,081	259,866	251,372	251,333	323,289	328,282	322,918	340,597
장애인	173,322	173,751	174,112	175,867	178,397	191,723	193,585	197,081	211,010
모자	85,970	83,525	78,333	76,270	74,925	123,497	132,277	130,506	135,862
부자	20,879	20,479	18,820	18,366	18,362	34,538	37,753	36,675	38,095
소년소녀	11,565	9,798	8,105	6,945	5,882	5,188	4,324	3,544	2,972
미혼부모	411	450	466	483	541	667	641	555	550
조손	5,095	6,357	6,533	6,663	6,706	7,492	7,621	7,558	7,632
기타	46,075	42,035	39,027	38,977	41,490	65,659	69,272	70,684	90,669

자료: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특성별. (<http://kosis.kr>) (2020.02.27.인출)

전체 생활보장수급자가구 대비 각 특성별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모자가구와 부자가구, 조손가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특성별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인	27.73	27.88	28.79	29.07	29.05	25.85	25.27	25.51	28.99
일반	33.20	32.57	31.62	31.01	30.87	31.88	31.70	31.26	29.23
장애인	19.72	20.42	21.18	21.70	21.91	18.90	18.70	19.08	18.11
모자	9.78	9.82	9.53	9.41	9.20	12.18	12.78	12.63	11.66
부자	2.38	2.41	2.29	2.27	2.26	3.41	3.65	3.55	3.27
소년소녀	1.32	1.15	0.99	0.86	0.72	0.51	0.42	0.34	0.26
미혼부모	0.05	0.05	0.06	0.06	0.07	0.07	0.06	0.05	0.05
조손	0.58	0.75	0.79	0.82	0.82	0.74	0.74	0.73	0.66
기타	5.24	4.94	4.75	4.81	5.10	6.47	6.69	6.84	7.7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수)	(878,799)	(850,639)	(821,879)	(810,544)	(814,184)	(1,014,177)	(1,035,435)	(1,032,996)	(1,165,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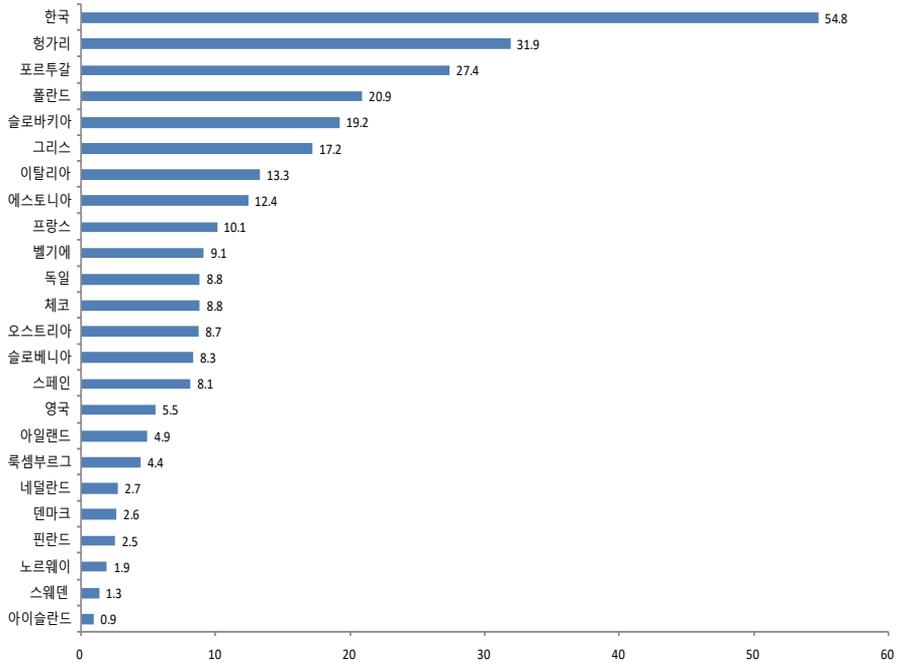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특성별. (<http://kosis.kr>) (2020.02.27.인출)

김태완·김성아(2018)의 연구에서도 아동빈곤율은 가구 형태별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한부모 가구와 조손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5-6에서 재인용). 조손가구와 여성 한부모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일반가구보다 8-9배 높게 보고되었으며, 장기빈곤 경험율은 여성 한부모 가구가 남성 한부모 가구보다 8배 높게 나타났다(김태완·김성아, 2018: 류정희 외, 2019: 5-6에서 재인용).

#### 다. 아동가구의 결핍 및 박탈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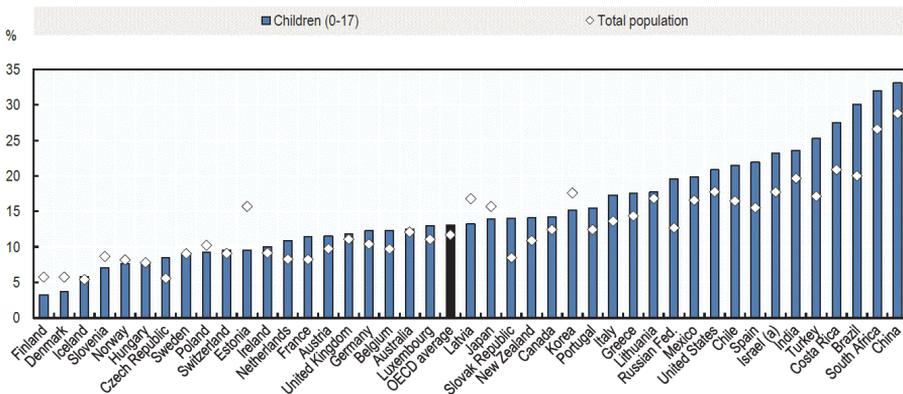
빈곤율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소득은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지만, 아동빈곤율의 감소가 곧 아동의 복지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빈곤율과 아동결핍 수준의 국가 비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그림 II-1-2, 그림 II-1-3). 이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의 결핍 수준은 OECD의 23개 국가 중 최하위인 반면, 아동빈곤율의 수준은 중위권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빈곤율과 아동결핍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의 격차가 커 아동의 결핍 및 박탈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류정희 외, 2019: 510).

[그림 II-1-2] 아동 결핍 수준 국가 비교



주: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않음, 없음)'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임.  
 자료: 김미숙 외(2013).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6.

[그림 II-1-3] 2016년 기준 OECD 국가 아동빈곤율



주: 1) 가처분 소득 및 중위소득 50%을 기준으로 함.  
 2) 인도, 중국은 2011년, 브라질은 2013년, 뉴질랜드, 2014년,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터키, 남아메리카는 2015년, 칠레는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OECD(2019). CO2.2: Child poverty, Chart CO2.2.A. [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y.pdf](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y.pdf) (2020.06.15. 인출). p. 2.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가구의 박탈지수와 아동의 결핍지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류정희 외, 2019).

먼저 아동가구의 박탈지수는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아동의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박탈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류정희 외, 2019: 512). 이에 따르면,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서 박탈점수가 6배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가 4.5점 50~100% 미만 가구가 1.84점, 100~150% 미만 가구가 0.96점, 150% 이상 가구가 0.86점으로 나타났다(표 II-1-4 참조). 이에 따르면 소득이 적을수록 박탈지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폭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1-4 참조). 또한, 한부모 및 조손 가구가 느끼는 박탈점수는 5.11점으로 양부모 가구에 비해서 4배 높게 나타나 한부모와 조손가구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표 II-1-4 참조).

〈표 II-1-4〉 아동가구의 박탈지수

구분		평균	SD	계(명)
전체		1.58	3.08	4,039
수급여부	비수급	1.28	2.51	3,864
	수급	7.86	5.95	175
소득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4.50	5.42	368
	중위소득 50~100% 미만	1.84	3.10	1,541
	중위소득 100~150% 미만	0.96	1.99	1,563
	중위소득 150% 이상	0.86	2.45	532
	무응답	1.75	2.08	36
가구유형	양부모	1.29	2.57	3,789
	한부모·조손	5.11	5.65	250

자료: 류정희 외(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97. 〈표 12-7〉 재구성.

아동의 결핍지수는 UNICEF 아동결핍지수의 14문항에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아동 생활환경에서의 결핍과 관련한 항목을 통해서 조사하였다(표 II-1-6 참조). 결핍지수는 14개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0-2세의 결핍지수가 가장 높은 42.34%로 나타났다.

3-5세도 29.29%로 6-11세 아동에 비해서 높은 결핍수준을 보였다. 또한 수급가구의 아동이 66.96%로 나타나 일반 가구의 2.3배 수준을 보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핍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부모와 조손가구의 아동의 결핍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서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0-8세 아동의 결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II-1-6>과 같다. 이에 따르면 수급 아동의 영양 상태, 발달 지원, 주거환경, 사회·문화적 생활 등에 대한 결핍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1-5> 아동의 결핍지수

단위: %, 명

구분		결핍지수	계
전체		31.53	4,039
아동연령	0-2	42.34	2,083
	3-5	29.29	1,952
	6-8	24.20	512
	9-11	27.67	729
	12-17	33.69	578
수급여부	비수급	29.92	3,864
	수급	66.96	175
소득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44.33	368
	중위소득 50~100% 미만	31.19	1,541
	중위소득 100~150% 미만	29.68	1,563
	중위소득 150% 이상	27.07	532
	무응답	91.23	36
가구유형	양부모	30.11	3,789
	한부모·조손	52.90	250

주: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류정희 외(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8. <표 12-19> 재구성.

<표 II-1-6> 0-8세 아동의 결핍 실태

단위: %

내용	평균	비수급	수급
<b>0-8세 아동결핍지수</b>	<b>31.3</b>	<b>30.4</b>	<b>62.7</b>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2.5	2.4	7.2

내용	평균	비수급	수급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8.0	7.6	22.4
시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7.8	7.2	29.7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	8.0	7.6	22.7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18.2	17.7	33.9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27.7	27.0	50.6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10.0	9.5	26.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5.5	4.9	26.4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8.0	7.4	29.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2.8	2.5	13.4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3.6	3.3	15.5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3.7	3.4	13.9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15.7	14.9	43.5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8.4	7.3	45.6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49.8	50.5	43.3

자료: 류정희 외(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9. <표 12-20> 재구성.

## 라. 소결

최근 아동빈곤율은 전체 인구 대비 빈곤율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추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동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결핍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아동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볼 때도,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적 빈곤도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다차원적 빈곤의 측면에서도 박탈과 결핍을 현저하게 많이 느끼고 있어 이들 가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0-2세 가구에서 느끼는 결핍이 다른 연령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0-2세 가구를 둔 빈곤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적거나,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영아의 경우 발달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시기인 만

큼 영양 상태, 발달 지원,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빈곤을 지원하여 영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2.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 현황 및 전달체계

### 가. 빈곤가정 지원의 법적 근거

#### 1) 헌법적 요청

아동의 빈곤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과업의 성취를 저해하고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효진, 2008). 또한 이러한 영향은 빈곤에 노출된 연령 및 기간에 따라서 커질 수 있으므로(김효진, 2008), 이른 시기의 적절한 빈곤에 대한 지원은 향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성인기 이후의 사회 통합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빈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며,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고찰하여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조 사회적 평등, 제3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등을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다. 특히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청소년”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4항과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를 들 수 있다.

헌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아동의 헌법상 권리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하나(정극원, 2010; 정혜영, 2009), 이러한 시도와 별개로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성장·발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상겸·권영복, 2005; 최윤영, 2017).

전광석(2019: 113)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저생활보장의 권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과는 달리 헌법해석을 통해서 그 규범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개인과의 권리와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최저생활보장의 절대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재정을 견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전광석, 2019: 113). 그러나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헌법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정치적 다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으로 인해서 헌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전광석, 2019: 112).

따라서 아동의 빈곤에 대한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아동빈곤예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통해서 구체화 되어있다.

##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가) 아동빈곤예방법의 제정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은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의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아동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다.

아동빈곤예방법은 아동빈곤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이유에서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sup>. 이에 비추어볼 때 아동빈곤예방법은 기존 아동복지정책의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5.] [법률 제10850호, 2011. 7. 14., 제정] h, 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86&ancYd=20110714&ancNo=10850&efYd=201207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0.06.19. 인출)

한계를 인지하고, 단순히 아동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지원이 아닌 빈곤에 대한 사회, 문화, 정서적의 다차원적 접근과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아동빈곤예방법의 내용

아동빈곤예방법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3조에서 “아동”, “아동빈곤”, “빈곤아동”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표 II-2-1).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을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아동빈곤예방법이 목적과 빈곤아동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차원적 결핍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빈곤의 다차원적 시각에서 아동의 빈곤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빈곤예방법에서 빈곤아동은 ①아동복지법 상의 보호대상아동, ②아동복지법 상의 지원대상아동,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⑤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의 아동, ⑥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이 해당한다(표 II-2-2). 그러나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이 모호하여 보호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 2013; 이상희, 2020), 특히, 지원 대상 아동의 경우 그 정확한 규모나 현황,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범위 확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최수정, 2015; 이상희, 2020).

〈표 II-2-1〉 아동빈곤예방법의 아동, 아동빈곤, 빈곤아동

구분	아동빈곤예방법 제3조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아동빈곤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	-

구분	아동빈곤예방법 제3조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빈곤아동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아동빈곤예방법 (2020.06.18.인출)

〈표 II-2-2〉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아동

기준	구체적인 대상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대상아동 (제3조제4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상의 지원대상아동 (제3조제5호)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의 아동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료 이루어진 가족 내 아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020.06.18.인출)

제4조에서는 빈곤아동정책 수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주기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제5조의2)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6조, 제7조)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지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제8조, 제10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제9조 제1호)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두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빈곤아동정책의 시행이 가능하여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원의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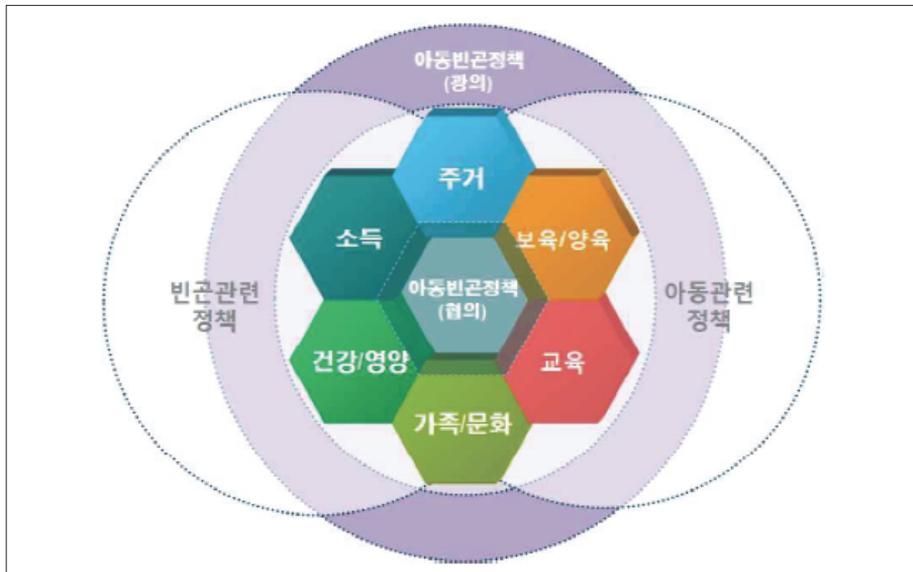
이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나.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지원 정책 현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빈곤정책은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개입이 중요하다. 한편, 여유진 외(2017: 85)는 [그림 II-2-1]과 같이 아동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빈곤과 관련된 정책과 아동 관련 정책의 틀 안에서 아동이 속한 성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편복지로서의 아동정책이 포함되는지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빈곤정책의 범위를 여유진 외(2017: 85)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그림 II-2-1] 아동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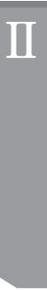


자료: 여유진 외(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6. (유해미 외, 2019: 65, 재인용)

일반적으로 빈곤가구에 대한 연령별 영유아 양육지원 내용은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영유아 양육지원의 영역 및 연령별 지원내용

지원영역		만0세 (~12개월)	만1세 (~24개월)	만2세 (~36개월)	만3세 (~48개월)	만4세 (~60개월)	만5-6세 (~84개월)	
보육·돌봄 지원	아동관련 수당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만18세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7세미만)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만18세 이하)						
	보육· 교육 서비스	만 0-2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야간,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미취학 만12세이하)						
		시간제보육(6~36개월)						
	가정내 양육지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3개월~만12세이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3~36개월)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만12세 이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기타 서비스 지원	비장애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바꾸쳐(~만12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꾸쳐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 테마여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만19세미만,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자녀생활서비스 (~12세이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현물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24개월)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만6세미만)						
	검진 및 예방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만6세미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만12세이하)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18세미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18세미만)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18세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개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지원영역		만0세 (~12개월)	만1세 (~24개월)	만2세 (~36개월)	만3세 (~48개월)	만4세 (~60개월)	만5-6세 (~84개월)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진단아동 임상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놀이 및 여가지원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통합문화 이용권 (6세이상)	
						스포츠통과 이용권 (5세이상)	
취약계층 통합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만12세 이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가구자활사업)						
주거지원	주택공급	가족역량강화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생계/의료급여)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일반저소득매입임대					
		행복주택((주거급여수급자/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만65세이상 고령자)					
	주거환경	주거급여, 임차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급여, 자가가구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한 예방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생활비 경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바우처(난방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료: 1)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 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 113-114. 을 수정·보완함.
- 2) 복지로·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22-28, pp. 31-32, pp. 35-39, p. 48, pp. 50-51, p. 94, pp. 96-97, p. 99, pp. 101-108, p. 129, p. 156, p. 193, pp. 197-198, p. 221, pp. 223-224, p. 291.
- 3)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http://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nfSno=298> (2020. 05. 07. 인출)
- 4)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http://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nfSno=360> (2020. 05. 07. 인출)
- 5)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http://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nfSno=302> (2020. 05. 07. 인출)

1) 보육·돌봄 지원<sup>2)</sup>

보육 및 돌봄 지원정책은 아동 관련 수당,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가정 내 양육지원, 기타 서비스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가) 아동 관련 수당

아동 관련 수당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된다.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전까지 지원된다. 그 외에도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수당,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같은 아동과 관련된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표 II-2-4〉 아동관련 수당

아동관련 수당	대상	지원내용																				
아동수당	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19.9월 부터)</li> </ul>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li> <li>금액</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개월)</th> <th>양육수당</th> <th>농어촌 양육수당</th> <th>장애아동 양육수당</th> </tr> </thead> <tbody> <tr> <td>0~11개월</td> <td>20만 원</td> <td>20만 원</td> <td rowspan="3">20만 원</td> </tr> <tr> <td>12~23개월</td> <td>15만 원</td> <td>17만 7,000원</td> </tr> <tr> <td>24~35개월</td> <td>10만 원</td> <td>15만 6,000원</td> </tr> <tr> <td>36~47개월</td> <td rowspan="2">10만 원</td> <td>12만 9,000원</td> <td rowspan="2">10만 원</td> </tr> <tr> <td>48~86개월</td> <td>10만 원</td> </tr> </tbody> </table>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15만 6,000원	36~47개월	10만 원	12만 9,000원	10만 원	48~86개월	10만 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15만 6,000원																		
36~47개월	10만 원	12만 9,000원	10만 원																			
48~86개월		10만 원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97-98에서 재구성

나) 보육·교육 서비스

보육 및 교육 서비스로는 만 0~5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이 해당된다. 이 역시 아동 관련 수당과 같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II-2-5〉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

보육·교육 서비스	대상	지원내용																
만 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에 따라 월 34만 3,000원~47만 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 로 지원</li> <li>• 금액</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 <th>금액</th> <th>연령</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반</td> <td>47만 원</td> <td>만3세반</td> <td rowspan="3">24만원</td> </tr> <tr> <td>만1세반</td> <td>41만4천원</td> <td>만4세반</td> </tr> <tr> <td>만2세반</td> <td>34만3천원</td> <td>만5세반</td> </tr> </tbody> </table>	연령	금액	연령	금액	만0세반	47만 원	만3세반	24만원	만1세반	41만4천원	만4세반	만2세반	34만3천원	만5세반		
		연령	금액	연령	금액													
		만0세반	47만 원	만3세반	24만원													
만1세반	41만4천원	만4세반																
만2세반	34만3천원	만5세반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li> <li>• 금액</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지원액(원/월)</th> </tr> <tr> <th>국·공립 유치원</th> <th>사립 유치원</th> <th>어린이집</th> </tr> </thead> <tbody> <tr> <td>유아학비(유치원)</td> <td rowspan="2">6만 원</td> <td rowspan="2">24만 원</td> <td rowspan="2">24만 원</td> </tr> <tr> <td>보육료(어린이집)</td> </tr> <tr> <td>방과후 과정비</td> <td>5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8,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6만 원	24만 원	24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8,000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6만 원	24만 원	24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8,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li> </ul>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야간연장보육</th> <th>야간12시간보육</th> <th>24시간보육</th> <th>휴일보육</th> </tr> </thead> <tbody> <tr> <td>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td> <td>19:30~익일 7:30</td> <td>07:30~익일7:30</td> <td>공휴일</td> </tr> </tbody> </table>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7:30	07:30~익일7:30	공휴일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7:30	07:30~익일7:30	공휴일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95-96, p. 101에서 재구성

#### 다) 가정 내 양육지원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 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 대여, 부모 간 육아 정보 교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 공간 및 육아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6〉 가정내 양육 지원 정책

가정내 양육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 취업 한 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li> <li>• 제공서비스 (일반형)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일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li> </ul>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li> <li>• 제공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li> </ul>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li> <li>• 제공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li> </ul>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li> <li>•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li> <li>※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li> </ul>

가정내 양육지원	대상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 센터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자료: 복지로·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99, pp. 102-103, p. 198에서 재구성

## 2)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현물 지원, 검진 및 예방지원, 의료비 지원, 진단아동 임상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현물지원

먼저 현물지원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저소득층 영양플러스는 영양적으로 위험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영양상태에 따라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II-2-7〉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현물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사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li> <li>•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li> </ul>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104, p. 106에서 재구성

### 나) 검진 및 예방지원

검진 및 예방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실명예방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 시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여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2-8〉 검진 및 예방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차) 4-6 개월</th> <th>(2차) 9-12 개월</th> <th>(3차) 18-24 개월</th> <th>(4차) 30-36 개월</th> <th>(5차) 42-48 개월</th> <th>(6차) 54-60 개월</th> <th>(7차) 66-71 개월</th> </tr> </thead> <tbody> <tr> <td>건강검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강검진</td> <td>-</td> <td>-</td> <td>○ (18~ 29)</td> <td>-</td> <td>○ (42~ 53)</td> <td>○ (54~ 65)</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18~ 29)	-	○ (42~ 53)	○ (54~ 65)	-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18~ 29)	-	○ (42~ 53)	○ (54~ 65)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결핵, B형간염,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107-108에서 재구성

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으로는 먼저 의료급여를 들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1종, 그 외는 2종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 시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조건에서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눈건강 이상 환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밀검진, 개인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II-2-9〉 의료비 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가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산계좌로 지급(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한 자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li> </ul>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및 환아관리 지원	<b>(검사 지원)</b>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b>(관리 지원)</b> 만 19세 미만 환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li> <li>*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li> <li>•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li> </ul>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취학 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건강 이상 환아관리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관리</li> <li>• 눈건강 홍보 및 상담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li> </ul>

자료: 1)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104-105, p. 156에서 재구성  
 2) 복지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lId=14&searchCtgId=999&wellInfSno=360&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lInfNm=%EC%B0%A8%EC%83%81%EC%9C%84&pageUnit=10&key1=list&stsfCn=> (2020.09.10.인출)

### 라) 진단아동임상지원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아동임상지원 정책에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있다. 선청선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청각선별검사비, 난청 확진 검사비, 보청기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는 매월 발달재활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II-2-10〉 진단아동임상 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구분	내용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발달재활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li> <li>•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li> <li>•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li> </ul>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105, p. 223에서 재구성

### 3) 놀이 및 여가 지원

놀이 및 여가 지원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등을 들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 및 차상위의 만 5~18세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8만원 이내의 이용권을 통해 수강료를 지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1인당 연 10만원을 지급하여 산림복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표 II-2-11〉 놀이 및 여가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통합문화 이용권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9만 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li> <li>•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li> <li>•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li> </ul>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li> <li>•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li> </ul>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48, pp. 50-51에서 재구성

## 4) 취약계층 통합지원

취약계층 통합지원으로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 드림스타트, 탈빈곤 및 자활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아동통합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탈빈곤 및 자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가족역량강화지원은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 및 생활도움서비스,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표 II-2-12〉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가구자활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26, p. 129에서 재구성

## 5) 주거지원

### 가) 주택공급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정책은 하단의 표와 같다. 시중의 전세 시세의 60~80%로 임대하게 해주는 국민임대주택,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게 해주는 영구임대주택, 희망 주택을 선정할 시 LH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임대하게 해주는 일반 저소득층 전세 임대, 그 외에도 일반 저소득 매매임대, 행복주택 등 주택공급 정책이 존재한다. 또한 주거급여수급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한다.

〈표 II-2-13〉 주택공급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영구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li> <li>• 총자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li> </ul>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역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li> <li>-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li> <li>-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li> </ul>
일반저소득매 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거급여수급자</b> 해당 지역에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b>소득</b>)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b>자산</b>)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li> </ul>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부모가족</b>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b>고령자</b> 만 65세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b>소득</b>)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b>자산</b>)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 원</li> </ul>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자료: 복지로·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27-28, pp. 31-32, p. 35에서 재구성.

### 나)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급여수급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이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대상은 하단의 표와 같다.

〈표 II-2-14〉 주거환경 개선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기초지자체 추천), 사회 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경보수</th> <th>중보수</th> <th>대보수</th> </tr> </thead> <tbody> <tr> <td>수선비용 (주기)</td> <td>457만 원 (3년)</td> <td>849만 원 (5년)</td> <td>1,241만 원 (7년)</td> </tr> </tbody> </table>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 원 (3년)	849만 원 (5년)	1,241만 원 (7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 원 (3년)	849만 원 (5년)	1,241만 원 (7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실내환경 개선</li> <li>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무료진료서비스 제공</li> </ul>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관까지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3만 원(상당)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자료: 복지로·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35-37, pp. 39-40에서 재구성

#### 다) 생활비 경감

저소득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바우처, 공공요금 감면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공요금 감면으로는 tv수신료,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등이 포함된다.

〈표 II-2-15〉 생활비 경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여름 바우처	7,000원	1만 원	1만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 8,000원	12만 4,000원	15만 2,000원
		총 지원금액	9만 5,000원	13만 4,000원	16만 7,000원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공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
		전기세	(생계, 의료) 월 최대 1만 6천원, 하절기 2만원 (주거, 교육)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2천원 (차상위) 월 최대 8천원, 하절기 월 최대 1만원
		도시가스 요금	(생계, 의료)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2만4천원 그 외 6,600원 (주거, 교육, 차상위)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만2천원 그 외 3,300원
		지역난방 요금	(생계, 의료) 월 1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월 5천원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22, p. 38에서 재구성

### 6) 긴급지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 정책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  
원 등이 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최대 6회까지,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최대 2  
회, 주거비용 지원은 최대 12회 지원, 연료비의 경우 월 9만8천원, 최대 6회 지원  
할 수 있으며, 연체로 전기 단전 시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II-2-16〉 긴급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 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위기 사유 충족하는 가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 (4인 기준) 123만 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자료: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p. 24-25에서 재구성

### 7) 가구특성별 지원 정책

가구특성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표 II-2-17>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0: 17). 따라서 미혼모부 혹은 청소년한부모 특화 지원정책이 아닌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가 동일한 수혜 대상이 된다. 조손가구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42).

**<표 II-2-17>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구의 영유아 양육 지원 내용**

지원영역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
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법률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양육비이행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관련 맞춤형 종합 지원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등		
기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출산 및 양육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상담, 자조모임,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자료: 1)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26-28, p. 31-32, p. 35, p. 51, pp.282-286.  
 2) 여성가족부(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319-332.

세부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표 II-2-18>과 같다. 먼저 미혼모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이 있다. 이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상

담, 자조모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그 외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으로는 수당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주거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다. 또한 법률지원으로 양육비이행원스톱종합서비스와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가 있으며, 그 외 기타지원으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소액보험이 있다.

〈표 II-2-18〉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상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담, 자조모임 등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산 및 양육 지원</td> <td>- 병원비: 출산비 및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양육용품: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월 최대 70만원 이하 지원</td> </tr> <tr> <td>친자검사비</td> <td>실비지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 지원	- 병원비: 출산비 및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양육용품: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월 최대 70만원 이하 지원	친자검사비	실비지원				
		구분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 지원	- 병원비: 출산비 및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양육용품: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월 최대 70만원 이하 지원											
친자검사비	실비지원											
친자검사비	실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아동양육비</td> <td>•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td> </tr> <tr> <td>검정고시 학습비</td> <td>•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 원) 지원</td> </tr> <tr> <td>고교생 교육비</td> <td>•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td> </tr> <tr> <td>자립지원 촉진수당</td> <td>•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 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 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 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아동양육비</td> <td>•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td> </tr> <tr> <td>생활보조금</td> <td>•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정책명	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li> <li>•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li> <li>•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li> </ul>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 한부모 72%)이하인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양육비이행원스톱종합서비스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법적분쟁이 발생한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li> <li>•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li> <li>•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li> <li>•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li> <li>•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li> </ul>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자료: 1)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p. 26, p. 51, p. 282-285에서 재구성  
 2) 여성가족부(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319-332에서 재구성.

### 3. 선행연구 검토

#### 가. 조기투자의 효율성

취약계층의 영유아는 비취약계층의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생애 초기부터 건강,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정서적 기능에서 불평등을 경험한다. 이는 영유아를 둘러

싼 가족환경은 영유아의 인지 및 비인지 기술의 주요한 예측요인이지만 취약계층의 영유아는 지지적인 가족환경의 결핍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애 초기의 불리한 환경은 범죄, 10대 임신,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미취업이나 실직 등과 같이 이후의 많은 사회적 이슈들과 연관이 있다. 취약계층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중재 프로그램들은 영유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의 발달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Doyle et al., 200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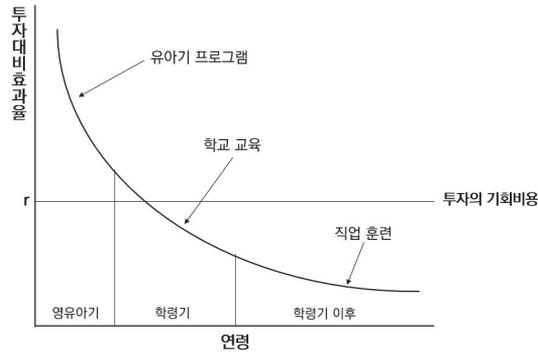
인적자본 투자정책의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투자는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높아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이다(Heckman, 2000: 50). 인적자본 투자정책에서는 주요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낮은 수준의 기술과 역량으로 본다(이상균, 2017). 인지기술은 사회경제적인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동기, 인내심과 같은 사회정서적 기술과 건강 또한 인지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어야 하는데, 영유아가 기술의 습득 및 형성에 있어 민감기(sensitive period)이므로 이 시기 동안의 조기중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eckman, 2008a: 312).

Heckman(2008b: 5)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Heckman 곡선[그림 1]은 각 연령대에 동일한 규모의 투자, 즉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비효과율을 보여준다. 기술 형성에 있어 민감기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 동안의 투자대비효과율이 가장 높고 이후 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시기로 갈수록 투자대비효과율이 낮아진다(Heckman, 2008a: 312).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투자는 정책의 취지가 사회적으로 공정하다는 점에서 형평성(equity)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만약 비취약계층이 이미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더 많은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비취약계층에 대한 투자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효과보다 크다면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II-3-2]를 보면, 취약계층 영유아가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투자대비 효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Wößmann, 2008: 2).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조기투자는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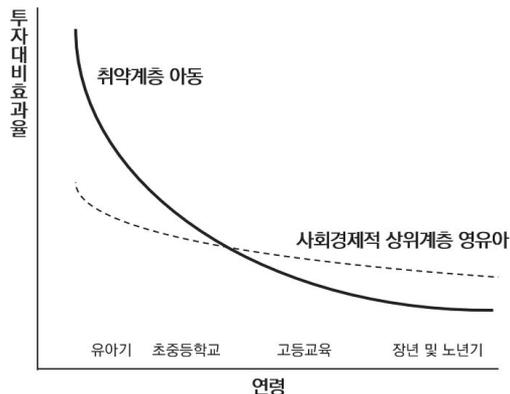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투자는 [그림 II-3-3]과 같이 역동적 상보성 (dynamic complementarity) 또는 시너지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면, 인내, 신뢰와 같은 사회정서기술의 향상은 인지기술의 원활한 습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결국 이후 시점에서 사회참여, 소득, 교육성취,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에서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오늘 이루어진 투자는 내일 필요한 기술의 기반이 되고, 취약계층 영유아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투자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Heckman & Corbin, 2016: 346)는 점에서 더 어린 시기의 조기투자는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II-3-1] 연령대별 투자대비효과율: Heckman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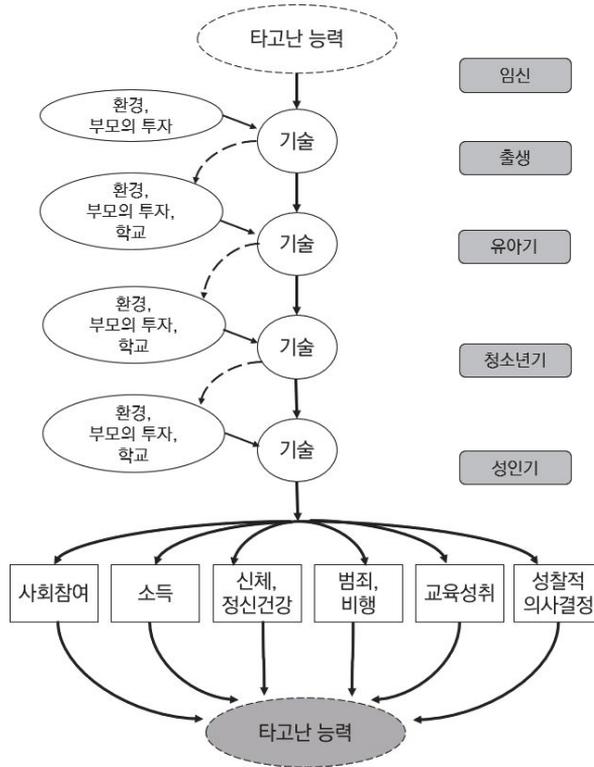
자료: Heckman, J. J. (2008b).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CESifo DICE Report*, 6(2), 3-8.

[그림 II-3-2]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영유아에 대한 투자대비효과율 비교



자료: Wöß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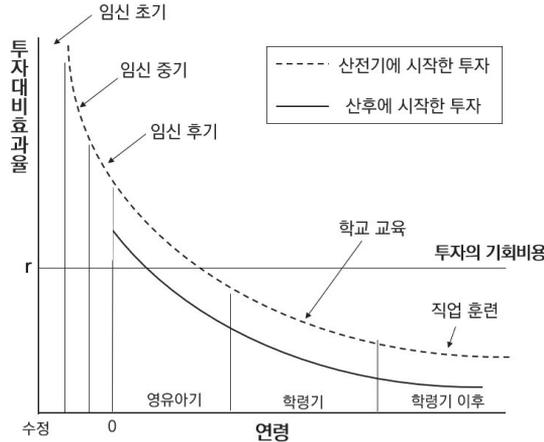
[그림 II-3-3]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투자의 역동적 상보성



자료: Heckman, J. J., & Corbin, C. O. (2016). Capabilities and skill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42-359.

한편, Doyle 등(2009: 4)은 만 3세의 어린 시기에서도 이미 인지 및 사회정서적 기능 및 건강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산전 투자 가설 (antenatal investment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모형에서 임신 이후 부터 출산까지의 산전 시기를 포함한 이 가설은 [그림 II-3-4]와 같이 투자대비 효과율을 나타내는 두 개의 하향 곡선(윗 곡선은 산전부터 시작한 조기 투자, 아래 곡선은 산후부터 시작한 조기 투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I-3-4]에 따르면 산전 투자 및 산후 투자 모두 조기투자가 이후의 투자보다 수익이 더 크나, 산전 투자의 수익은 산후 투자의 수익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높음을 보여준다(Doyle et al., 2009: 5). 즉, 산전부터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조기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4] 산전 투자 가설 곡선



자료: Doyle, O., Harmon, C. P., Heckman, J. J., & Tremblay, R. E. (2009). Investing in early human development: Timing and economic efficiency. *Economics & Human Biology*, 7(1), 1-6.

## 나. 빈곤의 강화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빈곤이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代)물림’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은 ‘부모의 빈곤과 불리함(disadvantage)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단일세대의 개념으로는 ‘한 개인이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이 성인기의 빈곤으로 이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이배, 2013: 90).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빈곤한 가구의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Jenkins와 Siedler(2007: 2)는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의 원인으로 부모의 시간과 물질적 자원을 포함하는 가정에서의 투자(home investments)에 주목하였다.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부모는 그들의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맛있는 음식과 책을 사줄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Heckman(2008a: 301)은 빈곤의 대물림이 단순히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인지적 및 비인지적 자극이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인 부모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통해 자원을 이전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빈곤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을 근거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지만, 빈곤한 부모로부터의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빈곤하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한 가구의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있어 민감기이므로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의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Blanden, Hansen, & Machin, 2010: 290). 김수정과 정익중(2017)은 아동빈곤의 장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수량화하여 우리 사회가 연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취합하여 산출하였다. 직접비용에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 성학대가 발생할 확률, 가정 외 보호를 받을 확률, 보호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특수 교육을 받을 확률 등 아동빈곤의 단기적인 비용이 포함되었고, 간접비용에는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 성인이 되어 이혼할 확률, 범죄자가 될 확률, 생산성 손실 확률, 미취업/실직을 경험할 확률 등 아동빈곤의 장기적인 비용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빈곤을 기준 55조 3천 억원(국내총생산[GDP]의 3.5%), 상대빈곤을 기준 99조 6천억원(GDP의 6.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의 총액은 상대 빈곤을 기준 5조 4천 억원이고 간접비용의 총액은 상대 빈곤을 기준 94조 2천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아동 빈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 빈곤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훨씬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빈곤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와 세대 간 전이를 고려할 때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 및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빈곤가정 특성별 양육실태

다음에서는 빈곤가정의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가정 특성별 양육 지원이 어떤 측면에서 연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빈곤가정의 특성을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미혼부가정, 조손가정으로 분류한 후 관련 선행연구가 연구대상 가정의 자녀양육, 경제상태, 주거환경, 의료/건강, 문화생활, 정부지원 경험 등에 대해 무엇을 파악했는지 고찰하였다.

### 1) 저소득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경제적 소외계층 유아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 분석을 보면, 경제적 소외계층 유아 가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김진호·김지수, 2018: 283). 양육유형과 태도, 양육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 등의 변인이 위험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효능감 등의 변인이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김진호·김지수, 2018: 283). 장명림 외(2009: 18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해미 외(2019)는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토대로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빈곤가정은 가정 내 교육환경 구비 수준과 여가 경험의 비율이 낮을 뿐더러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 정도가 적어 아동이 방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9: 286). 육아지원 요구에서는 빈곤가정의 경우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돌봄시간 지원 보다 높았으며, 모든 연령에 걸쳐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유해미 외, 2019: 287).

저소득가정 양육실태 중 의료/건강과 관련해서 저소득가정 영유아는 신체 성장 및 건강과 식생활 관리에서 불평등을 경험했으며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4: 195). 영양플러스 사업은 수혜횟수와 비용이 증가되길 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되었고, 자녀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가정을 위한 비용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4: 197).

〈표 II-3-1〉 저소득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자녀 양육	경제 상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문화 생활	정책 지원
유해미 외 (2019) <sup>1)</sup>	설문조사 대상자 1,606명 중 빈곤가정 응답자 830명	설문조사	●	●	●		●	●
	빈곤가정 대상자 11명	심층면접						
이정림 외 (2014) <sup>2)</sup>	저소득가정 영유아 부모 544명, 임신부 및 수유부 134명	설문조사		●		●		●
	저소득 영유아 부모 18명, 임신부 및 수유부 16명	심층면접						
장명림 외 (2009) <sup>3)</sup>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응답자 669명 및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가정 응답자 167명	설문조사	●	●		●	●	●
	북한이탈주민가정 부모 10명	심층면접						

자료: 1)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1):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p. 20-2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pp. 14-2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장명림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pp. 8-13, p. 1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2) 한부모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한부모가정 양육실태 관련 연구는 한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수행되었다.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을수록 모자기타가구(모자와 기타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김은지 외, 2018: 33).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김은지 외, 2018: 53), 미취학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지 외, 2018: 92). 대다수의 한부모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장시간 근로로 일·가족 양립이 쉽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8: 427-428).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지원은 생계비, 양육비 등의 현금지원이었다(김은지 외, 2018: 412).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모자가구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정·신희영·박나리, 2018: 31-32). 한부모가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높았는데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른 한부모가정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혜정 외, 2018: 103).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자녀양육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도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였다(김혜정 외, 2018: 103). 한부모가족은 주거환경도 전반적으로 열악했으며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혜정 외, 2018: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은 경제적 빈곤과 연결된 문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혜정 외, 2018: 107).

배운진, 조숙인과 장문영(2017)의 연구에서는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관련 지원 요구를 살펴보았다. 한부모들은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배운진 외, 2017: 163).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부담이 증가했으며, 자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운진 외, 2017: 163). 한부모들은 생계유지와 자녀 돌봄으로 시간적, 심리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특성을 보였다(배운진 외, 2017: 164).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과정의 불평등과 국적 미취득 등의 결과가 빈곤으로 이어졌으며,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권미경·이재희·최인화, 2017: 123). 특히 국적 취득의 어려움으로 정책지원에서 배제되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권미경 외, 2017: 132).

청소년 한부모는 출산과 양육을 혼자 결정한 경우가 많았고(김은지 외, 2011: 121;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김현주, 2012: 116, 123), 본인이 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어 학업이나 근로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김은지 외, 2011: 124; 백혜정 외, 2012: 157). 청소년 한부모는 주변의 편견과 더불어

어 학업이나 자립기반 마련에 대한 부담 및 자녀양육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부과되는 복합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지 외, 2011: 35; 김지연 외, 2013: 153).

청소년 한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고민은 자녀양육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김은지 외, 2011: 121; 백혜정 외, 2012: 126). 청소년 한부모는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직업 훈련 등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립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백혜정 외, 2012: 143). 청소년 한부모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온전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김은지 외, 2011: 120).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지 외, 2011: 127).

〈표 II-3-2〉 한부모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자녀 양육	경제 상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문화 생활	정책 지원
권미경 외 (2017) <sup>1)</sup>	다문화 배경을 지닌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총 15명	심층면접	●	●		●		●
김영정 외 (2017) <sup>2)</sup>	서울에 거주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주 526명	설문조사	●	●				●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한부모(한부모 유지 1년 이상) 18명	심층면접						
김은지 외 (2011) <sup>3)</sup>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391명	설문조사	●	●		●		●
김은지 외 (2018) <sup>4)</sup>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설문조사	●	●	●	●		●
김지연 외 (2013) <sup>5)</sup>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 378명	설문조사	●	●	●			●
	청소년한부모 20명	심층면접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자녀 양육	경제 상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문화 생활	정책 지원
김혜정 외 (2018) <sup>6)</sup>	부산지역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명	설문조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5명,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정책적 요구가 높은 한부모가족 5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8명	FGI	●	●	●	●		●
	부자가족/조손가족/청소년가족 6명	심층면접						
배운진 외 (2017) <sup>7)</sup>	한부모가족 부모 400명	설문조사						
	한부모가족 부모 17명	심층면접	●	●			●	●
	한부모가족 관련 실무자 24명	FGI						
백혜정 외 (2012) <sup>8)</sup>	청소년한부모 457명	설문조사	●					●
	청소년한부모 35명	심층면접						
송이은 (2018) <sup>9)</sup>	서울 거주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500명	설문조사	●	●		●		●
	여성 한부모 11명; 자치구보건소 건강증진, 건강센터 담당공무원 7명	FGI						
한애경 (2017) <sup>10)</sup>	충청북도 거주 한부모가족 444명	설문조사	●	●	●	●	●	●
	충청북도 거주 한부모가족 9명	심층면접						

자료: 1)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pp. 12-1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김영정·김성희(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pp. 65-7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김은지 외(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등 연구. pp. 20-2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김은지 외(2018).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p. 6-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김지연 외(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pp. 69-7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6) 김혜정·신희영·박나리(2018). 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p. 29-3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7) 배운진·조숙인·장문영(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Ⅲ):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pp. 12-1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8)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김현주(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p. 95, pp. 99-102, pp. 159-16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9) 송이은(2018).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지원체계 마련 연구: 서울시 한부모 가족 여성을 중심으로. pp. 37-4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10) 한애경(2017). 충북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pp. 5-8, p. 9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3) 미혼모·미혼부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미혼모·미혼부가정의 양육 관련 연구는 주로 미혼모가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미정 외(2018)의 연구에서는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이미정 외, 2018: 5). 미혼모는 임신 중반기 이후 학업 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후 출산과 자녀양육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18: 178). 특히 부모님이 부재하거나 연락이 단절된 미혼모는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미정 외, 2018: 178).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미정 외, 2018: 178).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이미정 외, 2018: 178).

김지현, 권미경과 최윤경(2018)은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 미혼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김지현 외, 2018: 95).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0%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으며 소득이 생길 경우 수급이 줄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외, 2018: 190). 미혼모들은 자녀를 직접 돌보기 원했으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김지현 외, 2018: 187-188).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미혼모 집단이 정서적 부담과 돌봄의 공백 및 원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외, 2018: 188). 미혼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제 양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위주의 교육을 요구하였다(김지현 외, 2018: 189).

김지현 외(2018)의 연구에서는 미혼부 1명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김지현 외, 2018: 193). 이 면접에서 미혼부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아이와의 외출 시 부끄러움, 미혼부들 간의 정보공유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김지현 외, 2018: 220-221).

김혜영 외(2010)는 양육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김혜영 외, 2010: 13), 조사 대상자의 86.5%가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15). 조사대상 미혼모들은 대체로 영유아기 자녀를 양

육하고 있었으며, 주 돌봄자가 미혼모 본인인 경우가 71.0%로 가장 많았다(김혜영 외, 2010: 38).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했는데 기본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초기 양육기에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주된 어려움이었다면 그 이후 시기에는 돌봄 시간의 부족이나 자녀의 훈육지도 등과 같은 어려움이 부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48-49).

〈표 II-3-3〉 미혼모·미혼부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자녀 양육	경제 상태	주거 환경	의료/건강	문화 생활	정책 지원
김지현 외 (2018) <sup>1)</sup>	재가 양육 미혼모 300명	설문조사						
	미혼모·부 25명 (미혼부 1명 포함)	심층면접	●	●		●	●	●
김혜영 외 (2010) <sup>2)</sup>	양육미혼모 727명	설문조사	●	●				●
이미정 외 (2018) <sup>3)</sup>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혼모 741명	설문조사	●			●		●
	미혼모 28명	심층면접						

자료: 1) 김지현·권미경·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pp. 23-2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김혜영 외(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pp. 11-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이미정 외(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pp. 6-1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4) 조손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조손가족 실태조사는 2010년 연구 이후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미취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관한 연구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이연화와 박차상(2018)의 연구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손자녀를 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이연화·박차상, 2018: 33).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강문구, 2009: 37; 배옥현·정일선, 2011: 60; 여성가족부, 2010: 12; 이연화·박차상, 2018: 34). 특히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저소득의 불안정한 직업 탓에 노년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희연·기영화·김남숙·임지영, 2011: 58; 배옥

현·정일선, 2011: 47; 여성가족부, 2010: 28). 조손가정의 대부분이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배옥현·정일선, 2011: 64), 미취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조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있었다(여성가족부, 2010: 13). 영유아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육아노동과 가사노동이 수반되어 고령의 조부모에게 부담감이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소순창, 2011: 132).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사랑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건강 등으로 손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강문구, 2009: 44; 김희연 외, 2011: 69).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노령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질 뿐더러 사회적 자원의 결핍과 성인자녀의 지원 부족으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소순창, 2011: 128; 김희연 외, 2011: 57). 저소득층 조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반을 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손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경호·소순창, 2011: 128-129; 김희연 외, 2011: 58).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경제적 지원 중에서도 금전적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강문구, 2009: 78; 김희연 외, 2011: 58; 배옥현·정일선, 2011: 112).

〈표 II-3-4〉 조손가정 양육실태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손자녀 양육	경제 상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문화 생활	정책 지원
강문구 (2009) <sup>1)</sup>	저소득 조손가정 가구 주 400명	설문조사	●	●		●		●
김경호 외 (2011) <sup>2)</sup>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모 7명	심층면접	●	●		●		●
김희연 외 (2011) <sup>3)</sup>	경기도 거주 조손가정 202가구	설문조사	●	●		●		●
배옥현 외 (2011) <sup>4)</sup>	경상북도 거주 조손가정 조부모 3,074가구	설문조사	●	●				●
	경상북도 거주 조손가정 18가구	심층면접	●	●				●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손자녀 양육	경제 상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문화 생활	정책 지원
여성가족부 (2010) <sup>5)</sup>	조손가정 12,750가구	설문조사	●	●		●		
이연화·박차상 (2018) <sup>6)</sup>	제주지역 거주 조손가정 조부모와 만18세 미만 손자녀 207명	설문조사	●	●	●	●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조부모 및 손자녀 15명	심층면접						

자료: 1) 강문규(2009). 강원도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pp. 29-3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김경호·소순창(2011).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양육지원요구와 영국 사례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선방안. p. 126, pp. 128-13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김희연·기영화·김남숙·임지영(2011). I·II세대 가정 지원 방안 연구. pp. 33-5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배옥현·정일선(2011). 경상북도 조손가정 실태와 지원방안. pp. 8-1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pp. 4-5, p. 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6) 이연화·박차상(2018). 제주지역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pp. 5-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III

## 영유아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 01 양육실태 및 요구
- 02 경제상태
- 03 주거환경 및 건강
- 04 문화생활
- 05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와 요구
- 06 소결



### Ⅲ. 영유아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자녀를 둔 빈곤가정의 양육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의 4가지 유형별 가정유형 중에서 조손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사례 수가 24개로 다른 가정유형과 비교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조손 빈곤가정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빈곤가정 특성의 비교분석 등을 포함한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조손 빈곤가정의 분석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빈곤가정의 특성을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양육환경을 자녀양육, 경제상태, 주거환경 및 건강, 문화생활,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요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4가정 유형은 모두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정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용어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으로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1. 양육실태 및 요구

다음 1절의 가. 응답자 특성에서는 4가지 유형별 가정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특성을 소개한 후, 조손가정의 특성도 연이어 소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관한 분석 결과와 조손가정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관한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가.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의 주양육자는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에 비해 더 나은 상황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소한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자신의 상황을 공개할 정도의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빈곤가정의 주양육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주양육자는 모두 웹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지류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손가정을 관리하는 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일반 저소득 가정의 주양육자는 전문조사기관의 패널을 통해 대부분 참여하였고,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각 소속 협회(한부모 연합회/한국미혼모가족 협회)를 통하여 주로 참여하였다.

### 1)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 빈곤,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주양육자인 응답자 350명 중 영아 자녀를 둔 가정이 67.4%,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32.6%였다. 가정 형태로 구분할 경우, 일반 빈곤가정이 42.9%, 한부모 가정이 27.4%, 미혼모 가정이 29.7%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은 30대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21.7%, 20대는 17.4%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6%였으며, 대졸 이상이 63.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4.6%, 비수도권이 45.4%로 비슷한 비율로 표집되었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6.9%,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이 경우가 29.7%,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26.6%, 300만원 이상이 16.9%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29.4%, 3인 가구는 34.6%, 4인 이상 가구는 36.0%였다.

〈표 III-1-1〉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응답자		계	(수)
전체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67.4	(236)
	유아	32.6	(11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2.9	(150)
	한부모 가정	27.4	( 96)
	미혼모 가정	29.7	(104)

응답자		계	(수)
양육자 연령	20대	17.4	( 61)
	30대	60.9	(213)
	40대 이상	21.7	( 76)
학력	고졸 이하	36.6	(128)
	대졸 이상	63.4	(222)
지역 구분	수도권	54.6	(191)
	비수도권	45.4	(159)
수급자 여부	해당	47.4	(166)
	비해당	52.6	(184)
소득	100만원 미만	26.9	( 94)
	100~200만원 미만	29.7	(104)
	200~300만원 미만	26.6	( 93)
	300만원 이상	16.9	( 59)
가구원 수	2인	29.4	(103)
	3인	34.6	(121)
	4인 이상	36.0	(126)

주: 한부모 가정에는 한부가 2명 포함되었음.

## 2) 조손 빈곤가정 응답자 특성

조손가정의 설문 응답자 24명 중 영아 손자녀를 둔 가정과 유아 손자녀를 둔 가정은 각 50%였다. 조부모 연령은 24명 모두 40대 이상이었으며, 학력은 모두 고졸 이하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1명을 제외하고 23명 모두 비수도권에 거주하였다. 조부모 응답자 중 가구원 수가 2인은 5명(20.8%), 3인 가구는 7명(29.2%) 4인 이상 가구는 12명(50.0%) 였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거나 손자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정 위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조부모가 수급자인 경우는 19명(79.2%), 비수급자는 5명(20.8%)이었고, 가정위탁 형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17명(70.8%), 가정위탁이 아닌 경우는 7명(29.2%)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조손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응답자		계 (수)
전체		100.0 (24)
자녀 연령 구분	영아	50.0 (12)
	유아	50.0 (12)
양육자 연령	40대 이상	100.0 (24)
학력	고졸 이하	100.0 (24)
지역 구분	수도권	4.2 (1)
	비수도권	95.8 (23)
수급자 여부	해당	79.2 (19)
	비해당	20.8 (5)
가정위탁 여부	해당	70.8 (17)
	비해당	29.2 (7)
가구원 수	2인	20.8 (5)
	3인	29.2 (7)
	4인 이상	50.0 (12)

## 나. (손)자녀양육

다음에서는 빈곤가정의 (손)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양육 상황 및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 등을 파악하였다. 자녀양육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 돌봄 시간, 돌봄 기관/사람, 영유아 자녀 방치 여부 등과 기관 이용 및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는 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의 어려움 등을 통해 탐색하였으며,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정도와 부모교육 참여 여부도 탐색하였다.

### 1) 자녀 및 손자녀 돌봄

#### 가) 주중 및 주말 (손)자녀 돌봄 시간

#####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주중 자녀 돌봄 시간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주중에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평균 270분이었으며, 2시간에서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돌봄이 더 필요한 영아의 양육자가 유아 양육자보다 자녀와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모 가정의 주중 자녀 돌봄 시간은 320.0분으로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보다는 51.5분, 한부모 가정보다는 101.6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도 양육자가 20대인 가정이 다른 연령보다, 비수도권 가정이 수도권 가정보다 주중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자녀 돌봄 시간: 주중

단위: %(명), 분

구분	2시간 미만	2~5시간 미만	5시간 초과	계(수)	평균
전체	23.1	43.1	33.7	100.0 (350)	270.0
자녀 연령					
영아	20.3	39.8	39.8	100.0 (236)	306.1
유아	28.9	50.0	21.1	100.0 (114)	195.4
$\chi^2(df)/t$		12.343(2)**			4.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6.0	39.3	34.7	100.0 (150)	268.5
한부모 가정	25.0	53.1	21.9	100.0 ( 96)	218.4
미혼모 가정	17.3	39.4	43.3	100.0 (104)	320.0
$\chi^2(df)/F$		12.106(4)*			4.0*
양육자 연령					
20대	14.8	29.5	55.7	100.0 ( 61)	377.1
30대	22.1	46.0	31.9	100.0 (213)	263.3
40대 이상	32.9	46.1	21.1	100.0 ( 76)	202.9
$\chi^2(df)/F$		20.860(4)***			8.3***
지역 구분					
수도권	22.5	48.7	28.8	100.0 (191)	242.8
비수도권	23.9	36.5	39.6	100.0 (159)	302.7
$\chi^2(df)/t$		6.089(2)*			-2.1*

\*  $p < .05$ , \*\*  $p < .01$ , \*\*\*  $p < .001$

주중 낮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기관이나 사람으로 ‘어머니’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순이었다. ‘아버지’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녀 연령, 가정유형, 수급자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고, 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유형과 관련하여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주중 낮에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7%,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 여부의 경우,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비수급자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았다.

〈표 III-1-4〉 주중 낮에 자녀 돌봄 기관/사람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친인척	기타	계(수)
전체	1.4	44.9	38.9	10.0	2.3	1.1	1.4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1.3	55.1	37.3	1.3	2.1	0.8	2.1	100.0 (236)
유아	1.8	23.7	42.1	28.1	2.6	1.8	0.0	100.0 (114)
$\chi^2(df)$	75.744(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0.7	63.3	30.7	5.3	0.0	0.0	0.0	100.0 (150)
한부모 가정	4.2	27.1	41.7	16.7	5.2	4.2	1.0	100.0 ( 96)
미혼모 가정	0.0	34.6	48.1	10.6	2.9	0.0	3.8	100.0 (104)
$\chi^2(df)$	64.630(12)***							
수급자 여부								
해당	2.4	34.9	47.0	7.8	2.4	2.4	3.0	100.0 (166)
비해당	0.5	53.8	31.5	12.0	2.2	0.0	0.0	100.0 (184)
$\chi^2(df)$	25.905(6)***							

\*  $p < .05$ , \*\*  $p < .01$ , \*\*\*  $p < .001$

주말에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평균 429.9분으로, 주중에 놀아주는 시간보다 월등히 길었으며, 절반 이상인 65.7%가 5시간 초과한 시간을 자녀와 같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가정, 미혼모 가정, 양육자가 20대인 가정이 주말에 더 긴 시간을 자녀와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5〉 자녀 돌봄 시간: 주말

단위: %(명), 분

구분	2시간 미만	2~5시간 미만	5시간 초과	계(수)	평균
전체	6.6	27.7	65.7	100.0 (350)	429.9
자녀 연령					
영아	5.5	27.5	66.9	100.0 (236)	455.8
유아	8.8	28.1	63.2	100.0 (114)	376.2
$\chi^2(df)/t$		1.422(2)			2.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3	26.0	66.7	100.0 (150)	439.8
한부모 가정	8.3	30.2	61.5	100.0 ( 96)	364.5
미혼모 가정	3.8	27.9	68.3	100.0 (104)	476.0
$\chi^2(df)/F$		2.526(4)			4.1*
양육자 연령					
20대	4.9	24.6	70.5	100.0 ( 61)	499.7
30대	6.1	25.4	68.5	100.0 (213)	427.8
40대 이상	9.2	36.8	53.9	100.0 ( 76)	379.8
$\chi^2(df)/F$		6.132(4)			3.1*

\*  $p < .05$ , \*\*  $p < .01$ , \*\*\*  $p < .001$

(2) 조손 빈곤가정의 주중과 주말의 손자녀 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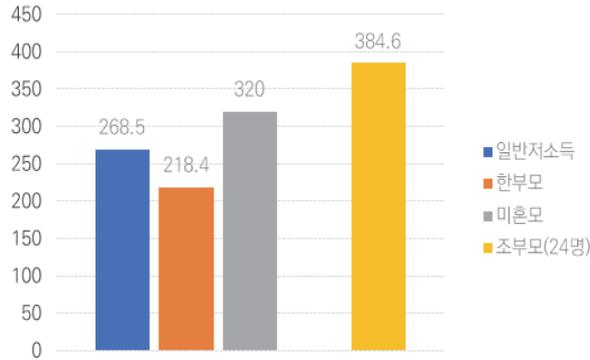
조손가정의 손자녀 돌봄 시간 평균은 주중 384.6분, 주말은 677.5분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6.41시간과 11.2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 외 빈곤가정의 주중 270분과 주말 429.9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긴 시간이다.

〈표 III-1-6〉 손자녀 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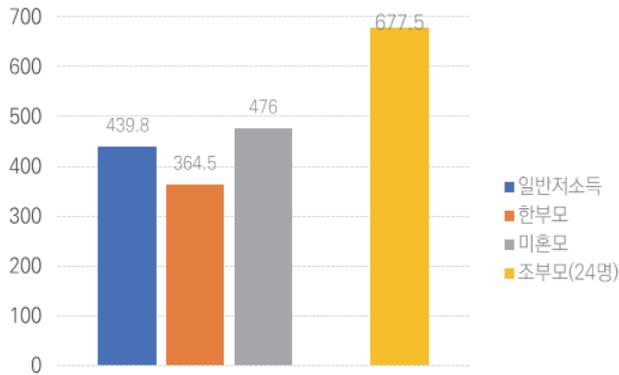
단위: %(명), 분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 5시간 미만	5시간 초과	계(수)	평균
주중	16.7	41.7	41.7	100.0 (24)	384.6
주말	8.3	25.0	66.7	100.0 (24)	677.5

[그림 III-1-1] 조손가정의 주중 손자녀 돌봄 시간(조손 외 가정 주중 자녀 돌봄 시간과 비교)



[그림 III-1-2] 조손가정의 주말 손자녀 돌봄 시간(조손 외 가정 주말 자녀 돌봄 시간과 비교)



### 나) 주양육자 및 이용기관 이외 (손)자녀 양육지원

####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자녀 양육지원

주양육자 및 이용기관을 제외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외조부모’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 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은 자녀 연령, 가정유형,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영아 자녀를 둔 가정보다, 수도권 가정이 비수도권 가정보다 조부모나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더 많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일반 빈곤가정 의 경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던 반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에서는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1-7〉 부모/기관/아이돌봄서비스 이외 자녀 양육 도움 제공자 유무 및 도움 주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이용여부	(수)	친조 부모	외조 부모	자녀	이웃	친인척	복지관 담당자	기타	(수)
전체	62.9	(350)	36.4	61.5	4.2	3.5	25.2	0.7	2.1	(143)
자녀 연령										
영아	49.6	(236)	39.0	63.0	3.0	3.0	28.0	1.0	2.0	(100)
유아	90.4	(114)	30.2	58.1	7.0	4.7	18.6	0.0	2.3	( 43)
$\chi^2(df)$	54.739(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51.3	(150)	54.7	58.7	4.0	4.0	24.0	0.0	1.3	( 75)
한부모 가정	77.1	( 96)	19.4	66.7	5.6	2.8	25.0	0.0	0.0	( 36)
미혼모 가정	66.3	(104)	12.5	62.5	3.1	3.1	28.1	3.1	6.3	( 32)
$\chi^2(df)$	17.396(2)***									
지역 구분										
수도권	71.2	(191)	36.8	59.2	5.3	2.6	22.4	0.0	1.3	( 76)
비수도권	52.8	(159)	35.8	64.2	3.0	4.5	28.4	1.5	3.0	( 67)
$\chi^2(df)$	12.547(1)***									

\*  $p < .05$ , \*\*  $p < .01$ , \*\*\*  $p < .001$

(2) 조손 빈곤가정의 외부 양육지원

배우자 이외의 외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원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손 외 빈곤가정의 지원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관/아이돌봄서비스 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45.8%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조부모의 자녀가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인척, 담당 공무원이 각 27.3%로 같았고, 이웃과 사회복지사가 같이 1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조손가정의 배우자 이외 외부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자녀돌봄지원	정보 및 기술조언	(수)
조손가정	2.6	3.1	2.4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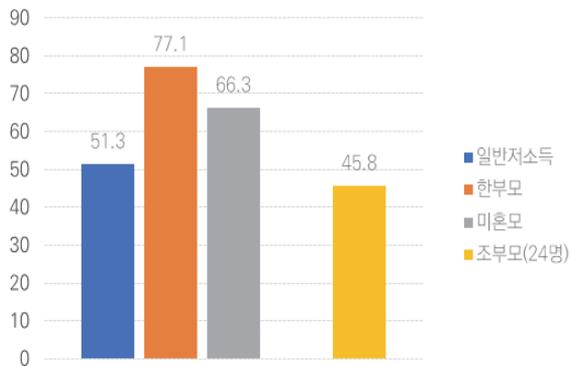
주: 매우 도움을 받는다 = 5점, 도움을 받는 편이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 2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III-1-9〉 조손가정의 기관/아이돌봄서비스 외 자녀 양육 도움 제공자 유무 및 도움 주는 사람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있음	(수)	도움 주는 사람					(수)
			자녀	친인척	담당 공무원	이웃	사회복지사	
조손가정	45.8	(24)	36.4	27.3	27.3	18.2	18.2	(11)

[그림 III-1-3] 조손가정의 외부 손자녀 양육지원(조손 외 가정 자녀 양육지원과 비교)



#### 다) 영유아 자녀 방치 여부

#####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영유아 자녀 방치 여부

지난 1주일 동안 자녀가 하루에 30분 이상 보호자 없이 집에서 혼자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런 경우가 '없다'는 응답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영아 가정이 유아 가정보다, 미혼모 가정이 다른 가정유형보다, 비수급자 가정이 수급 가정보다 자녀를 집에 보호자 없이 두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III-1-10〉 지난 1주일 동안 영유아가 집에 보호자 없이 지낸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14.6	85.4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10.6	89.4	100.0 (236)
유아	22.8	77.2	100.0 (114)
$\chi^2(df)$	9.212(1)**		

구분	있다	없다	계(수)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0.7	89.3	100.0 (150)
한부모 가정	30.2	69.8	100.0 ( 96)
미혼모 가정	5.8	94.2	100.0 (104)
$\chi^2(df)$	27.167(2)***		
수급자 여부			
해당	19.9	80.1	100.0 (166)
비해당	9.8	90.2	100.0 (184)
$\chi^2(df)$	7.147(1)**		

\*  $p < .05$ , \*\*  $p < .01$ , \*\*\*  $p < .001$

(2) 조손 빈곤가정의 영유아 손자녀 방치 여부

아동이 지난 1주일 간 혼자 있었던 시간을 물어본 결과 16.7%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손외가구의 14.6%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본인, 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외 자녀 양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손외가구의 62.9%를 훨씬 낮은 비율로서, 조손외가구의 돌봄지원인력이 다른 유형의 빈곤가구 보다 더 부족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11〉 조손가정의 지난 1주일 동안 영유아가 집에 보호자 없이 지낸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조손가정	16.7	83.3	100.0 (24)

2) 기관 이용

가) 기관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영유아의 기관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62.9%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49.6%가 기관을 이용했으며, 50.4%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내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는 90.4%가 기관을 이용했으며, 응답자의 9.6%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아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관 보내는 것이 안심되지 않아서’와 ‘기타(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동일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정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77.1%가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모 가정은 66.3%, 일반 빈곤가정은 51.3%가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과 일반 빈곤가정 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내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4.3%, 39.7%로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가정이 비수도권 가정보다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영아 및 유아의 기관이용률은 전체는 70.4%, 영아 39.3%, 유아 90.7%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전체 이용률은 62.9%이지만, 영아는 49.6%, 유아는 90.4%로 나타나 유아는 유사한 수준, 영아는 더 높은 수준의 기관 이용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이용률이 보육실태조사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은 본 조사에 포함된 영아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III-1-12〉 기관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이용여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62.9	(350)	10.8	5.4	3.1	2.3	34.6	19.2	1.5	23.1	100.0 (130)
자녀 연령											
영아	49.6	(236)	10.9	4.2	3.4	1.7	37.0	18.5	1.7	22.7	100.0 (119)
유아	90.4	(114)	9.1	18.2	0.0	9.1	9.1	27.3	0.0	27.3	100.0 ( 11)
$\chi^2(df)$	54.739(1)***						9.394(7)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51.3	(150)	11.0	5.5	0.0	2.7	39.7	20.5	0.0	20.5	100.0 ( 73)
한부모 가정	77.1	( 96)	22.7	9.1	4.5	4.5	18.2	18.2	4.5	18.2	100.0 ( 22)
미혼모 가정	66.3	(104)	2.9	2.9	8.6	0.0	34.3	17.1	2.9	31.4	100.0 ( 35)
$\chi^2(df)$	17.396(2)***						19.841(14)				
지역 구분											
수도권	71.2	(191)	18.2	5.5	0.0	1.8	27.3	23.6	0.0	23.6	100.0 ( 55)
비수도권	52.8	(159)	5.3	5.3	5.3	2.7	40.0	16.0	2.7	22.7	100.0 ( 75)
$\chi^2(df)$	12.547(1)***						11.824(7)				

구분	이용여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2017 기관 이용률											
전체	70.4										
영아	39.3										
유아	90.7										

주: 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②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③ 조건부 수급 때문에, ④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⑤ 내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⑥ 기관에 보내는 것이 안심되지 않아서, ⑦ 빈곤 가정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어서, ⑧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0).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  $p < .05$ , \*\*  $p < .01$ , \*\*\*  $p < .001$

### (2) 조손 빈곤가정 영유아의 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중에는 91.7%가 이용하고 있었으나,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관 이용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가장 낮게 보고되고 있었으며, 평균 이용 시간도 낮게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다른 3가지 유형의 가정의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과 비교할 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많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3〉 손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이용여부	이용시간			계(수)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전체	91.7	59.1	40.9	434.4	100.0 (24)

#### 나) 영유아 자녀 최초 기관 이용 시기

자녀가 최초로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만 12개월~36개월 전’이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만 48개월~60개월 전’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자녀를 기관에 보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일반 빈곤가정과 미혼모 가정에서는 ‘만 12개월~36개월 전’에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각각 61.1%와 45.9%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에서는 ‘만 12개월 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비교 시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만 12개월 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돌봄지원 인력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14〉 자녀의 최초 기관 이용 시기

단위: %(명), 점

구분	만 12개월 전	만 12개월~ 36개월 전	만 36개월~ 48개월 전	만 48개월~ 60개월 전	계(수)
전체	33.3	48.0	16.4	2.3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37.4	58.2	4.4	0.0	100.0 ( 91)
유아	28.8	36.3	30.0	5.0	100.0 ( 80)
$\chi^2(df)$		26.836(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0.4	61.1	14.8	3.7	100.0 ( 54)
한부모 가정	46.4	37.5	12.5	3.6	100.0 ( 56)
미혼모 가정	32.8	45.9	21.3	0.0	100.0 ( 61)
$\chi^2(df)$		12.610(6)*			
2018전국보육실태조사	11.4	71.0	13.4	3.7	99.4 (2,871)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 188.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주중 기관 이용 시간

자녀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474.4분이었으며, 이는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평균 432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시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가 52.0%,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48.0%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64.3%, 50.8%로 나타났으며,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72.2%를 차지하였다.

〈표 III-1-15〉 주중 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2.0	48.0	100.0 (171)	474.4
자녀 연령				
영아	54.9	45.1	100.0 ( 91)	466.7
유아	48.8	51.3	100.0 ( 80)	483.1
$\chi^2(df)/t$	0.655(1)			-1.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2.2	27.8	100.0 ( 54)	437.2
한부모 가정	35.7	64.3	100.0 ( 56)	510.1
미혼모 가정	49.2	50.8	100.0 ( 61)	474.4
$\chi^2(df)/F$	14.993(2)***			7.9***
2018전국보육실태조사				432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 214.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주말 기관 이용 여부

주말 또는 휴일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7.7%로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모든 집단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 주말 및 휴일에는 기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6〉 주말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수)
전체	2.3	97.7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4.4	95.6	100.0 ( 91)
유아	0.0	100.0	100.0 ( 80)
$\chi^2(df)$	3.601(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9	98.1	100.0 ( 54)
한부모 가정	3.6	96.4	100.0 ( 56)
미혼모 가정	1.6	98.4	100.0 ( 61)
$\chi^2(df)$	0.559(2)		

### 마)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기관 이용 시간은 응답자의 65.5%가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녀 연령이나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관 이용 시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1,235명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수행했던 연구(이정림, 구자연, 김한솔, 2019)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는 비율은 3.5%, 지금보다 조금 늘리고 싶다는 비율 13.4%로 전체 비율은 16.9%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빈곤가정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용 시간이 필요시간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본 연구에서 약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정 주양육자, 특히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제적 활동 시간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III-1-17〉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필요시간보다 부족	필요한 만큼 이용	필요시간보다 길게 이용	계(수)
전체	31.6	65.5	2.9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37.4	60.4	2.2	100.0 (236)
유아	25.0	71.3	3.8	100.0 (114)
$\chi^2(df)$		3.171(2)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7.8	72.2	0.0	100.0 (150)
한부모 가정	28.6	69.6	1.8	100.0 ( 96)
미혼모 가정	37.7	55.7	6.6	100.0 (104)
$\chi^2(df)$		7.120(4)		

#### (2) 조손 빈곤가정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81.8%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3가정 유형 가족에서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55.7%~72.7%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 시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간 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3.6%가 있었다.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용시간이 필요시간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1-18〉 손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필요시간보다 부족	필요한 만큼 이용	필요시간보다 길게 이용	계(수)
조손가정	13.6	81.8	4.5	100.0 (24)

바) 시간 연장 보육/휴일 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어린이집 정규 운영시간 외 시간 연장 보육이나 휴일 보육을 이용한 경험과 관련하여 20.6%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간 연장 보육이나 휴일 보육 이용 경험은 지역 구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권에서의 이용 경험 비율이 14.6%였던 반면 비수도권에서의 이용 경험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표 III-1-19〉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휴일 보육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수)
전체	20.6	79.4	100.0 (136)
자녀 연령			
영아	22.7	77.3	100.0 ( 88)
유아	16.7	83.3	100.0 ( 48)
$\chi^2(df)$	0.698(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9.6	80.4	100.0 ( 46)
한부모 가정	25.0	75.0	100.0 ( 40)
미혼모 가정	18.0	82.0	100.0 ( 50)
$\chi^2(df)$	0.711(2)		
지역 구분			
수도권	14.6	85.4	100.0 ( 89)
비수도권	31.9	68.1	100.0 ( 47)
$\chi^2(df)$	5.636(1)*		

\*  $p < .05$ , \*\*  $p < .01$ , \*\*\*  $p < .001$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 보육 및 휴일 보육을 이용했던 응답자 28명 중에서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해본 비율은 46.4%였고, 휴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은 21.5%였다. 야간 12시간 보육서비스와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도 10.7%씩을 차지하였다. 시간 연장 보육이나 휴일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0~3.7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휴일 보육 이용 경험, 빈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경험 있음 (%)	수	빈도				계(수)	만족도
			매일	주1회	월2회	월1회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46.4	(28)	23.1	15.4	23.1	38.5	100.0 (13)	3.7
야간 12시간 보육서비스	10.7	(28)	-	66.7	33.3	-	100.0 ( 3)	3.0
24시간 보육서비스	10.7	(28)	-	100.0	-	-	100.0 ( 3)	3.3
휴일 보육서비스	21.5	(28)	-	50.0	16.7	33.3	100.0 ( 6)	3.5

주: 만족도는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3) 아이돌봄서비스

#### 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88.0%가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이 7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에 따라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각각 17.7%, 20.2%였던 반면,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2.7%만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 가정은 0%였던 반면, 비수도권 가정에서는 13.6%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빈곤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수급자 가정의 경우 20.5%가 서비스를 이용했던 반면, 비수급자 가정에서는 4.3%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자 가정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여 본인 부담금을 낮춘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표 III-1-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이용여부		계(수)	영아 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잘 모름	계(수)
	이용	미이용						
전체	12.0	88.0	100.0 (350)	16.7	73.8	2.4	7.1	100.0 (42)
자녀 연령								
영아	10.6	89.4	100.0 (236)	24.0	64.0	0.0	12.0	100.0 (25)
유아	14.9	85.1	100.0 (114)	5.9	88.2	5.9	0.0	100.0 (17)
$\chi^2(df)$	1.358(1)			6.309(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7	97.3	100.0 (150)	50.0	25.0	0.0	25.0	100.0 ( 4)
한부모 가정	17.7	82.3	100.0 ( 96)	17.6	64.7	5.9	11.8	100.0 (17)
미혼모 가정	20.2	79.8	100.0 (104)	9.5	90.5	0.0	0.0	100.0 (21)
$\chi^2(df)$	21.946(2)***			10.856(6)				
지역 구분								
수도권	10.5	89.5	100.0 (191)	5.0	90.0	5.0	0.0	100.0 (20)
비수도권	13.8	86.2	100.0 (159)	27.3	59.1	0.0	13.6	100.0 (22)
$\chi^2(df)$	0.931(1)			8.301(3)*				
수급자 여부								
해당	20.5	79.5	100.0 (166)	14.7	79.4	2.9	2.9	100.0 (34)
비해당	4.3	95.7	100.0 (184)	25.0	50.0	0.0	25.0	100.0 ( 8)
$\chi^2(df)/t$	21.512(1)***			5.818(3)				

\*  $p < .05$ , \*\*  $p < .01$ , \*\*\*  $p < .001$

나) 아이돌봄서비스 주중/주말 이용 여부 및 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 중 주중 서비스 이용률은 90.5%였으며, 주말 서비스 이용률은 23.8%였다.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평균 이용 시간은 304.8분,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371.0분으로 나타나 주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더 장시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아이돌봄서비스 주중/주말 이용 여부 및 평균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이용 여부		(수)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이용시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전체	90.5	23.8	(42)	304.8	(38)	371.0	(10)
자녀 연령							
영아	88.0	32.0	(25)	348.6	(22)	340.0	( 8)
유아	94.1	11.8	(17)	244.7	(16)	495.0	( 2)
$t$				2.0		-1.0	

구분	이용 여부		(수)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이용시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5.0	25.0	( 4)	470.3	( 3)	20.0	( 1)
한부모 가정	88.2	23.5	(17)	313.4	(15)	382.5	( 4)
미혼모 가정	95.2	23.8	(21)	273.6	(20)	432.0	( 5)
<i>F</i>				2.0		2.2	

#### 4)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 및 부모교육

##### 가) 양육스트레스

######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항목이 5점 척도 기준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항목에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이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보다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과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응답자가 대졸 이상 응답자보다, 수급자 가정 응답자가 비수급자 가정 응답자보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모든 항목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1	2	3	4	5	(수)
전체	4.1	3.1	3.0	3.1	2.1	(350)
자녀 연령						
영아	4.1	3.1	3.1	3.1	2.1	(236)
유아	4.0	3.1	2.9	3.1	2.1	(114)
<i>t</i>	1.1	0.1	0.8	-0.4	0.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0	2.9	2.8	2.8	1.9	(150)
한부모 가정	4.0	3.2	3.2	3.3	2.2	( 96)
미혼모 가정	4.2	3.2	3.1	3.3	2.3	(104)
<i>F</i>	2.1	2.2	3.3*	6.1**	6.4**	

구분	1	2	3	4	5	(수)
학력						
고졸 이하	4.2	3.3	3.2	3.3	2.3	(128)
대졸 이상	4.0	2.9	2.9	2.9	2.0	(222)
<i>t</i>	2.1*	2.5*	2.4*	2.5*	3.0**	
수급자 여부						
해당	4.2	3.2	3.1	3.2	2.2	(166)
비해당	4.0	2.9	2.9	2.9	2.0	(184)
<i>t</i>	2.0*	2.2*	1.8	2.3*	1.8	

주: 1) ①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②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③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④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2)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2) 조손 빈곤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은 4.1점으로 가장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가 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는 3.1~2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3가지 가정유형의 부모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III-1-24〉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단위: 점, (명)

구분	1	2	3	4	5	우울평균	(수)
조손가정	4.1	3.2	3.1	3.2	2.0	2.0	(24)

주: 1) ①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②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③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④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2)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우울 척도는 ①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②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두 문항을 "전혀 없다" = 0점, "매우 그렇다" = 1점, "일주일 이상" = 2점, "거의 매일" = 3점으로 평가하여 두 문항의 합을 제시함.

자료: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52(3), 115-121.

나) 양육자 우울

지난 한 달간 양육자가 경험한 우울함의 정도는 6점 만점에 평균 2.4점이었으며 64.3%의 응답자가 0~2점을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응답자가 일반 빈곤가정 응답자보다 우울함의 정도가 높았다. 학력과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응답자가 대졸 이상 응답자보다, 수급자 가정 응답자가 비수급자 가정 응답자보다 우울함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5〉 우울(PHQ-2)

단위: %(명), 점

구분	0~2점	3~6점	계(수)	평균
전체	64.3	35.7	100.0 (350)	2.4
자녀 연령				
영아	64.8	35.2	100.0 (236)	2.3
유아	63.2	36.8	100.0 (114)	2.5
$\chi^2(df)/t$	0.094(1)			-1.0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5.3	24.7	100.0 (150)	2.0
한부모 가정	56.3	43.8	100.0 ( 96)	2.7
미혼모 가정	55.8	44.2	100.0 (104)	2.8
$\chi^2(df)/F$	13.959(2)***			8.3***
학력				
고졸 이하	54.7	45.3	100.0 (128)	2.8
대졸 이상	69.8	30.2	100.0 (222)	2.2
$\chi^2(df)/t$	8.097(1)**			3.1**
수급자 여부				
해당	55.4	44.6	100.0 (166)	2.8
비해당	72.3	27.7	100.0 (184)	2.1
$\chi^2(df)/t$	10.806(1)**			3.8***

주: 본 척도는 ①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②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두 문항을 "전혀 없다"= 0점, "며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평가하여 두 문항의 합을 제시함.  
 자료: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양육의 어려움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주양육자 양육의 어려움

구체적인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항목이 5점 척도 기준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의 부족, 긴급할 때 돌봄 인력의 부재,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 아이 문제에 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의 부재,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에 관한 무지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유형별 차이에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보다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부재’ 및 ‘아이 문제를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1-26〉 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전체	4.0	3.7	3.2	3.5	3.0	2.8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4.0	3.8	3.3	3.5	3.0	2.9	100.0 (236)
유아	4.0	3.5	3.0	3.5	3.0	2.6	100.0 (114)
<i>t</i>	0.0	2.3*	2.3*	0.3	0.1	2.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9	3.7	3.2	3.1	2.6	2.9	100.0 (150)
한부모 가정	3.9	3.7	3.1	3.6	3.2	2.7	100.0 ( 96)
미혼모 가정	4.2	3.9	3.3	3.9	3.5	2.8	100.0 (104)
<i>F</i>	2.9	1.1	0.5	9.4***	22.6***	0.5	
학력							
고졸 이하	4.1	3.9	3.2	3.7	3.4	2.9	100.0 (128)
대졸 이상	3.9	3.6	3.2	3.4	2.8	2.8	100.0 (222)
<i>t</i>	2.2*	2.2*	-0.1	2.3*	4.3***	0.3	
수급자 여부							
해당	4.1	3.9	3.3	3.9	3.4	2.8	100.0 (166)
비해당	3.9	3.6	3.1	3.1	2.6	2.9	100.0 (184)
<i>t</i>	1.6	1.9	1.1	5.2***	6.7***	-1.1	

주: 1) ①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②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③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④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⑥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2)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2) 조손 빈곤가정의 조부모 양육의 어려움

조부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양육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점수 3.7점으로 나타났으며, 긴급 시 아이돌봄 인력 없음이 3.5점,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이 3.4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27〉 조부모 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전체	3.7	3.1	3.2	3.5	3.3	3.4	100.0 (24)

주: 1) ①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②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③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④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⑥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2)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라) 외부 지원 정도

배우자 이외 다른 가족이나 이웃(후원자 포함)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관련하여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 평균 3.0점으로 다른 지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긴급 시 (손)자녀 봐주기 등 돌봄 지원’과 ‘육아 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은 평균 2.8점이었으며,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은 평균 2.3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부 지원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과 관련하여 영아 자녀를 둔 가정이 유아 자녀를 둔 가정보다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미혼모 가정이 다른 가족이나 이웃(후원자 포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가정이 비수도권 가정보다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수급자 가정이 수급 가정보다 정서적 도움과 자녀 돌봄 지원 및 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고 체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1-28〉 외부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자녀 돌봄 지원	정보 및 기술조언	(수)
전체	2.3	3.0	2.8	2.8	(350)
자녀 연령					
영아	2.3	3.1	2.8	2.8	(236)
유아	2.4	2.8	2.8	2.8	(114)
<i>t</i>	-1.0	2.0*	0.2	-0.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2	3.3	3.1	3.0	(150)
한부모 가정	2.7	2.9	2.8	2.9	( 96)
미혼모 가정	2.1	2.6	2.4	2.4	(104)
<i>F</i>	7.5***	10.0***	6.8**	7.7***	
지역 구분					
수도권	2.4	3.0	2.7	2.8	(191)
비수도권	2.1	3.0	2.8	2.8	(159)
<i>t</i>	2.2*	-0.3	-0.4	-0.3	
수급자 여부					
해당	2.2	2.6	2.4	2.5	(166)
비해당	2.4	3.3	3.1	3.0	(184)
<i>t</i>	-1.0	-5.1***	-5.0***	-3.7***	

주: '매우 도움을 받는다 = 5점, 도움을 받는 편이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 2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부모교육

#### (1) 조손 빈곤가정 외 주양육자 부모교육

부모교육을 수강한 비율은 24.6%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에 관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37.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수강 여부와 관련하여 유아 가정 응답자가 영아 가정 응답자보다, 미혼모 가정 응답자가 다른 가정유형보다, 수급자 가정 응답자가 비수급자 가정 응답자보다 부모교육을 수강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을 수강한 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9〉 부모교육 수강 여부 및 수강 받은 기관

단위: %(명)

구분	수강함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24.6	(350)	22.1	9.3	23.3	23.3	11.6	11.6	19.8	27.9	(86)
자녀 연령											
영아	20.3	(236)	18.8	6.3	22.9	16.7	8.3	18.8	8.3	29.2	(48)
유아	33.3	(114)	26.3	13.2	23.7	31.6	15.8	2.6	34.2	26.3	(38)
$\chi^2(df)$	7.003(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4.7	(150)	36.4	13.6	22.7	0.0	0.0	22.7	0.0	27.3	(22)
한부모 가정	26.0	(96)	24.0	8.0	40.0	40.0	16.0	12.0	20.0	16.0	(25)
미혼모 가정	37.5	(104)	12.8	7.7	12.8	25.6	15.4	5.1	30.8	35.9	(39)
$\chi^2(df)$	17.431(2)***										
수급자 여부											(35)
해당	33.1	(166)	18.2	9.1	25.5	29.1	18.2	9.1	29.1	27.3	(15)
비해당	16.8	(184)	29.0	9.7	19.4	12.9	0.0	16.1	3.2	29.0	(11)
$\chi^2(df)/t$	12.487(1)***										
2018전국보육실태조사	37.2	(2533)									

주: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사회복지관, ⑥ 문화센터, ⑦ 드림스타트, ⑧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622  
 \*  $p < .05$ , \*\*  $p < .01$ , \*\*\*  $p < .001$

(2) 조손 빈곤가정의 조부모 부모교육

조부모의 부모교육 수강 여부가 45.8%로 조손외가정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손가정의 경우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많아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30〉 부모교육 수강 여부 및 수강 받은 기관(조손)

단위: %(명)

구분	수강함	(수)	기타	어린이집	드림스타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수)
조손가정	45.8	(24)	63.6	27.3	18.2	9.1	9.1	(24)

## 2. 경제상태

다음에서는 빈곤가정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고자 소득, 지출, 채무 여부 및 관련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출 항목(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식료품비 충당,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자녀의 의료비 충당,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에서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여부를 제시하여 빈곤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 가. 소득 및 지출

#### 1) 경제활동 상태

빈곤가정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36.0%였으며, '상용직'이 32.0%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는 가정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일반 빈곤가정은 '상용직'이 46.0%, '비경제활동 인구'가 29.3%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29.2%, '상용직'이 26.0%, '임시직'이 20.8%였고, 미혼모 가정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51.9%를 차지하였다.

〈표 III-2-1〉 경제활동 상태

구분	단위: %(명)								계(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32.0	10.6	6.0	0.3	3.7	1.4	10.0	36.0	100.0 (350)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6.0	5.3	6.0	0.0	5.3	1.3	6.7	29.3	100.0 (150)
한부모 가정	26.0	20.8	5.2	1.0	4.2	0.0	13.5	29.2	100.0 ( 96)
미혼모 가정	17.3	8.7	6.7	0.0	1.0	2.9	11.5	51.9	100.0 (104)
$\chi^2 (df)$	53.621(14)***								

\* p < .05, \*\* p < .01, \*\*\* p < .001

#### 2) 월평균 총 생활비 및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빈곤가정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평균 144만원으로, '100~200만원 미만'을 지

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 중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은 평균 44.2만원이었으며 '30~6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는 자녀 연령, 가정유형, 학력, 수급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연령에 따른 월평균 총 생활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100~200만원 미만'이 45.3%, '200만원 이상'이 30.5%였던 반면,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43.0%, '100~200만원 미만'이 36.8%를 차지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라서는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월평균 총 생활비로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에서는 '100~200만원 미만' 지출이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에서도 일반 빈곤가정은 평균 52.5만원이었던 반면, 한부모 가정은 평균 39.8만원, 미혼모 가정은 평균 36.3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서는 월평균 총 생활비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 가정은 '100~200만원 미만'이 44.5%, '100만원 미만'이 38.3%였던 반면, 대졸 이상 가정은 '100~200만원 미만'이 41.4%, '200만원 이상'이 32.9%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과 관련하여 고졸 이하 가정에서는 평균 38.2만원을 지출하였고, 대졸 이상 가정에서는 평균 47.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는 수급자 가정의 경우 월평균 총 생활비로 '100~200만원 미만'이 49.4%, '100만원 미만'이 43.4%였던 반면, 비수급자 가정은 '200만원 이상'이 45.1%, '100~200만원 미만'이 36.4%를 차지하였다.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에서도 수급자 가정은 평균 37.9만원이었던 반면, 비수급자 가정은 평균 49.8만원으로 평균 11.9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2-2〉 월평균 총 생활비 및 생활비 중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월 평균 총 생활비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계(수)
	100만 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	30만원 미만	30~60만 원 미만	60만원 이상	평균	
전체	30.3	42.6	27.1	144.0	35.1	41.7	23.1	44.2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24.2	45.3	30.5	151.0	33.9	41.9	24.2	45.3	100.0 (236)
유아	43.0	36.8	20.2	129.5	37.7	41.2	21.1	41.7	100.0 (114)
$\chi^2(df)/t$	13.327(2)**			2.1*	0.648(2)			0.9	

구분	월 평균 총 생활비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계(수)
	100만 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	30만원 미만	30~60만 원 미만	60만원 이상	평균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0.7	34.7	54.7	196.4	26.0	44.7	29.3	52.5	100.0 (150)
한부모 가정	44.8	45.8	9.4	107.5	44.8	34.4	20.8	39.8	100.0 ( 96)
미혼모 가정	45.2	51.0	3.8	102.0	39.4	44.2	16.3	36.3	100.0 (104)
$\chi^2(df)/F$	111.352(4)***			61.2***	13.145(4)*			8.2***	
학력									
고졸 이하	38.3	44.5	17.2	124.6	42.2	36.7	21.1	38.2	100.0 (128)
대졸 이상	25.7	41.4	32.9	155.2	31.1	44.6	24.3	47.6	100.0 (222)
$\chi^2(df)/t$	11.810(2)**			-3.1**	4.423(2)			-2.5*	
수급자 여부									
해당	43.4	49.4	7.2	107.0	42.8	39.2	18.1	37.9	100.0 (166)
비해당	18.5	36.4	45.1	177.4	28.3	44.0	27.7	49.8	100.0 (184)
$\chi^2(df)/t$	67.449(2)***			-8.2***	9.232(2)**			-3.3**	

\*  $p < .05$ , \*\*  $p < .01$ , \*\*\*  $p < .001$

### 3) 채무 여부 및 요인

채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4.9%가 채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채무의 주된 요인으로는 ‘주택 마련 및 보증금’이 5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활비’로 빚을 지게 된 경우도 36.3%였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 가정은 ‘주택 마련 및 보증금(58.1%)’이 채무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반면, 유아 가정에서는 ‘생활비(45.8%)’가 채무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가정유형에 따라서는 채무 관련 일반 빈곤가정 의 주된 요인이 ‘주택 마련 및 보증금(79.5%)’인 반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생활비(한부모 가정: 50.7%, 미혼모 가정: 54.3%)’가 채무의 주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채무 여부와 관련하여 양육자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 가정에서는 82.0%가 채무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졸 이상 가정에서는 70.7%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의 요인으로 고졸 이하 가정에서는 ‘생활비(52.4%)’가 주된 요인이었던 반면, 대졸 이상 가정에서는 ‘주택 마련 및 보증금(66.9%)’이 주된 요인이었다. 수급자 여부와 관련해서도 수급 가정은 ‘생활비(55.9%)’가 채무의 주된 요인이었던 반면, 비수급자 가정은 ‘주택 마련 및 보증금(74.8%)’이 채무의 주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3〉 채무 여부 및 요인

단위: %(명)

구분	채무있음	채무의 주된 요인					계(수)
		주택 마련 및 보증금	생활비	자녀의 보육/교육비	의료비	기타	
전체	74.9	51.9	36.3	0.8	0.8	10.3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75.8	58.1	31.8	0.0	0.6	9.5	100.0 (236)
유아	72.8	38.6	45.8	2.4	1.2	12.0	100.0 (114)
$\chi^2(df)/t$	0.378(1)			12.194(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4.7	79.5	14.3	0.9	0.0	5.4	100.0 (150)
한부모 가정	71.9	39.1	50.7	0.0	1.4	8.7	100.0 ( 96)
미혼모 가정	77.9	24.7	54.3	1.2	1.2	18.5	100.0 (104)
$\chi^2(df)/F$	0.963(2)			66.736(8)***			
학력							
고졸 이하	82.0	29.5	52.4	1.0	1.0	16.2	100.0 (128)
대졸 이상	70.7	66.9	25.5	0.6	0.6	6.4	100.0 (222)
$\chi^2(df)/t$	5.518(1)*			35.527(4)***			
수급자 여부							
해당	76.5	27.6	55.9	0.0	1.6	15.0	100.0 (166)
비해당	73.4	74.8	17.8	1.5	0.0	5.9	100.0 (184)
$\chi^2(df)/t$	0.456(1)			63.579(4)***			

\*  $p < .05$ , \*\*  $p < .01$ , \*\*\*  $p < .001$

#### 4) 출산과 양육에 따른 퇴직 경험

자녀 출산 또는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응답자는 58.3%였으며, 직장을 그만둔 시기는 자녀가 ‘만 0세’일 때가 61.8%로 가장 많았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퇴직 경험은 53.4%였고, 유아 가정의 퇴직 경험은 68.4%였다. 직장을 그만둔 시기에서 영아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이 ‘만 0세’일 때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만 1세’도 27.8%였던 반면, 유아 가정의 경우에는 ‘만 0세’일 때가 52.6%, ‘만 2세 이상’일 때가 29.5%로 조사되었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퇴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40.7%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은 64.6%, 미혼모 가정은 77.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양육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고졸 이하 가정의 퇴

직 경험 비율은 73.4%였고, 대졸 이상 가정의 퇴직 경험 비율은 49.5%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도 퇴직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었는데 수급 가정은 74.1%, 비수급자 가정은 44.0%가 자녀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부가 0.3%, 모가 40.3%로 본 조사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본 조사 대상이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어머니 기준으로 경력 단절 시기 자녀 연령은 임신 시 63.1%,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23.2%, 만 1세 이전이 3.9%, 만 1~2세 6.0%, 만 3세~취학전까지가 3.4%로 나타났다.

〈표 III-2-4〉 자녀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및 당시 자녀 연령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자녀 연령				평균	계(수)
		만 0세	만 1세	만 2세 이상	평균		
전체	58.3	61.8	24.0	14.2	0.6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53.4	67.5	27.8	4.8	0.4	100.0 (236)	
유아	68.4	52.6	17.9	29.5	1.0	100.0 (114)	
$\chi^2(df)/t$	7.143(1)**	24.387(2)***			-4.0***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0.7	75.4	18.0	6.6	0.3	100.0 (150)	
한부모 가정	64.6	45.2	30.6	24.2	1.0	100.0 ( 96)	
미혼모 가정	77.9	64.2	23.5	12.3	0.6	100.0 (104)	
$\chi^2(df)/F$	37.148(2)***	13.796(4)**			7.6***		
학력							
고졸 이하	73.4	56.4	22.3	21.3	0.8	100.0 (128)	
대졸 이상	49.5	66.4	25.5	8.2	0.5	100.0 (222)	
$\chi^2(df)/t$	19.055(1)***	7.136(2)*			2.7**		
수급자 여부							
해당	74.1	54.5	26.0	19.5	0.8	100.0 (166)	
비해당	44.0	72.8	21.0	6.2	0.4	100.0 (184)	
$\chi^2(df)/t$	32.465(1)***	9.295(2)**			3.3***		
2018 보육실태조사							
부	0.3						
모	40.3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98, p.101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경제적 어려움

### 1)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가)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지난 1년간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9.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빈곤가정은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33.3%였던 반면,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은 61.5%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5〉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구분	있다	없다	단위: %(명)	
			계(수)	
전체	49.4	50.6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49.6	50.4	100.0	(236)
유아	49.1	50.9	100.0	(114)
$\chi^2(df)$	0.006(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3.3	66.7	100.0	(150)
한부모 가정	61.5	38.5	100.0	(96)
미혼모 가정	61.5	38.5	100.0	(104)
$\chi^2(df)$	27.205(2)***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지난 1년간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9.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빈곤가정의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22.7%였던 반면,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54.8%가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6〉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39.4	60.6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39.0	61.0	100.0 (236)
유아	40.4	59.6	100.0 (114)
$\chi^2(df)$	0.060(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2.7	77.3	100.0 (150)
한부모 가정	49.0	51.0	100.0 (96)
미혼모 가정	54.8	45.2	100.0 (104)
$\chi^2(df)$	31.597(2)***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식료품비 충당

지난 1년간 ‘식료품비(식비/간식비) 충당’으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4.9%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22.0%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는 54.2%, 미혼모 가정에서는 69.2%가 식료품비 충당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식료품비(식비/간식비) 충당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4.9	55.1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44.1	55.9	100.0 (236)
유아	46.5	53.5	100.0 (114)
$\chi^2(df)$	0.183(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2.0	78.0	100.0 (150)
한부모 가정	54.2	45.8	100.0 (96)
미혼모 가정	69.2	30.8	100.0 (104)
$\chi^2(df)$	60.023(2)***		

\*  $p < .05$ , \*\*  $p < .01$ , \*\*\*  $p < .001$

라)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지난 1년간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27.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12.7% 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는 40.6%, 미혼모 가정에서는 36.5%로 조사되었다.

〈표 III-2-8〉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구분	있다		없다		계(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7.4	72.6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25.0	75.0	100.0	(236)	
유아	32.5	67.5	100.0	(114)	
$\chi^2(df)$	2.147(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2.7	87.3	100.0	(150)	
한부모 가정	40.6	59.4	100.0	(96)	
미혼모 가정	36.5	63.5	100.0	(104)	
$\chi^2(df)$	29.156(2)***				

단위: %(명)

\*  $p < .05$ , \*\*  $p < .01$ , \*\*\*  $p < .001$

마)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지난 1년간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2.3%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22.0%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는 50.0%, 미혼모 가정에서는 64.4%가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구분	있다		없다		계(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2.3	57.7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42.8	57.2	100.0	(236)	
유아	41.2	58.8	100.0	(114)	
$\chi^2(df)$	0.077(1)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2.0	78.0	100.0 (150)
한부모 가정	50.0	50.0	100.0 (96)
미혼모 가정	64.4	35.6	100.0 (104)
$\chi^2(df)$	48.517(2)***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자녀의 의료비 부담

지난 1년간 ‘자녀의 의료비 부담’으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2.3%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16.7%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는 43.8%, 미혼모 가정에서는 44.2%가 자녀의 의료비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0〉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자녀의 의료비 부담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32.3	67.7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32.2	67.8	100.0 (236)
유아	32.5	67.5	100.0 (114)
$\chi^2(df)$	0.002(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6.7	83.3	100.0 (150)
한부모 가정	43.8	56.3	100.0 (96)
미혼모 가정	44.2	55.8	100.0 (104)
$\chi^2(df)$	29.297(2)***		

\*  $p < .05$ , \*\*  $p < .01$ , \*\*\*  $p < .001$

### 사)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지난 1년간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1.1%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빈곤가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26.7%였던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는 49.0%, 미혼모 가정에서는 54.8%가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1〉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1.1	58.9	100.0 (350)
자녀 연령 구분			
영아	40.3	59.7	100.0 (236)
유아	43.0	57.0	100.0 (114)
$\chi^2(df)$	0.236(1)		
가정 형태			
일반 빈곤가정	26.7	73.3	100.0 (150)
한부모 가정	49.0	51.0	100.0 ( 96)
미혼모 가정	54.8	45.2	100.0 (104)
$\chi^2(df)$	23.422(2)***		

\*  $p < .05$ , \*\*  $p < .01$ , \*\*\*  $p < .001$

## 2) 조손 빈곤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가) 재정의 어려움

조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주거용 목돈과 식료품, 교재교구 및 놀이감 구매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29.2%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비용이 20%대의 비율에서 부족했던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보육교육비의 경우 12.5%로 나타나 가장 적었다.

〈표 III-2-12〉 조손가정의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

단위: %(명)

구분	주거용 목돈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식료품비	보육 교육비	교재교구 및 놀이감 구매비	자녀 의료비	여가 문화생활비	(수)
전체	29.2	20.8	29.2	12.5	29.2	20.8	25.0	(24)

주: '예'에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 나) 소득 및 지출

조손가정의 월 평균 총 생활비는 155.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은 37.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66.7%의 비율에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채무의 주된 요인은 43.8%가 주택 마련

및 보증금, 생활비가 3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3〉 조손가정의 월 평균 총 생활비 및 생활비 중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월 평균 총 생활비				자녀에게 드는 순수 지출 금액				계(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만원 이상	평균	30만원 미만	30~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평균	
조손가정	29.2	41.7	29.2	155.5	29.2	45.8	25.0	37.8	100.0 (24)

\* p < .05, \*\* p < .01, \*\*\* p < .001

### 3. 주거환경 및 건강

다음에서는 빈곤가정의 주거환경 및 영유아 (손)자녀 관련 건강을 살펴보았다. 주거 및 지역 환경을 알아보고자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지역환경 인프라 접근성, 자녀의 생활환경을 탐색하였다. 영유아 자녀의 건강 및 영양은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건강관리·영양·식생활 관리 등의 사항을 통해 파악하였다.

#### 가. 주거 및 지역 환경

##### 1)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주택 유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2.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가구 주택 거주자도 38.6%였다.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38.6%)’, ‘전세(32.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빈곤가정은 ‘아파트(74.0%)’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다가구 주택(한부모 가정: 50.0%, 미혼모 가정: 54.8%)’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거 점유 형태에서도 일반 빈곤가정은 ‘자가(40.7%)’, ‘전세(34.7%)’ 순이었으며, 한부모 가정은 ‘월세(42.7%)’, ‘전세(39.6%)’ 순이었고, 미혼모 가정은 ‘월세(60.6%)’인 경우가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주택 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 가정은 ‘다가구 주택

(47.1%)’, ‘아파트(44.5%)’ 순으로 거주한 반면 비수도권 가정은 ‘아파트(61.6%)’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 구분에 따른 주택 점유 형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유형과 주택 점유 형태에 차이가 있었는데 수급자 가정은 ‘다가구 주택(55.4%)’, ‘아파트(31.3%)’ 순으로 거주한 것에 비해 비수급자 가정은 ‘아파트(71.2%)’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수급자 가정은 ‘월세(54.8%)’, ‘전세(33.1%)’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급자 가정은 ‘자가(39.1%)’, ‘전세(32.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1〉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단위: %(명)

구분	주택 유형				주택 점유 형태				계(수)
	단독 주택	아파트	다가구 주택	기타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전체	6.6	52.3	38.6	2.6	22.0	32.9	38.3	6.9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8.1	53.8	36.4	1.7	22.9	34.7	35.2	7.2	100.0 (236)
유아	3.5	49.1	43.0	4.4	20.2	28.9	44.7	6.1	100.0 (114)
$\chi^2(df)$	5.754(3)				3.007(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5.3	74.0	20.0	0.7	40.7	34.7	20.0	4.7	100.0 (150)
한부모 가정	5.2	41.7	50.0	3.1	13.5	39.6	42.7	4.2	100.0 ( 96)
미혼모 가정	9.6	30.8	54.8	4.8	2.9	24.0	60.6	12.5	100.0 (104)
$\chi^2(df)$	54.918(6)***				82.067(6)***				
지역 구분									
수도권	5.8	44.5	47.1	2.6	19.9	37.7	37.2	5.2	100.0 (191)
비수도권	7.5	61.6	28.3	2.5	24.5	27.0	39.6	8.8	100.0 (159)
$\chi^2(df)$	13.263(3)**				5.591(3)				
수급자 여부									
해당	9.0	31.3	55.4	4.2	3.0	33.1	54.8	9.0	100.0 (166)
비해당	4.3	71.2	23.4	1.1	39.1	32.6	23.4	4.9	100.0 (184)
$\chi^2(df)$	56.020(3)***				76.487(3)***				

\*  $p < .05$ , \*\*  $p < .01$ , \*\*\*  $p < .001$

나) 조손 빈곤가정의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다음에서 조손가정의 주거 및 지역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다가구주택이 25.0%, 단독주택이 16.7%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로는 월세가 54.2%, 자가 37.5%, 전세가 8.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손 외 빈곤가정에 비해서 자가의 비율도 높았지만, 월세의 비율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손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III-3-2〉 조손가정의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구분	주택 유형			주택 점유형태			계(수)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자가	전세	월세	
조손가정	16.7	58.3	25.0	37.5	8.3	54.2	100.0 (24)

단위: %(명)

2) 지역환경 인프라 접근성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지역환경 인프라 접근성

거주 지역의 인프라 접근성과 관련하여 5점 척도 기준 ‘이용 가능한 보육교육기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점, ‘자녀와의 여가 및 놀이활동을 위한 놀이터와 공원 등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3.4점, ‘아동을 위한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3.3점, ‘문화 및 체험시설(어린이도서관, 박물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응답이 2.9점, ‘육아 관련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응답이 2.8점, ‘이용 가능한 드림스타트/영유아통합지원센터 기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점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유형에 따른 지역환경 인프라 접근성을 살펴보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미혼모 가정의 인프라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비수도권 가정이 인프라 접근성을 낮게 체감하였다.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는 드림스타트/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수급자 가정이 인프라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체감하였다.

〈표 III-3-3〉 지역환경 인프라 접근성

단위: 점, (명)

구분	문화 및 체험시설	육아서비스 기관	의료기관	놀이 및 여가활동	보육교육 기관	드림스타트/ 영유아통합 지원센터	(수)
전체	2.9	2.8	3.3	3.4	3.7	2.7	(350)
자녀 연령							
영아	2.8	2.8	3.3	3.4	3.7	2.6	(236)
유아	3.0	2.8	3.3	3.5	3.7	2.7	(114)
<i>t</i>	-1.1	0.1	0.1	-0.3	-0.4	-0.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1	3.0	3.6	3.7	3.9	2.7	(150)
한부모 가정	2.8	2.7	3.2	3.2	3.5	2.8	( 96)
미혼모 가정	2.6	2.6	3.1	3.3	3.6	2.4	(104)
<i>F</i>	5.4**	4.3*	10.0***	7.8***	3.3*	3.2*	
지역 구분							
수도권	3.0	2.9	3.4	3.6	3.9	2.8	(191)
비수도권	2.6	2.6	3.2	3.3	3.5	2.5	(159)
<i>t</i>	3.3***	3.0**	1.7	2.5*	3.0**	2.7**	
수급자 여부							
해당	2.6	2.6	3.1	3.2	3.6	2.6	(166)
비해당	3.0	2.9	3.6	3.7	3.8	2.7	(184)
<i>t</i>	-3.4***	-2.0*	-4.6***	-4.3***	-2.2*	-1.3	

주: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조손 빈곤가정의 지역환경 인프라 이용 편의성

지역환경 인프라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는 보육교육기관 이용의 편의성이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놀이 및 여가활동이 3.6점, 의료기관이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서비스기관이 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3-4〉 조손가정의 지역환경 인프라 이용 편의성

단위: 점, (명)

구분	문화 및 체험시설	육아서비스 기관	의료기관	놀이 및 여가활동	보육교육 기관	드림스타트/ 영유아통합 지원센터	(수)
조손가정	2.3	2.0	3.3	3.6	4.0	2.1	(24)

주: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3) 자녀의 생활환경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자녀의 생활환경

자녀의 생활환경은 5점 척도 기준 ‘자녀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손씻기, 목욕, 양치질 등) 잘 지도하고 있다’가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4.1점, ‘채광, 통풍 등이 잘 되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3.9점, ‘자녀가 기본생활습관(식사습관, 정리정돈, 인사예절)을 익히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3.9점, ‘아이가 반복적으로 읽는 책/그림책이 1~2권 있다’ 3.7점, ‘집안 청결을 잘 유지하고 있다’ 3.7점, ‘자녀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3.7점, ‘자녀가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TV, 비디오 프로그램과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가정유형과 수급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3.4점 이상으로 나타나 많은 빈곤가정이 각 항목과 관련하여 환경을 구비하거나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 자녀의 생활환경

단위: %(명), 점

구분	1	2	3	4	5	6	7	8	계(수)
전체	3.7	4.1	3.9	3.7	4.3	3.9	3.5	3.7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3.8	4.1	3.9	3.7	4.2	3.9	3.5	3.7	100.0 (236)
유아	3.6	4.1	3.9	3.8	4.4	4.0	3.5	3.7	100.0 (114)
<i>t</i>	0.9	0.1	0.0	-0.7	-1.7	-1.5	0.1	0.0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8	4.3	4.2	3.9	4.4	4.0	3.6	3.9	100.0 (150)
한부모 가정	3.6	3.8	3.7	3.6	4.1	3.9	3.4	3.7	100.0 ( 96)
미혼모 가정	3.7	3.9	3.6	3.5	4.2	3.8	3.4	3.5	100.0 (104)
<i>F</i>	1.0	10.3***	12.0***	6.8**	4.7**	1.1	2.4	3.4*	
수급자 여부									
해당	3.6	3.8	3.6	3.5	4.2	3.9	3.4	3.6	100.0 (166)
비해당	3.8	4.3	4.1	3.9	4.3	4.0	3.6	3.8	100.0 (184)
<i>t</i>	-1.2	-4.4***	-5.2***	-3.7***	-1.6	-0.9	-1.9	-2.1*	

주: 1) ① 아이가 반복적으로 읽는 책/그림책이 1~2권 있다, ②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③ 채광, 통풍 등이 잘 되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④ 집안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청소 여부, 곰팡이 유무 등), ⑤ 자녀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손씻기, 목욕, 양치질 등) 잘 지도하고 있다, ⑥ 자녀가 기본생활습관(식사습관, 정리정돈, 인사예절)을 익히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⑦ 자녀가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TV, 비디오 프로그램과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⑧ 자녀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2)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조손 빈곤가정 손자녀의 생활환경

손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청결 지도가 4.5점,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4.3점, 장난감이나 기구 보유가 4.2점, 취침시간 지도가 4.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상 시청시간 제한이 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 III-3-6〉 손자녀의 생활환경

단위: %(명), 점

구분	1	2	3	4	5	6	7	8	계(수)
조손가정	3.9	4.2	3.8	3.8	4.5	4.3	3.5	4.0	100.0 (24)

주: 1) ①아이가 반복적으로 읽는 책/그림책이 1~2권 있다, ②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③ 채광, 통풍 등이 잘 되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④집안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청소 여부, 곰팡이 유무 등), ⑤자녀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손씻기, 목욕, 양치질 등) 잘 지도하고 있다, ⑥자녀가 기본생활습관(식사습관, 정리정돈, 인사예절)을 익히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⑦자녀가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TV, 비디오 프로그램과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⑧자녀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2)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나. 건강 및 영양

#### 1) (손)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지난 1년 간 자녀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0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의 입원여부도 응답자의 82.0%인 대다수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른 자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은 평균 3.9점, 미혼모 가정은 평균 3.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녀 입원여부에서도 미혼모 가정의 경우 26.9%가 자녀가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급자 가정도 자녀의 건강상태 점수가 평균 3.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표 III-3-7〉 지난 1년 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자녀 입원여부		건강상태	계(수)
	있다	없다		
전체	18.0	82.0	4.0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20.3	79.7	4.0	100.0 (236)
유아	13.2	86.8	4.0	100.0 (114)
$\chi^2(df)/t$	2.686(1)		0.2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6.0	84.0	4.2	100.0 (150)
한부모 가정	11.5	88.5	3.9	100.0 ( 96)
미혼모 가정	26.9	73.1	3.8	100.0 (104)
$\chi^2(df)/F$	8.800(2)*		8.3***	
수급자 여부				
해당	21.1	78.9	3.9	100.0 (166)
비해당	15.2	84.8	4.1	100.0 (184)
$\chi^2(df)/t$	2.035(1)		-2.8**	

주: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조손 빈곤가정 손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조손가정의 손자녀 건강 및 영양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지난 1년간 손자녀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5점 척도에서 평균 4.2점으로 손자녀의 건강이 대체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입원여부는 29.2% 비율로 나타나 다소 높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손자녀의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하는 정도로 다소 심각한 수준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II-3-8〉 지난 1년 간 손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단위: %(명)

구분	건강상태	손자녀 입원여부		계(수)
		있다	없다	
조손가정	4.2	29.2	70.8	100.0 (24)

주: 매우 그렇다 = 5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2) 자녀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자녀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2.0%가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때에 했다’고 응답하였다. 균형 있는 식사와 관련하여 영아 가정의 74.2%, 유아 가정의 65.8%가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에게 ‘모유수유’를 했던 비율은 56.6%였고, 자녀의 치아관리를 위해 ‘치과 검진’을 받았던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있는 비율은 30.9%였으며, 유아 가정에서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 비율은 29.8%였다.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미혼모 가정의 35.6%, 고졸 이하 가정의 39.1%만이 모유수유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수급자 가정도 46.4%가 자녀에게 모유수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정에 대한 모유수유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균형 있는 식사 항목에서도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영유아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고졸 이하 가정은 대졸 이상 가정보다, 수급자 가정은 비수급자 가정보다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가정,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9〉 자녀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

단위: %(명)

구분	영유아(N=350)				영아(N=236)	유아(N=114)	
	1	2	3	4	5	6	7
전체	54.0	30.9	92.0	56.6	74.2	29.8	65.8
자녀 연령							
영아	40.3	24.2	91.9	57.2	74.2	-	-
유아	82.5	44.7	92.1	55.3	-	29.8	65.8
$\chi^2(df)$	55.249(2)***	16.251(2)***	0.111(2)	1.157(2)	-	-	-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8.0	20.0	94.7	66.7	86.0	17.2	89.7
한부모 가정	70.8	39.6	92.7	63.5	62.2	31.4	58.8
미혼모 가정	61.5	38.5	87.5	35.6	61.4	38.2	55.9
$\chi^2(df)$	29.995(4)***	17.799(4)**	5.597(4)	28.780(4)***	27.002(4)***	3.401(2)	13.176(4)*

구분	영유아(N=350)				영아(N=236)	유아(N=114)	
	1	2	3	4	5	6	7
학력							
고졸 이하	60.2	35.9	91.4	39.1	62.5	33.3	50.0
대졸 이상	50.5	27.9	92.3	66.7	80.1	27.3	77.3
$\chi^2(df)$	3.382(2)	2.950(2)	0.507(2)	27.482(2)***	11.244(2)**	0.488(1)	9.189(2)*
수급자 여부							
해당	65.7	37.3	92.2	46.4	65.0	39.4	57.6
비해당	43.5	25.0	91.8	65.8	80.9	16.7	77.1
$\chi^2(df)$	17.781(2)***	8.533(2)*	0.872(2)	16.121(2)***	13.686(2)**	6.858(1)**	7.077(2)*

주: 1) ① 치아관리를 위해 치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②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있습니까?, ③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때에 하셨습니까?, ④ 대상 아동이 모유수유를 하였습니까?, ⑤ 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⑥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습니까?, ⑦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예'에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조손 빈곤가정 손자녀의 건강상태 및 입원여부

조손 빈곤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의 건강관리 및 영양, 식생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예방접종을 제때 한 비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율이 영아 83.3%, 유아 75.0%로 보고되었다.

〈표 III-3-10〉 손자녀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

단위: %(명)

구분	영유아(N=24)				영아(N=12)	유아(N=12)	
	1	2	3	4	5	6	7
조손가정	54.2	20.8	91.7	25.0	83.3	25.0	75.0

주: 1) ①치아관리를 위해 치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②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있습니까?, ③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때에 하셨습니까?, ④대상 아동이 모유수유를 하였습니까?, ⑤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⑥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습니까?, ⑦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 '예'에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 4. 문화생활

다음에서는 먼저, 빈곤가정의 영유아들이 산책 및 놀이 공원이나 동네 공원에서 놀이한 경험, 여행 경험, 영화 또는 공연 관람 경험, 박물관 관람 경험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심의 여가활동 빈도와 더불어서 책 읽기, 영상 시청, 게임 등과 같은 실내 활동 중심의 일상적인 활동 시간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서 빈곤가정 영유아의 여가활동(실외 활동 중심)과 일상적인 활동(실내 활동 중심) 시간 각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서술하였다.

## 가. 여가활동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산책 및 놀이(놀이공원, 동네 공원 등), 여행,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관람으로 구분하여 먼저 4가지 여가활동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본 후, 다음에서 각 활동에 대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연 평균 지출액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1) 전반적인 여가활동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빈곤가정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산책 및 놀이(놀이공원, 동네 공원 등)/ 여행/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관람과 같은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화나 공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등) 등의 관람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율과 ‘1년에 1~2회’ 한다는 비율을 합치면 거의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책이나 놀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1〉 여가활동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산책 및 놀이	7.4	5.7	8.0	24.3	54.6	100.0 (171)
여행	28.6	41.4	15.1	10.0	4.9	100.0 (171)
영화 또는 공연 관람	50.0	29.7	12.3	4.9	3.1	100.0 (171)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44.9	33.4	13.1	5.4	3.1	100.0 (171)

나) 조손 빈곤가정 손자녀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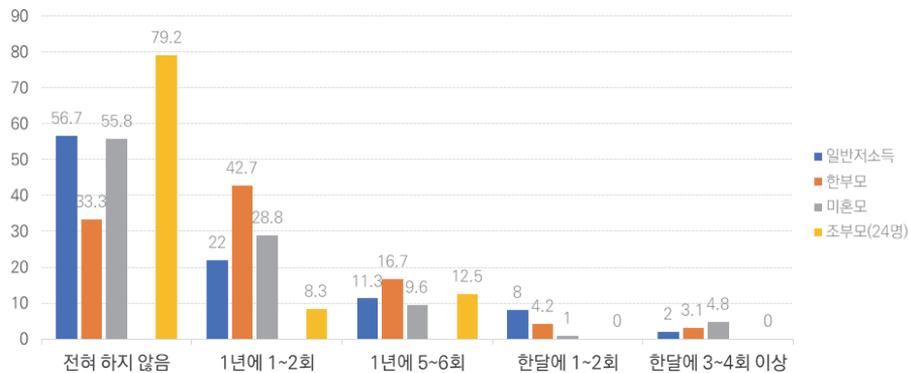
조손가정의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은 <표 III-4-2>와 같다. 응답에 따르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책 및 놀이가 12.5%, 여행이 58.3%, 영화 또는 공연 관람이 79.2%,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이 66.7%로 나타났다. 산책이나 놀이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음과 1년에 1~2회, 5~6회의 약 30%의 비율이 산책 및 놀이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전혀 하지 않음의 비율이 조손가정 외 가정유형에서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2> 조손가정 영유아의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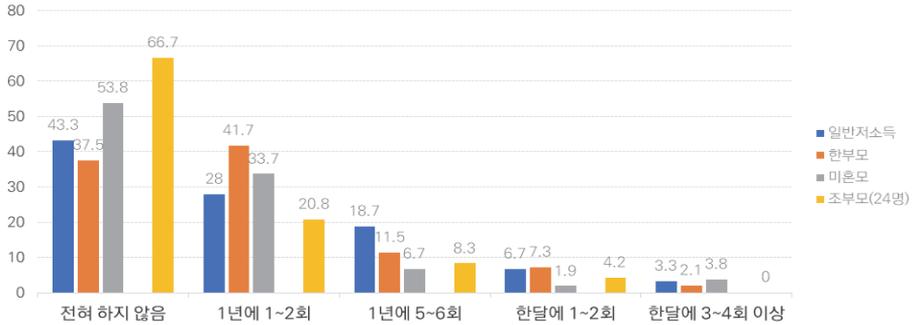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조손가정 외 전혀 하지 않음	계(수)
산책 및 놀이	12.5	8.3	8.3	16.7	54.2	7.4	100.0 (24)
여행	58.3	29.2	4.2	8.3	-	28.6	100.0 (24)
영화 또는 공연 관람	79.2	8.3	12.5	-	-	50.0	100.0 (2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66.7	20.8	8.3	4.2	-	44.9	100.0 (24)

[그림 III-4-1]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



[그림 III-4-2]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 2) 산책 및 놀이(놀이공원, 동네공원 등)

자녀와의 여가활동 중 산책 및 놀이 공원이나 동네 공원 등에서의 놀이는 54.6%가 ‘한 달에 3~4회 이상’ 한다고 보고하여,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가정, 일반 빈곤가정, 비수급자 가정 응답자가 ‘한 달에 3~4회 이상’ 자녀와 산책 및 놀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정유형 중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이 영유아 자녀와 산책 및 놀이를 하는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산책과 놀이를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자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책과 놀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1년에 1~2회 하는 경우는 미혼모 가정이 다른 두 가정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산책과 놀이 경험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3> 여가활동: 산책 및 놀이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전체	7.4	5.7	8.0	24.3	54.6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9.3	3.8	6.4	22.0	58.5	100.0 ( 91)
유아	3.5	9.6	11.4	28.9	46.5	100.0 ( 80)
$\chi^2(df)$			14.061(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7	1.3	5.3	21.3	67.3	100.0 ( 54)
한부모 가정	8.3	7.3	13.5	36.5	34.4	100.0 ( 56)
미혼모 가정	10.6	10.6	6.7	17.3	54.8	100.0 ( 61)
$\chi^2(df)$			38.155(8)***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수급자 여부						
해당	10.2	9.6	6.6	27.1	46.4	100.0 ( 91)
비해당	4.9	2.2	9.2	21.7	62.0	100.0 ( 80)
$\chi^2(df)$			17.530(4)**			

\*  $p < .05$ , \*\*  $p < .01$ , \*\*\*  $p < .001$

### 3) 여행

자녀와의 여행은 ‘1년에 1~2회’ 하는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다. 여행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도 28.6%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가정, 수급자 가정의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여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 자녀가 각각 31.3%, 39.4%로 일반 빈곤가정 19.3%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서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의 자녀가 여행 경험이 많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4〉 여가활동: 여행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전체	28.6	41.4	15.1	10.0	4.9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30.5	36.4	16.9	11.4	4.7	100.0 ( 91)
유아	24.6	51.8	11.4	7.0	5.3	100.0 ( 80)
$\chi^2(df)$			8.425(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9.3	36.7	23.3	16.0	4.7	100.0 ( 54)
한부모 가정	31.3	52.1	7.3	6.3	3.1	100.0 ( 56)
미혼모 가정	39.4	38.5	10.6	4.8	6.7	100.0 ( 61)
$\chi^2(df)$			35.575(8)***			
학력						
고졸 이하	37.5	44.5	7.8	7.8	2.3	100.0 ( 65)
대졸 이상	23.4	39.6	19.4	11.3	6.3	100.0 (106)
$\chi^2(df)$			16.851(4)**			
수급자 여부						
해당	38.6	42.8	8.4	6.0	4.2	100.0 ( 91)
비해당	19.6	40.2	21.2	13.6	5.4	100.0 ( 80)
$\chi^2(df)$			25.795(4)***			

\*  $p < .05$ , \*\*  $p < .01$ , \*\*\*  $p < .001$

#### 4) 영화 또는 공연 관람/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영화 또는 공연 관람은 절반인 50.0%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관람 역시 44.9%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빈곤가정의 영유아들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활동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5〉 여가활동: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전체	50.0	29.7	12.3	4.9	3.1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61.4	20.8	9.3	5.9	2.5	100.0 ( 91)
유아	26.3	48.2	18.4	2.6	4.4	100.0 ( 80)
$\chi^2 (df)$			46.242(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56.7	22.0	11.3	8.0	2.0	100.0 ( 54)
한부모 가정	33.3	42.7	16.7	4.2	3.1	100.0 ( 56)
미혼모 가정	55.8	28.8	9.6	1.0	4.8	100.0 ( 61)
$\chi^2 (df)$			25.993(8)**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II-4-6〉 여가활동: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전체	44.9	33.4	13.1	5.4	3.1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52.1	29.7	8.9	5.9	3.4	100.0 ( 91)
유아	29.8	41.2	21.9	4.4	2.6	100.0 ( 80)
$\chi^2 (df)$			22.005(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3.3	28.0	18.7	6.7	3.3	100.0 ( 54)
한부모 가정	37.5	41.7	11.5	7.3	2.1	100.0 ( 56)
미혼모 가정	53.8	33.7	6.7	1.9	3.8	100.0 ( 61)
$\chi^2 (df)$			17.241(8)*			

\*  $p < .05$ , \*\*  $p < .01$ , \*\*\*  $p < .001$

5)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연 평균 지출액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연 평균 지출액은 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았으나, 금액대 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 가정 형태, 수급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연 평균 지출액이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53만 6천원, 한부모 가정은 23만 9천원, 미혼모 가정 21만 9천원으로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이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에 비해 문화생활 관련 지출 비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 가정의 여가 및 문화생활 관련 지출 비용은 22만 3천원으로 비수급자 가정의 48만 4천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표 III-4-7〉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연 평균 지출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없음	1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8.3	24.3	20.9	26.6	100.0 (350)	36.0
자녀 연령						
영아	35.6	18.6	19.5	26.3	100.0 (236)	36.7
유아	13.2	36.0	23.7	27.2	100.0 (114)	34.6
$\chi^2(df)$		23.847(3)***				0.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7.3	21.3	16.0	35.3	100.0 (150)	53.6
한부모 가정	22.9	30.2	27.1	19.8	100.0 (96)	23.9
미혼모 가정	34.6	23.1	22.1	20.2	100.0 (104)	21.9
$\chi^2(df)$		15.634(6)*				9.5***
학력						
고졸 이하	32.8	23.4	23.4	20.3	100.0 (128)	22.5
대졸 이상	25.7	24.8	19.4	30.2	100.0 (222)	43.8
$\chi^2(df)$		5.141(3)				-3.5***
수급자 여부						
해당	31.3	27.1	24.1	17.5	100.0 (166)	22.3
비해당	25.5	21.7	17.9	34.8	100.0 (184)	48.4
$\chi^2(df)$		13.500(3)**				-3.8***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영유아 (손)자녀의 일과활동

영유아 (손)자녀의 일과활동을 책 읽기, TV·컴퓨터·휴대전화 영상 시청, 컴퓨터·휴대전화·가정용콘솔 게임으로 구분하여 주중과 주말의 활동 시간을 살펴보았다. 먼저 3가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시간을 살펴본 후, 다음에서 각 활동에 대한 활동 시간을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최초시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1) 전반적인 일상 활동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일상 활동

빈곤가정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주중/주말의 전반적인 3가지 일상적인 활동 시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주중과 주말 모두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각각 평균 79.4분, 102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책 읽기와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주중과 주말의 일과활동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계(수)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책 읽는 시간	29.1	48.3	22.6	32.9	30.0	38.6	31.4	36.3	100.0 (350)
TV, 컴퓨터, 휴대전화 영상 시청	20.6	42.0	37.4	79.4	18.6	33.4	48.0	102.0	100.0 (350)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 콘솔 게임	58.6	22.0	19.4	22.6	56.0	17.1	26.9	30.5	100.0 (350)

#### 나) 조손 빈곤가정 영유아 손자녀의 전반적인 일상 활동

손자녀와 함께 하는 주중/주말의 전반적인 3가지 일상적인 활동 시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평균 책 읽기는 주중 32.9분, 주말 36.3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영상 시청은 주중 79.4분, 주말 102.0분으로 나타났다. 평균 게임 시간의 경우 주중 22.6분, 주말 30.5분으로 확인되었다. 조손가정의 경우도 조손가정 외 3가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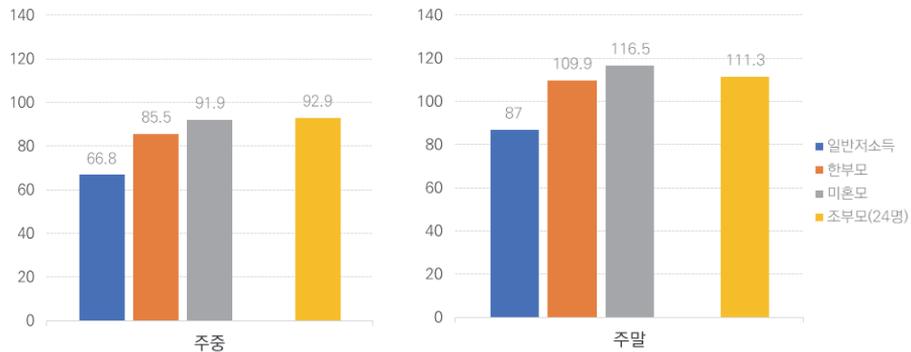
유형과 같이 책 읽기 시간에 비해서 영상 시청과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값은 도출하지 않았으나, 조손외 가정에 비해서 책 읽는 시간이 더 짧고, 영상 및 게임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9〉 조손가정 영유아의 주중과 주말의 일과활동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계(수)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책 읽는 시간	33.3	50.0	16.7	27.1	37.5	45.8	16.7	25.4	100.0 (24)
TV, 컴퓨터, 휴대전화 영상 시청	8.3	41.7	50.0	92.9	4.2	41.7	54.2	111.3	100.0 (24)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게임	62.5	8.3	29.2	33.8	62.5	4.2	33.3	35.0	100.0 (24)

[그림 III-4-3]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영상시청 시간



## 2) 책 읽기

자녀가 책 읽는 시간은 주중 평균 32.9분, 주말 평균 36.3분으로, 주말에 더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모두 '20~40분'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10〉 책 읽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계(수)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전체	29.1	48.3	22.6	32.9	30.0	38.6	31.4	36.3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32.2	43.6	24.2	34.0	33.5	34.3	32.2	37.5	100.0 (236)
유아	22.8	57.9	19.3	30.5	22.8	47.4	29.8	33.8	100.0 (114)
$\chi^2(df)$	6.364(2)*			1	6.446(2)*			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8.7	48.0	23.3	32.7	32.0	35.3	32.7	34.7	100.0 (150)
한부모 가정	22.9	56.3	20.8	31.1	22.9	44.8	32.3	39.9	100.0 (96)
미혼모 가정	35.6	41.3	23.1	34.8	33.7	37.5	28.8	35.4	100.0 (104)
$\chi^2(df)$	5.246(4)			0.3	3.987(4)			0.6	

\*  $p < .05$ , \*\*  $p < .01$ , \*\*\*  $p < .001$

### 3)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자녀가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79.4분, 주말 평균 102.0분으로, 책을 읽는 시간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영상 시청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가정,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영상시청 시간이 더 길게 조사되어, 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의존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미혼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각 91.9분, 85.5분으로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66.8분에 비해 영상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비수급자 가정의 자녀에 비해 주중과 주말의 영상 시청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중에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자녀의 영상 시청 시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자녀에 비해 길었던 반면, 주말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자녀의 영상 시청이 비수도권 거주 자녀보다 더 긴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III-4-11〉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계(수)
	30분 미만	30~90분	90분 이상	평균	30분 미만	30~90분	90분 이상	평균	
전체	20.6	42.0	37.4	79.4	18.6	33.4	48.0	102.0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27.1	39.8	33.1	70.2	24.6	33.5	41.9	87.2	100.0 (236)
유아	7.0	46.5	46.5	98.3	6.1	33.3	60.5	132.8	100.0 (114)
$\chi^2(df)/t$	19.620(2)***			-3.5***	19.595(2)***			-4.2***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9.3	38.0	32.7	66.8	25.3	32.7	42.0	87.0	100.0 (150)
한부모 가정	12.5	51.0	36.5	85.5	10.4	35.4	54.2	109.9	100.0 ( 96)
미혼모 가정	15.4	39.4	45.2	91.9	16.3	32.7	51.0	116.5	100.0 (104)
$\chi^2(df)/F$	15.210(4)**			4.3*	9.640(4)*			3.8*	
학력									
고졸 이하	14.1	39.8	46.1	96.0	14.1	32.0	53.9	117.3	100.0 (128)
대졸 이상	24.3	43.2	32.4	69.8	21.2	34.2	44.6	93.3	100.0 (222)
$\chi^2(df)/t$	8.428(2)*			3.2**	3.794(2)			2.3*	
지역 구분									
수도권	17.8	48.2	34.0	75.1	13.1	38.2	48.7	101.8	100.0 (191)
비수도권	23.9	34.6	41.5	84.5	25.2	27.7	47.2	102.3	100.0 (159)
$\chi^2(df)/t$	6.673(2)*			-1.2	9.734(2)**			-0.1	
수급자 여부									
해당	15.1	42.8	42.2	87.6	15.7	28.9	55.4	114.0	100.0 (166)
비해당	25.5	41.3	33.2	71.9	21.2	37.5	41.3	91.2	100.0 (184)
$\chi^2(df)/t$	6.602(2)*			2.0*	6.986(2)*			2.3*	

\*  $p < .05$ , \*\*  $p < .01$ , \*\*\*  $p < .001$

#### 4)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은 주중 평균 22.6분, 주말 평균 30.5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이것은 자녀 연령, 가정유형, 양육자 연령, 학력, 수급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게임에 보내는 시간은 다른 두 가정 유형

에 비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비수급자 가정의 자녀에 비해 주중의 게임 이용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2〉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계(수)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평균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평균	
전체	58.6	22.0	19.4	22.6	56.0	17.1	26.9	30.5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68.2	17.8	14.0	15.8	65.7	15.3	19.1	21.9	100.0 (236)
유아	38.6	30.7	30.7	36.8	36.0	21.1	43.0	48.2	100.0 (114)
$\chi^2(df)/t$	28.395(2)***			-3.4***	29.995(2)***			-3.8***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0.7	18.7	10.7	14.1	66.7	15.3	18.0	22.5	100.0 (150)
한부모 가정	32.3	29.2	38.5	40.6	31.3	15.6	53.1	53.6	100.0 ( 96)
미혼모 가정	65.4	20.2	14.4	18.3	63.5	21.2	15.4	20.7	100.0 (104)
$\chi^2(df)/F$	44.363(4)***			10.6***	50.116(4)***			13.4***	
양육자 연령									
20대	68.9	16.4	14.8	13.8	65.6	18.0	16.4	18.4	100.0 ( 61)
30대	58.2	23.5	18.3	21.5	55.4	16.9	27.7	31.0	100.0 (213)
40대 이상	51.3	22.4	26.3	32.9	50.0	17.1	32.9	38.8	100.0 ( 76)
$\chi^2(df)/F$	5.554(4)			3.1*	5.111(4)			2.5	
학력									
고졸 이하	53.9	20.3	25.8	29.2	50.0	18.0	32.0	38.1	100.0 (128)
대졸 이상	61.3	23.0	15.8	18.8	59.5	16.7	23.9	26.1	100.0 (222)
$\chi^2(df)/t$	5.203(2)			2.0*	3.389(2)			2.0*	
지역 구분									
수도권	52.9	26.7	20.4	22.5	52.4	19.4	28.3	30.9	100.0 (191)
비수도권	65.4	16.4	18.2	22.8	60.4	14.5	25.2	30.0	100.0 (159)
$\chi^2(df)/t$	6.762(2)*			-0.1	2.529(2)			0.1	
수급자 여부									
해당	51.2	23.5	25.3	29.4	50.6	18.1	31.3	36.9	100.0 (166)
비해당	65.2	20.7	14.1	16.5	60.9	16.3	22.8	24.7	100.0 (184)
$\chi^2(df)/t$	8.851(2)*			2.6*	4.149(2)			2.1*	

\*  $p < .05$ , \*\*  $p < .01$ , \*\*\*  $p < .001$

### 5)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최초시기

자녀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최초시기는 만 1세의 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초기 영상 노출 시기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유형, 수급자 여부,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영상 시청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26%이었던 반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각각 6.3%, 9.6%에 불과했다.

〈표 III-4-13〉 자녀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최초 시기

단위: %(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용한 적 없다	계(수)
전체	17.4	32.9	19.7	10.3	4.0	15.7	100.0 (171)
자녀 연령							
영아	22.5	39.0	14.0	2.5	0.0	22.0	100.0 ( 91)
유아	7.0	20.2	31.6	26.3	12.3	2.6	100.0 ( 80)
$\chi^2(df)$			120.497(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1.3	26.0	16.0	7.3	3.3	26.0	100.0 ( 54)
한부모 가정	14.6	36.5	19.8	16.7	6.3	6.3	100.0 ( 56)
미혼모 가정	14.4	39.4	25.0	8.7	2.9	9.6	100.0 ( 61)
$\chi^2(df)$			33.789(10)***				
수급자 여부							
해당	16.9	38.0	21.7	10.8	4.2	8.4	100.0 ( 91)
비해당	17.9	28.3	17.9	9.8	3.8	22.3	100.0 ( 80)
$\chi^2(df)$			13.958(5)*				

\*  $p < .05$ , \*\*  $p < .01$ , \*\*\*  $p < .001$

## 5.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와 요구

다음에서는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이용(수혜)여부 및 도움 정도와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 보육 및 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육아지원정책을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3가지 유형에 관련된 전반적인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이용 여부와 도움 정도 등을 살펴본 후, 각 지원 정책 유형별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거 지원 및 의료지원 관련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등을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원제도와 관련된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가.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 전반적인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육아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영유아 보육 및 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시간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교육료와 같은 비용 지원 관련 제도 경험이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이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출산 후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아이돌봄 서비스나 육아종합센터 이용 경험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2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비용지원과 서비스 및 인프라지원 제도에 비해 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지원을 제외한 다른 2개 유형의 정책과 제도의 활용 비율은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가 신생아 산모도우미 34.0%로 전반적으로 이용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를 이용한 응답자의 경우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3.9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4.3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보육 및 돌봄 분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비용 지원	아동수당	97.1	1.4	1.4	100.0 (350)	4.4	(340)
	가정양육수당	71.4	21.1	7.4	100.0 (350)	4.3	(250)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료	60.6	34.0	5.4	100.0 (350)	4.6	(212)
	시간연장형 보육료	8.9	82.6	8.6	100.0 (350)	4.3	(31)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34.0	56.0	10.0	100.0 (350)	4.6	(119)
	아이돌봄서비스	18.3	74.0	7.7	100.0 (350)	4.4	(64)
	육아종합지원센터	14.0	75.1	10.9	100.0 (350)	3.9	(49)
시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21.1	72.3	6.6	100.0 (350)	4.4	(74)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14.3	77.1	8.6	100.0 (350)	4.3	(50)
	육아휴직제도	14.6	78.3	7.1	100.0 (350)	4.3	(5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6.9	84.9	8.3	100.0 (350)	4.5	(24)
	시차출퇴근(탄력근로제)	4.9	86.6	8.6	100.0 (350)	4.3	(17)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나) 조손 빈곤가정의 육아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조손가정에서의 영유아 보육 및 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시간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교육료와 같은 비용 지원 관련 제도에 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를 이용한 응답자의 경우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모두 4.3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조손가정의 보육 및 돌봄 분야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정도	(수)
비용 지원	아동수당	91.7	-	8.3	100.0 (24)	4.3	(22)
	가정양육수당	33.3	50.0	16.7	100.0 (24)	4.4	(8)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료	91.7	8.3	-	100.0 (24)	4.7	(22)
	시간연장형 보육료	8.3	83.3	8.3	100.0 (24)	4.5	(2)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8.3	83.3	8.3	100.0 (24)	5.0	(2)
	육아종합지원센터	8.3	70.8	20.8	100.0 (24)	5.0	(2)

주: 만족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비용 지원 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육아지원정책 중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과 같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주요변인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아동수당

양육지원제도 중 아동수당은 대다수인 97.1%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도움 정도 역시 5점 척도에 평균 4.4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3〉 아동수당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만족도	(수)
전체	97.1	1.4	1.4	100.0 (350)	4.4	(340)
자녀 연령						
영아	96.2	2.1	1.7	100.0 (236)	4.4	(227)
유아	99.1	0.0	0.9	100.0 (114)	4.4	(113)
$\chi^2(df)/t$		2.843(2)			-0.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98.0	0.7	1.3	100.0 (150)	4.4	(147)
한부모 가정	94.8	3.1	2.1	100.0 ( 96)	4.3	( 91)
미혼모 가정	98.1	1.0	1.0	100.0 (104)	4.5	(102)
$\chi^2(df)/F$		3.234(4)			0.8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아동수당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67.1%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6.8%로 가장 낮았다. 절반 이상의 빈곤가정에서 아동수당이 주로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비용 외에도 영유아 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I-5-4〉 아동수당 지출 항목(1+2순위)

단위: %(명), 점

구분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개인유지비	저축 등 금융상품	기타	(수)
전체	67.1	10.0	22.6	32.1	6.8	36.2	23.2	2.1	(350)
자녀 연령									
영아	64.3	11.5	25.6	26.4	5.7	41.9	22.5	2.2	(236)
유아	72.6	7.1	16.8	43.4	8.8	24.8	24.8	1.8	(11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62.6	9.5	26.5	22.4	4.8	42.9	29.3	2.0	(150)
한부모 가정	71.4	9.9	23.1	42.9	11.0	29.7	11.0	1.1	( 96)
미혼모 가정	69.6	10.8	16.7	36.3	5.9	32.4	25.5	2.9	(104)
양육자 연령									
20대	65.0	10.0	26.7	28.3	8.3	35.0	25.0	1.7	( 61)
30대	68.6	8.7	22.7	31.9	4.8	36.7	24.2	2.4	(213)
40대 이상	64.4	13.7	19.2	35.6	11.0	35.6	19.2	1.4	( 76)

구분	식비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개인 유지비	저축 등 금융상품	기타	(수)
학력									
고졸 이하	75.0	9.7	19.4	37.1	4.0	34.7	18.5	1.6	(128)
대졸 이상	62.5	10.2	24.5	29.2	8.3	37.0	25.9	2.3	(222)
지역 구분									
수도권	67.2	11.3	22.0	33.9	7.5	34.9	21.5	1.6	(191)
비수도권	66.9	8.4	23.4	29.9	5.8	37.7	25.3	2.6	(159)
수급자 여부									
해당	70.2	11.2	20.5	41.0	6.8	31.7	16.1	2.5	(166)
비해당	64.2	8.9	24.6	24.0	6.7	40.2	29.6	1.7	(184)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71.4%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3점으로 보고되었다. 이 역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5〉 가정양육수당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71.4	21.1	7.4	100.0 (350)	4.3	(250)
자녀 연령						
영아	73.7	17.8	8.5	100.0 (236)	4.3	(174)
유아	66.7	28.1	5.3	100.0 (114)	4.3	( 76)
$\chi^2(df)/t$		5.441(2)			0.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6.0	14.7	9.3	100.0 (150)	4.4	(114)
한부모 가정	63.5	30.2	6.3	100.0 ( 96)	4.3	( 61)
미혼모 가정	72.1	22.1	5.8	100.0 (104)	4.2	( 75)
$\chi^2(df)/F$		9.333(4)			1.5	
지역 구분						
수도권	67.0	26.7	6.3	100.0 (191)	4.3	(128)
비수도권	76.7	14.5	8.8	100.0 (159)	4.4	(122)
$\chi^2(df)/t$		8.034(2)*			-0.6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료 지원

보육·교육료 지원은 60.6%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여 위의 제도들에 비해 이용률은 높지 않았으나, 도움 정도는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보육·교육료 지원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60.6	34.0	5.4	100.0 (350)	4.6	(212)
자녀 연령						
영아	47.5	46.2	6.4	100.0 (236)	4.6	(112)
유아	87.7	8.8	3.5	100.0 (114)	4.6	(100)
$\chi^2(df)/t$		53.368(2)***			0.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53.3	41.3	5.3	100.0 (150)	4.6	( 80)
한부모 가정	70.8	25.0	4.2	100.0 ( 96)	4.5	( 68)
미혼모 가정	61.5	31.7	6.7	100.0 (104)	4.6	( 64)
$\chi^2(df)/F$		8.409(4)			0.6	
양육자 연령						
20대	57.4	41.0	1.6	100.0 ( 61)	4.7	( 35)
30대	59.2	36.2	4.7	100.0 (213)	4.6	(126)
40대 이상	67.1	22.4	10.5	100.0 ( 76)	4.4	( 51)
$\chi^2(df)/F$		10.361(4)*			2.4	
지역 구분						
수도권	68.1	25.7	6.3	100.0 (191)	4.6	(130)
비수도권	51.6	44.0	4.4	100.0 (159)	4.5	( 82)
$\chi^2(df)/t$		13.073(2)**			1.2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라)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8.9%만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여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는 평균 4.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가정의 도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8.9	82.6	8.6	100.0 (350)	4.3	(31)
자녀 연령						
영아	6.8	83.1	10.2	100.0 (236)	4.1	(16)
유아	13.2	81.6	5.3	100.0 (114)	4.5	(15)
$\chi^2(df)/t$		5.710(2)			-1.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6.7	85.3	8.0	100.0 (150)	4.2	(10)
한부모 가정	10.4	82.3	7.3	100.0 (96)	4.2	(10)
미혼모 가정	10.6	78.8	10.6	100.0 (104)	4.5	(11)
$\chi^2(df)/F$		2.466(4)			0.3	
지역 구분						
수도권	9.4	83.8	6.8	100.0 (191)	4.7	(18)
비수도권	8.2	81.1	10.7	100.0 (159)	3.8	(13)
$\chi^2(df)/t$		1.754(2)			3.1**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2)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 지원 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양육지원제도 중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과 같은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가)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은 34.0%가 수혜 경험이 있었으며 도움 정도는 4.6점으로 매우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미혼모가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는 경우가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이나 한부모 가정의 산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34.0	56.0	10.0	100.0 (350)	4.6	(119)
자녀 연령						
영아	37.7	51.7	10.6	100.0 (236)	4.5	( 89)
유아	26.3	64.9	8.8	100.0 (114)	4.6	( 30)
$\chi^2(df)/t$		5.589(2)			-0.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5.3	52.7	12.0	100.0 (150)	4.6	( 53)
한부모 가정	37.5	55.2	7.3	100.0 ( 96)	4.6	( 36)
미혼모 가정	28.8	61.5	9.6	100.0 (104)	4.4	( 30)
$\chi^2(df)/F$		3.434(4)			0.7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18.3%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움 정도는 4.4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에 관한 홍보가 요구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특히 일반 빈곤가정, 양육자가 대졸 이상인 가정, 비수급자 가정의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수급자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III-5-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18.3	74.0	7.7	100.0 (350)	4.4	(64)
자녀 연령						
영아	14.0	77.1	8.9	100.0 (236)	4.5	(33)
유아	27.2	67.5	5.3	100.0 (114)	4.3	(31)
$\chi^2(df)/t$		9.605(2)**			1.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0.0	80.7	9.3	100.0 (150)	4.8	(15)
한부모 가정	20.8	72.9	6.3	100.0 ( 96)	4.5	(20)
미혼모 가정	27.9	65.4	6.7	100.0 (104)	4.1	(29)
$\chi^2(df)/F$		14.079(4)**			3.9*(a)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학력						
고졸 이하	22.7	68.0	9.4	100.0 (128)	4.2	(29)
대졸 이상	15.8	77.5	6.8	100.0 (222)	4.6	(35)
$\chi^2(df)/t$		3.822(2)			-2.1*	
수급자 여부						
해당	23.5	69.3	7.2	100.0 (166)	4.2	(39)
비해당	13.6	78.3	8.2	100.0 (184)	4.7	(25)
$\chi^2(df)/t$		5.732(2)			-3.1**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4.0%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3.9점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도움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가정의 주거지역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였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잘 알지 못함에 기인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표 III-5-1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14.0	75.1	10.9	100.0 (350)	3.9	(49)
자녀 연령						
영아	14.4	74.2	11.4	100.0 (236)	4.1	(34)
유아	13.2	77.2	9.6	100.0 (114)	3.6	(15)
$\chi^2(df)/t$		0.407(2)			1.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2.7	76.7	10.7	100.0 (150)	3.9	(19)
한부모 가정	13.5	75.0	11.5	100.0 ( 96)	3.9	(13)
미혼모 가정	16.3	73.1	10.6	100.0 (104)	3.9	(17)
$\chi^2(df)/F$		0.764(4)			0.0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3) 시간 지원 정책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21.1%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률이 낮은 것에 비해 도움 정도는 평균 4.4점으로 높은 편으로, 출산전후휴가 이용의 보편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대졸 이상 가정의 도움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에 있어서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이용 경험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 및 비수도권과 비수급자 가정에서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고용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미혼모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빈곤가정의 출산전후휴가 이용이 대략 30% 이하로 저조한 편이며, 한부모 가정도 21.9%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정 어머니 직업의 특성이나 고용형태와 맞물려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5-11〉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21.1	72.3	6.6	100.0 (350)	4.4	(74)
자녀 연령						
영아	22.9	71.2	5.9	100.0 (236)	4.5	(54)
유아	17.5	74.6	7.9	100.0 (114)	4.4	(20)
$\chi^2(df)/t$		1.607(2)			0.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0.7	62.7	6.7	100.0 (150)	4.5	(46)
한부모 가정	21.9	76.0	2.1	100.0 ( 96)	4.4	(21)
미혼모 가정	6.7	82.7	10.6	100.0 (104)	4.3	( 7)
$\chi^2(df)/F$		25.826(4)***			0.3	
학력						
고졸 이하	13.3	78.1	8.6	100.0 (128)	4.0	(17)
대졸 이상	25.7	68.9	5.4	100.0 (222)	4.6	(57)
$\chi^2(df)/t$		8.107(2)*			-2.8**	
지역 구분						
수도권	16.8	79.1	4.2	100.0 (191)	4.5	(32)
비수도권	26.4	64.2	9.4	100.0 (159)	4.4	(42)
$\chi^2(df)/t$		10.131(2)**			0.2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수급자 여부						
해당	8.4	83.7	7.8	100.0 (166)	4.2	(14)
비해당	32.6	62.0	5.4	100.0 (184)	4.5	(60)
$\chi^2(df)/t$	30.612(2)***				-1.2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4.3%만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매우 낮았으나, 도움 정도는 4.3점으로 높았다. 아직까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이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에 따른 도움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이용 경험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대졸 이상, 비수도권과 비수급자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2〉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14.3	77.1	8.6	100.0 (350)	4.3	(50)
자녀 연령						
영아	17.8	73.7	8.5	100.0 (236)	4.4	(42)
유아	7.0	84.2	8.8	100.0 (114)	3.9	( 8)
$\chi^2(df)/t$	7.355(2)*				1.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8.0	67.3	4.7	100.0 (150)	4.3	(42)
한부모 가정	8.3	80.2	11.5	100.0 ( 96)	4.3	( 8)
미혼모 가정	0.0	88.5	11.5	100.0 (104)	-	-
$\chi^2(df)/F$	45.372(4)***				0.0	
양육자 연령						
20대	6.6	78.7	14.8	100.0 ( 61)	3.5	( 4)
30대	17.8	76.1	6.1	100.0 (213)	4.3	(38)
40대 이상	10.5	78.9	10.5	100.0 ( 76)	4.5	( 8)
$\chi^2(df)/F$	9.843(4)*				1.7(a)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학력						
고졸 이하	3.9	82.0	14.1	100.0 (128)	4.0	( 5)
대졸 이상	20.3	74.3	5.4	100.0 (222)	4.3	(45)
$\chi^2(df)/t$		22.942(2)***			-0.7	
지역 구분						
수도권	9.9	83.2	6.8	100.0 (191)	4.2	(19)
비수도권	19.5	69.8	10.7	100.0 (159)	4.4	(31)
$\chi^2(df)/t$		9.097(2)*			-0.7	
수급자 여부						
해당	1.8	85.5	12.7	100.0 (166)	3.7	( 3)
비해당	25.5	69.6	4.9	100.0 (184)	4.3	(47)
$\chi^2(df)/t$		43.435(2)***			-1.2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역시 14.6%만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 정도는 4.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도움 정도의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육아휴직 이용 여부에 있어서는 미혼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가 4.8% 정도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비수도권과 비수급자 가정에서 육아휴직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직업 특성이나 고용 형태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5-13〉 육아휴직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14.6	78.3	7.1	100.0 (350)	4.3	(51)
자녀 연령						
영아	14.4	79.7	5.9	100.0 (236)	4.3	(34)
유아	14.9	75.4	9.6	100.0 (114)	4.5	(17)
$\chi^2(df)/t$		1.675(2)			-0.7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6.0	77.3	6.7	100.0 (150)	4.3	(24)
한부모 가정	22.9	72.9	4.2	100.0 ( 96)	4.3	(22)
미혼모 가정	4.8	84.6	10.6	100.0 (104)	4.4	( 5)
$\chi^2(df)/F$		15.461(4)**			0.0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학력						
고졸 이하	7.0	82.8	10.2	100.0 (128)	3.9	( 9)
대졸 이상	18.9	75.7	5.4	100.0 (222)	4.4	(42)
$\chi^2(df)/t$		10.968(2)**			-1.5	
지역 구분						
수도권	13.1	82.7	4.2	100.0 (191)	4.6	(25)
비수도권	16.4	73.0	10.7	100.0 (159)	4.1	(26)
$\chi^2(df)/t$		6.829(2)*			1.6	
수급자 여부						
해당	7.8	83.1	9.0	100.0 (166)	4.2	(13)
비해당	20.7	73.9	5.4	100.0 (184)	4.4	(38)
$\chi^2(df)/t$		12.377(2)**			-0.4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6.9%밖에 되지 않아 이 용률이 매우 낮았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5점으로 매우 높았다. 대졸 이상 응답자의 도움 정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표 III-5-1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6.9	84.9	8.3	100.0 (350)	4.5	(340)
자녀 연령						
영아	8.1	85.2	6.8	100.0 (236)	4.5	(227)
유아	4.4	84.2	11.4	100.0 (114)	4.6	(113)
$\chi^2(df)/t$		3.497(2)			-0.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0.7	81.3	8.0	100.0 (150)	4.5	(147)
한부모 가정	6.3	87.5	6.3	100.0 ( 96)	4.3	( 91)
미혼모 가정	1.9	87.5	10.6	100.0 (104)	5.0	(102)
$\chi^2(df)/F$		8.457(4)			0.4	
학력						
고졸 이하	4.7	84.4	10.9	100.0 (128)	3.8	(124)
대졸 이상	8.1	85.1	6.8	100.0 (222)	4.7	(216)
$\chi^2(df)/t$		3.104(2)			-2.2*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지역 구분						
수도권	6.3	89.5	4.2	100.0 (191)	4.5	(186)
비수도권	7.5	79.2	13.2	100.0 (159)	4.5	(154)
$\chi^2(df)/t$		9.802(2)**			0.0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시차출근제

시차출퇴근(탄력근로제)의 이용률은 4.9%에 그쳐 매우 낮았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3점으로 높았다. 선도적으로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하여 기업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양육자의 도움 정도가 더 높았다.

〈표 III-5-15〉 시차출퇴근(탄력근로제)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4.9	86.6	8.6	100.0 (350)	4.3	(17)
자녀 연령						
영아	5.1	87.3	7.6	100.0 (236)	4.4	(12)
유아	4.4	85.1	10.5	100.0 (114)	4.0	( 5)
$\chi^2(df)/t$		0.874(2)			0.9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8.0	85.3	6.7	100.0 (150)	4.4	(12)
한부모 가정	5.2	87.5	7.3	100.0 ( 96)	4.0	( 5)
미혼모 가정	0.0	87.5	12.5	100.0 (104)	-	( 0)
$\chi^2(df)/F$		10.864(4)*			0.8	
수급자 여부						
해당	1.2	87.3	11.4	100.0 (166)	3.0	( 2)
비해당	8.2	85.9	6.0	100.0 (184)	4.5	(15)
$\chi^2(df)/t$		11.738(2)**			-7.6***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주거 관련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다음에서 주택지원,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본 후, 각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관하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1)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정책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주거 관련 정책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

주택지원,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수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도움 정도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 4.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6〉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주거 관련 지원	주택 지원	40.6	56.0	3.4	100.0 (350)	4.6	(142)
	주거 관련 대출 지원	24.6	71.1	4.3	100.0 (350)	4.3	(86)
	주거환경 개선 지원	7.4	83.7	8.9	100.0 (350)	4.5	(26)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70.0	27.4	2.6	100.0 (350)	4.5	(245)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나) 조손 빈곤가정의 주거 관련 정책 이용여부 및 만족도

조손가정에서의 주택지원,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정책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수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 관련 대출 지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 4.5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7〉 조손가정의 전반적인 주거 관련 지원 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정도	(수)
주거 관련 지원	주택 지원	37.5	50.0	12.5	100.0 (24)	4.9	(9)
	주거 관련 대출 지원	12.5	70.8	16.7	100.0 (24)	4.7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16.7	70.8	12.5	100.0 (24)	4.8	(4)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70.8	16.7	12.5	100.0 (24)	4.5	(17)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2) 주택지원

주택지원은 40.6%가 수혜 경험이 있었으며, 56.0%가 없다고 보고하여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경우는 3.4%로 현저히 적었다.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6점으로 높았다.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및 수급자 가정의 주택지원 수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8〉 주택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40.6	56.0	3.4	100.0 (350)	4.6	(142)
자녀 연령						
영아	34.7	60.6	4.7	100.0 (236)	4.5	( 82)
유아	52.6	46.5	0.9	100.0 (114)	4.7	( 60)
$\chi^2(df)/t$		12.001(2)**			-1.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0.7	84.0	5.3	100.0 (150)	4.4	( 16)
한부모 가정	60.4	36.5	3.1	100.0 ( 96)	4.6	( 58)
미혼모 가정	65.4	33.7	1.0	100.0 (104)	4.6	( 68)
$\chi^2(df)/F$		98.445(4)***			1.3(a)	
학력						
고졸 이하	55.5	41.4	3.1	100.0 (128)	4.6	( 71)
대졸 이상	32.0	64.4	3.6	100.0 (222)	4.5	( 71)
$\chi^2(df)/t$		18.768(2)***			1.0	
지역 구분						
수도권	45.5	53.4	1.0	100.0 (191)	4.6	( 87)
비수도권	34.6	59.1	6.3	100.0 (159)	4.5	( 55)
$\chi^2(df)/t$		10.029(2)**			0.9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수급자 여부						
해당	68.7	30.1	1.2	100.0 (166)	4.6	(114)
비해당	15.2	79.3	5.4	100.0 (184)	4.4	( 28)
$\chi^2(df)/t$	103.787(2)***				1.8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3)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주거 관련 대출 지원은 24.6%가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3점으로 나타났다.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본 제도의 도움 정도가 더 높았다.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수혜 여부는 한부모나 미혼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상과 비수급자 가정에서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수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9〉 주거 관련 대출 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24.6	71.1	4.3	100.0 (350)	4.3	(86)
자녀 연령						
영아	29.2	65.3	5.5	100.0 (236)	4.2	(69)
유아	14.9	83.3	1.8	100.0 (114)	4.6	(17)
$\chi^2(df)/t$	12.479(2)**				-2.2*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5.3	60.0	4.7	100.0 (150)	4.3	(53)
한부모 가정	21.9	74.0	4.2	100.0 ( 96)	4.2	(21)
미혼모 가정	11.5	84.6	3.8	100.0 (104)	4.5	(12)
$\chi^2(df)/F$	20.023(4)***				0.6	
학력						
고졸 이하	14.1	79.7	6.3	100.0 (128)	4.4	(18)
대출 이상	30.6	66.2	3.2	100.0 (222)	4.3	(68)
$\chi^2(df)/t$	12.958(2)**				0.8	
수급자 여부						
해당	13.9	82.5	3.6	100.0 (166)	4.5	(23)
비해당	34.2	60.9	4.9	100.0 (184)	4.2	(63)
$\chi^2(df)/t$	20.844(2)***				1.6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7.4%만이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움 정도는 4.5점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가정의 도움 정도가 높아, 주거환경 개선의 수요가 높은 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수혜 경험은 유아가 있는 가정,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가정, 수급자 가정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이 더 열악한 가정에 지원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주택 관련 대출 지원은 빈곤가정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좋은 가정이 더 많은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0〉 주거환경 개선 지원 수혜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7.4	83.7	8.9	100.0 (350)	4.5	(26)
자녀 연령						
영아	5.5	83.9	10.6	100.0 (236)	4.4	(13)
유아	11.4	83.3	5.3	100.0 (114)	4.5	(13)
$\chi^2(df)/t$		6.064(2)*			-0.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0.7	90.0	9.3	100.0 (150)	2.0	( 1)
한부모 가정	12.5	79.2	8.3	100.0 ( 96)	4.4	(12)
미혼모 가정	12.5	78.8	8.7	100.0 (104)	4.7	(13)
$\chi^2(df)/F$		17.470(4)**			8.0**	
학력						
고졸 이하	10.9	78.9	10.2	100.0 (128)	4.8	(14)
대졸 이상	5.4	86.5	8.1	100.0 (222)	4.1	(12)
$\chi^2(df)/t$		4.287(2)			2.3*	
수급자 여부						
해당	13.9	77.7	8.4	100.0 (166)	4.6	(23)
비해당	1.6	89.1	9.2	100.0 (184)	3.3	( 3)
$\chi^2(df)/t$		18.980(2)***			1.4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5)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은 70.0%로 많은 비율이 수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들의 도움 정도 역시 4.5점으로 높았다. 미혼모 가정, 수도권, 수급자 가정의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수혜 경험의 경우, 유아 가정,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고졸 이하, 비수도권과 수급자 가정에서 더 수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1〉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70.0	27.4	2.6	100.0 (350)	4.5	(245)
자녀 연령						
영아	68.2	28.8	3.0	100.0 (236)	4.4	(161)
유아	73.7	24.6	1.8	100.0 (114)	4.6	( 84)
$\chi^2(df)/t$		1.273(2)			-1.7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61.3	35.3	3.3	100.0 (150)	4.3	( 92)
한부모 가정	75.0	20.8	4.2	100.0 ( 96)	4.4	( 72)
미혼모 가정	77.9	22.1	0.0	100.0 (104)	4.6	( 81)
$\chi^2(df)/F$		12.849(4)*			4.4*	
학력						
고졸 이하	78.1	19.5	2.3	100.0 (128)	4.5	(100)
대졸 이상	65.3	32.0	2.7	100.0 (222)	4.4	(145)
$\chi^2(df)/t$		6.532(2)*			0.3	
지역 구분						
수도권	67.5	31.9	0.5	100.0 (191)	4.5	(129)
비수도권	73.0	22.0	5.0	100.0 (159)	4.4	(116)
$\chi^2(df)/t$		10.337(2)**			2.0*	
수급자 여부						
해당	82.5	16.9	0.6	100.0 (166)	4.6	(137)
비해당	58.7	37.0	4.3	100.0 (184)	4.3	(108)
$\chi^2(df)/t$		24.683(2)***			3.2**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다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의료급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본 후, 각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 정책에 관하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1) 전반적인 영유아 의료관련 지원 제도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 영유아 의료 제도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의료급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각 94%와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해당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영유아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10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유아에 대한 방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사업의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2~4.7점으로 전반적으로 영유아 의료관련 지원 제도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2〉 건강 및 의료 관련 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영유아 건강검진	94.0	4.6	1.4	100.0 (350)	4.4	(32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6.3	68.3	15.4	100.0 (350)	4.2	(57)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3.1	69.4	17.4	100.0 (350)	4.3	(4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6.3	8.0	5.7	100.0 (350)	4.6	(30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32.9	48.6	18.6	100.0 (350)	4.4	(115)
의료급여	50.3	35.7	14.0	100.0 (350)	4.7	(17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4.9	68.0	17.1	100.0 (350)	4.2	(52)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나) 조손 빈곤가정 영유아 의료관련 제도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

조손가정에서의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의료급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같은 전반적인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각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94%와 86.3%였던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또한, 해당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영유아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10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유아에 대한 방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2~4.7점으로 전반적으로 영유아 의료관련 지원 제도에 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3〉 조손가정의 건강 및 의료 관련 지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정도	(수)
영유아 건강검진	66.7	16.7	16.7	100.0 (24)	4.4	(1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5.0	37.5	37.5	100.0 (24)	3.8	(6)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6.7	41.7	41.7	100.0 (24)	4.8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66.7	12.5	20.8	100.0 (24)	4.7	(1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20.8	37.5	41.7	100.0 (24)	4.4	(5)
의료급여	62.5	8.3	29.2	100.0 (24)	4.7	(1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62.5	37.5	100.0 (24)	-	-

주: 만족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94.0%가 수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도움 정도 또한 평균 4.4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24〉 영유아 건강검진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94.0	4.6	1.4	100.0 (350)	4.4	(329)
자녀 연령						
영아	92.8	5.5	1.7	100.0 (236)	4.4	(219)
유아	96.5	2.6	0.9	100.0 (114)	4.3	(110)
$\chi^2(df)/t$		1.863(2)			0.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92.7	4.7	2.7	100.0 (150)	4.4	(139)
한부모 가정	93.8	6.3	0.0	100.0 ( 96)	4.3	( 90)
미혼모 가정	96.2	2.9	1.0	100.0 (104)	4.4	(100)
$\chi^2(df)/F$		4.462(4)			0.5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16.3% 정도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도움 정도는 4.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도움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2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16.3	68.3	15.4	100.0 (350)	4.2	(57)
자녀 연령						
영아	16.5	65.7	17.8	100.0 (236)	4.3	(39)
유아	15.8	73.7	10.5	100.0 (114)	4.1	(18)
$\chi^2(df)/t$		3.381(2)			1.1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8.7	61.3	20.0	100.0 (150)	4.5	(28)
한부모 가정	19.8	70.8	9.4	100.0 ( 96)	3.9	(19)
미혼모 가정	9.6	76.0	14.4	100.0 (104)	4.2	(10)
$\chi^2(df)/F$		10.518(4)*			2.2	
수급자 여부						
해당	15.1	74.1	10.8	100.0 (166)	4.1	(25)
비해당	17.4	63.0	19.6	100.0 (184)	4.4	(32)
$\chi^2(df)/t$		6.155(2)*			-1.3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4) 만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만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13.1%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3점으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도움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26〉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13.1	69.4	17.4	100.0 (350)	4.3	(46)
자녀 연령						
영아	14.8	66.9	18.2	100.0 (236)	4.3	(35)
유아	9.6	74.6	15.8	100.0 (114)	4.4	(11)
$\chi^2(df)/t$		2.472(2)			-0.3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4.0	65.3	20.7	100.0 (150)	4.4	(21)
한부모 가정	11.5	77.1	11.5	100.0 (96)	4.1	(11)
미혼모 가정	13.5	68.3	18.3	100.0 (104)	4.3	(14)
$\chi^2(df)/F$		4.400(4)			0.5	
학력						
고졸 이하	13.3	71.1	15.6	100.0 (128)	4.6	(17)
대졸 이상	13.1	68.5	18.5	100.0 (222)	4.1	(29)
$\chi^2(df)/t$		0.460(2)			2.1*	
지역 구분						
수도권	9.9	74.9	15.2	100.0 (191)	4.2	(19)
비수도권	17.0	62.9	20.1	100.0 (159)	4.4	(27)
$\chi^2(df)/t$		6.275(2)*			-0.6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86.3%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6점으로 매우 높았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27〉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86.3	8.0	5.7	100.0 (350)	4.6	(302)
자녀 연령						
영아	84.3	9.7	5.9	100.0 (236)	4.6	(199)
유아	90.4	4.4	5.3	100.0 (114)	4.7	(103)
$\chi^2(df)/t$		3.144(2)			-0.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83.3	8.0	8.7	100.0 (150)	4.6	(125)
한부모 가정	89.6	9.4	1.0	100.0 (96)	4.7	(86)
미혼모 가정	87.5	6.7	5.8	100.0 (104)	4.7	(91)
$\chi^2(df)/F$		6.683(4)			0.6	
지역 구분						
수도권	88.5	8.9	2.6	100.0 (191)	4.6	(169)
비수도권	83.6	6.9	9.4	100.0 (159)	4.6	(133)
$\chi^2(df)/t$		7.716(2)*			-0.1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6)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32.9%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4점으로 높았다. 본 검사 지원에 관해 미혼모 가정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5-28〉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32.9	48.6	18.6	100.0 (350)	4.4	(115)
자녀 연령						
영아	35.6	43.2	21.2	100.0 (236)	4.5	(84)
유아	27.2	59.6	13.2	100.0 (114)	4.3	(31)
$\chi^2(df)/t$		8.590(2)*			1.2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32.7	42.7	24.7	100.0 (150)	4.5	(49)
한부모 가정	32.3	57.3	10.4	100.0 (96)	4.1	(31)
미혼모 가정	33.7	49.0	17.3	100.0 (104)	4.6	(35)
$\chi^2(df)/F$		9.143(4)			3.4*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지역 구분						
수도권	35.1	51.3	13.6	100.0 (191)	4.4	( 67)
비수도권	30.2	45.3	24.5	100.0 (159)	4.5	( 48)
$\chi^2(df)/t$		6.847(2)*			-0.4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7)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50.3%가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7점으로 의료지원 중에 도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유아인 경우 특히 도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9〉 의료급여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도움 정도	(수)
전체	50.3	35.7	14.0	100.0 (350)	4.7	(176)
자녀 연령						
영아	45.8	37.3	16.9	100.0 (236)	4.6	(108)
유아	59.6	32.5	7.9	100.0 (114)	4.8	( 68)
$\chi^2(df)/t$		7.952(2)*			-2.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26.0	48.7	25.3	100.0 (150)	4.6	( 39)
한부모 가정	61.5	31.3	7.3	100.0 ( 96)	4.6	( 59)
미혼모 가정	75.0	21.2	3.8	100.0 (104)	4.8	( 78)
$\chi^2(df)/F$		70.871(4)***			2.1	
학력						
고졸 이하	62.5	25.8	11.7	100.0 (128)	4.7	( 80)
대졸 이상	43.2	41.4	15.3	100.0 (222)	4.7	( 96)
$\chi^2(df)/t$		12.312(2)**			-0.1	
수급자 여부						
해당	75.3	19.3	5.4	100.0 (166)	4.8	(125)
비해당	27.7	50.5	21.7	100.0 (184)	4.5	( 51)
$\chi^2(df)/t$		79.779(2)***			1.9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는 14.9%만이 수혜 경험이 있었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4.2점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도움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3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단위: %(명), 점	
					도움 정도	(수)
전체	14.9	68.0	17.1	100.0 (350)	4.2	(52)
자녀 연령						
영아	16.9	64.0	19.1	100.0 (236)	4.3	(40)
유아	10.5	76.3	13.2	100.0 (114)	4.1	(12)
$\chi^2(df)/t$		5.420(2)			0.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17.3	62.7	20.0	100.0 (150)	4.4	(26)
한부모 가정	14.6	74.0	11.5	100.0 ( 96)	4.1	(14)
미혼모 가정	11.5	70.2	18.3	100.0 (104)	4.1	(12)
$\chi^2(df)/F$		5.198(4)			0.7	
지역 구분						
수도권	13.1	73.8	13.1	100.0 (191)	4.2	(25)
비수도권	17.0	61.0	22.0	100.0 (159)	4.3	(27)
$\chi^2(df)/t$		7.011(2)*			-0.2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 5점, 도움 됨 = 4점, 보통 = 3점, 도움 안 됨 = 2점, 전혀 도움 안 됨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 1)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육아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영유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1, 2순위 육아지원 중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35.7%, 주거지원,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제도 등이 20.0%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즉, 현금지원과 같은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제도, 의식주와 연계된 주거지원,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I-5-31〉 영유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1+2순위)

단위: %(명), 점

구분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제도	주거지원	아동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문화생활 및 놀이 지원	(수)
전체	78.6	35.7	9.4	8.0	21.7	22.0	16.0	8.6	(350)
자녀 연령									
영아	78.0	39.0	8.1	8.5	22.0	19.9	18.2	6.4	(236)
유아	79.8	28.9	12.3	7.0	21.1	26.3	11.4	13.2	(114)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6.7	40.0	3.3	11.3	21.3	21.3	20.0	6.0	(150)
한부모 가정	79.2	32.3	16.7	9.4	27.1	18.8	9.4	7.3	( 96)
미혼모 가정	80.8	32.7	11.5	1.9	17.3	26.0	16.3	13.5	(104)
양육자 연령									
20대	85.2	37.7	4.9	6.6	19.7	21.3	16.4	8.2	( 61)
30대	76.1	34.3	10.8	9.9	23.0	21.6	16.4	8.0	(213)
40대 이상	80.3	38.2	9.2	3.9	19.7	23.7	14.5	10.5	( 76)
학력									
고졸 이하	84.4	33.6	8.6	3.9	16.4	26.6	15.6	10.9	(128)
대졸 이상	75.2	36.9	9.9	10.4	24.8	19.4	16.2	7.2	(222)
지역 구분									
수도권	76.4	39.3	9.4	8.4	23.0	21.5	12.6	9.4	(191)
비수도권	81.1	31.4	9.4	7.5	20.1	22.6	20.1	7.5	(159)
수급자 여부									
해당	81.9	36.1	10.8	3.6	19.3	24.7	13.3	10.2	(166)
비해당	75.5	35.3	8.2	12.0	23.9	19.6	18.5	7.1	(184)

나) 조손 빈곤가정의 육아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을 1순위와 2순위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양육비가 79.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과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가 29.2%, 보육시설이 25.0%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육아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16.7%)로 나타났다.

〈표 III-5-32〉 조손가정의 영유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1+2순위)

단위: %(명), 점

구분	양육비	안정패적인 주거공간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비	보육시설	문화생활 및 놀이	아이돌봄 서비스	(수)
조손가정	79.2	29.2	29.2	25.0	20.8	16.7	(24)

## 2) 육아정책 제공 방식에 관한 요구

###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육아정책 제공 방식에 관한 요구

희망하는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홍보보다는 안내 책자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비율이 46.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 수급자 가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II-5-33〉 희망하는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식

단위: %(명)

구분	안내 책자 우편발송	인터넷 검색	전화 문의	보건소, 주민센터 등 비치	보육·교육 기관전달	기타	계	(수)
전체	46.9	23.4	4.0	7.4	17.4	0.9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48.3	22.9	5.1	5.9	16.9	0.8	100.0	(236)
유아	43.9	24.6	1.8	10.5	18.4	0.9	100.0	(114)
$\chi^2(df)$			4.829(5)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49.3	16.0	4.7	3.3	25.3	1.3	100.0	(150)
한부모 가정	39.6	36.5	3.1	12.5	7.3	1.0	100.0	( 96)
미혼모 가정	50.0	22.1	3.8	8.7	15.4	0.0	100.0	(104)
$\chi^2(df)$			31.956(10)***					
수급자 여부								
해당	48.8	27.7	2.4	9.0	11.4	0.6	100.0	(166)
비해당	45.1	19.6	5.4	6.0	22.8	1.1	100.0	(184)
$\chi^2(df)$			12.544(5)*					

\*  $p < .05$ , \*\*  $p < .01$ , \*\*\*  $p < .001$

나) 조손 빈곤가정의 육아정책 제공 방식에 관한 요구

조부모가 희망하는 육아정책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는 요구가 58.3%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 전달하는 것이 25.0%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인터넷의 경우 0.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손 가정의 특성상 인터넷보다는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책자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I-5-34〉 조부모가 희망하는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식

단위: %(명)

구분	안내 책자 우편발송	인터넷 검색	전화 문의	보건소, 주민센터 등 비치	보육·교육 기관전달	기타	계 (수)
조손가정	58.3	0.0	8.3	4.2	25.0	4.2	100.0 (24)

3) 현재 당면 문제에 관한 개선 요구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현재 당면 문제에 관한 개선 요구

현재 응답자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7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문제 32.6%, 취업 문제 31.4%, 양육 지식 및 방법 부족 20.6%, 가족의 건강 18.6%, 본인의 건강 13.1%, 그리고 선입견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수요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 지식 및 방법 부족의 비율 역시 높다는 결과를 통해 양육자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표 III-5-35〉 가장 큰 고민(1+2순위)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양육 지식/ 방법 부족	주택/ 주거환경 문제	선입견	(수)
전체	79.1	31.4	13.1	18.6	20.6	32.6	4.6	(350)
자녀 연령								
영아	80.5	32.6	12.7	17.4	20.8	32.6	3.4	(236)
유아	76.3	28.9	14.0	21.1	20.2	32.5	7.0	(114)

구분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양육 지식/ 방법 부족	주택/ 주거환경 문제	선입견	(수)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71.3	28.0	12.7	23.3	22.7	39.3	2.7	(150)
한부모 가정	80.2	33.3	13.5	17.7	27.1	26.0	2.1	( 96)
미혼모 가정	89.4	34.6	13.5	12.5	11.5	28.8	9.6	(104)
양육자 연령								
20대	82.0	39.3	11.5	11.5	18.0	32.8	4.9	( 61)
30대	76.1	29.1	12.7	22.1	23.5	31.5	5.2	(213)
40대 이상	85.5	31.6	15.8	14.5	14.5	35.5	2.6	( 76)
학력								
고졸 이하	85.9	33.6	13.3	12.5	17.2	32.0	5.5	(128)
대졸 이상	75.2	30.2	13.1	22.1	22.5	32.9	4.1	(222)
지역 구분								
수도권	78.0	30.4	10.5	20.4	21.5	33.0	6.3	(191)
비수도권	80.5	32.7	16.4	16.4	19.5	32.1	2.5	(159)
수급자 여부								
해당	86.7	36.7	13.3	12.0	16.3	31.3	3.6	(166)
비해당	72.3	26.6	13.0	24.5	24.5	33.7	5.4	(184)

### 나) 조손 빈곤가정의 현재 당면 문제에 관한 개선 요구

조손가정에게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양육지식 및 방법 부족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유형과 다르게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낮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고려할 수 없는 조손가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5-36〉 조부모의 가장 큰 고민(1+2순위)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어려움	양육 지식/ 방법	나의 건강	주택/ 주거 환경	가족 건강	선입견	취업	기타	(수)
조손가정	70.8	37.5	29.2	29.2	16.7	8.3	4.2	4.2	(24)

4) 자녀 양육을 위한 투자에 관한 요구

가) 조손 빈곤가정 외 빈곤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투자에 관한 요구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으로는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전·아동친화 지역으로 이사 25.1%, 학습용품 구입 12.3%, 학원 및 특별활동 10.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현재 투자되는 시간 및 자원이 매우 적다는 이전 결과와 연결하여,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확충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안전·아동친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원이나 특별활동 수강에 투자하기를 두 번째로 원하였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안전·아동친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 학원이나 특별활동 수강, 자녀 대상 발달검사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은 요구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II-5-37〉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

단위: %(명)

구분	학원/특별활동	안전·아동친화 지역 이사	학습용품 구입	발달검사/전문상담 서비스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주택 개보수	기타	계	(수)
전체	10.9	25.1	12.3	10.3	38.0	3.1	0.3	100.0	(350)
자녀 연령									
영아	7.2	29.7	13.1	10.2	36.4	3.0	0.4	100.0	(236)
유아	18.4	15.8	10.5	10.5	41.2	3.5	0.0	100.0	(114)
	$\chi^2(df)$ 16.246(6)*								
가정유형									
일반 빈곤가정	6.7	29.3	10.0	7.3	42.7	3.3	0.7	100.0	(150)
한부모 가정	15.6	17.7	12.5	16.7	37.5	0.0	0.0	100.0	( 96)
미혼모 가정	12.5	26.0	15.4	8.7	31.7	5.8	0.0	100.0	(104)
	$\chi^2(df)$ 23.267(12)*								

\*  $p < .05$ , \*\*  $p < .01$ , \*\*\*  $p < .001$

나) 조손 빈곤가정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투자에 관한 요구

손자녀에게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원이나 특별활동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3.3%),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아동친화적

인 지역으로 이사(20.8%)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낮은 부분은 여가 및 문화생활(4.2%)였는데, 이는 앞서 조손가정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빈도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 조손가정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낮은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에서는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는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시간과 비용이 허락되어도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손자녀와의 여행이나 견학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기를 가장 원한다는 것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 관련 지원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II-5-38〉 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

단위: %(명)

구분	학원/특별 활동	안전·아동친화 지역 이사	학습용품 구입	발달검사/전문상담 서비스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주택 개보수	기타	계	(수)
조손가정	33.3	20.8	8.3	16.7	4.2	16.7	0.3	100.0	(350)

## 6. 소결

영유아 자녀를 둔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자녀양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였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양육자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함의 정도가 일반 빈곤가정 양육자에 비해 높았으며, 긴급할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 및 자녀 문제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협조로 20여 명의 미혼모와의 워크숍 개최 시, 미혼모 가정의 자립과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해서 자조모임이 가장 강력한 지지와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비용 지원 등을 원하였다. 외부의 지원은 미혼모 가정의 자립에 한계가 있지만, 미혼모들끼리의 자조모임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집단이며, 자립을 이루어 낸 선배 미혼모의 조언이

가장 유용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측면에서 자조모임 지원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지원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자조모임을 더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조모임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위한 한부모상담전화, 온라인 한부모 한부모 가족 상담, 한부모가족법률상담 등을 홍보하고 내실화하여 해당 대상의 수혜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부모의 정신건강이 영유아의 전 영역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침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음을 고려할 때, 미혼모의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및 식료품비 지출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에서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 가정은 출산과 양육으로 퇴직을 경험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 경제적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미혼모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다양한 방식과 전달체계를 통해 수혜 대상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좋은 제도의 취지가 전달과정에서 희석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미혼모 가정과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건강·영양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 가정과 수급자 가정은 자녀에게 모유수유를 했던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영유아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 가정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도 생애 초기부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와 식생활 개선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지원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빈곤가정 영유아들의 문화생활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영유아들의 문화생활 경험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서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 있는 가정과 비교할 때 아동의 양육과 경제적 부양책임을 한 명의 부모가 모두 감당함으로써 인해 생기는 부담으로 한부모나 미혼모의 시간 및 돈이 상대적으

로 더 열악한 상황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한부모나 미혼모 가정의 경우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생활비 등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가정 영유아들의 일과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책 읽기와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영유아가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양부모 빈곤가정에 비해 많았으며, 게임 시간이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가 더 길었다. 한편,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영유아가 영상 시청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이 26%이었던 반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각각 6.3%, 9.6%에 불과했다.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부양 책임과 양육이라는 이중고로 인하여 자녀 영상 시청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빈곤가정의 양육지원제도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빈곤가정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육료와 같은 비용 지원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지원 외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시간 지원과 같은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의 서비스와 인프라 이용이 낮은 것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빈곤가정의 주양육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의 부족으로 인프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거 관련 지원정책에서는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수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의료 관련 지원에서는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양육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빈곤가정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을 가장 많이 원하였고,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79.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빈곤가정의 67% 정도가 아동수당을 주로 식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과도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녀 양육에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빈곤가정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힘든 문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여가 생활이나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빈곤가정 영유아 육아정책에 관한 정보를 안내 책자 우편발송을 통하여 받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빈곤가정의 가장 주요한 척도 중의 하나인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자 대상 가정 여부로 인한 여러 차원에서 결핍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 시 외부 지원이 부족하였고, 긴급할 때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양육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 자녀를 위한 장난감이나 기구 구비 부족과 채광과 통풍이 잘 안 되는 주거환경, 집안의 청결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녀의 건강 상태나 영양이 좋지 않으며 문화생활 경험도 부족하였고,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던 등과 같은 다차원에서 비수급자 가정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보다 현저히 길었다. 또한 조손가정의 외부 양육지원 지원 정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조손가정에서는 돌봄 지원 인력이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조손가정 조부모의 육체적 소진을 추정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비해 노부모의 나이가 많음에 따른 육체적 쇠진은 손자녀의 방치와도 연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조손가정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외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조손가정도 다른 빈곤가정 유형과 마찬가지로 양육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비용 문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다음 순으로 긴급 시 아이 돌봄 인력이 없음과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었다. 이를 통하여 조손가정 조부모의 나이가 많으므로 온라인 매체 등에 익숙하지 못하여 정부 지원정책에 익숙하지 못해 지원 인력 활용 또는 제도 혜택을 잘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손가정은 다른 빈곤가정 유형과 비교할 때 문화생활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영유아의 영상 시청 또는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다른 빈곤가정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 영유아 손자녀의 영유아 건강검진 비율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율도 다른 빈곤가정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빈곤가정 유형과 비슷하였으나, 2순위로 양육 지식 및 방법 부족으로 나타나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혼란함과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노부모의 나이가 많음에 따른 손자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부족 및 양육과 훈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손자녀가 방치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 IV

## 영유아 빈곤가정의 가정유형별 양육경험

- 01 질적연구 개요
- 02 가구유형별 양육경험 분석 결과
- 03 소결



## IV. 영유아 빈곤가정의 가정유형별 양육경험

이번 연구에서는 취학전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양육 상황과 어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실태조사 결과의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적 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양육자들의 살아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욕구를 보다 풍부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심층면접의 특성상 참여자 쪽에서 면접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계획과 달리 면접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1. 질적연구 개요

#### 가) 조사대상 및 규모

이번 질적연구의 심층면담 조사대상은 취학전 영유아 자녀를 둔 양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3명, 한부 혹은 한모인 한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7명, 미혼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3명, 취학전 영유아 손자녀를 둔 조손가정 주양육자 2명으로 총 15명이었다. 다음 <표 IV-1-1>과 같은 기준으로 가정유형과 지역을 할당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양육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애초 계획에서는 심층면담 대상 가정을 각 유형별로 수도권 2가정, 비수도권 2가정씩 섭외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비드 19 확산상황에 따라 특히 수도권에서 예정되었던 면담이 지속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계획대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표 IV-1-1〉 심층면담 조사대상 및 규모

구분	양부모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
		한부	한모		
수도권	1	2	2	1	
비수도권	2	2	1	2	2
전체	15				

심층면담 대상자 모집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도적 표집 및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유아가 있는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 드림스타트, 보육기관, 복지관 등)에 이번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기관을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여 진행하였다.

#### 나) 조사내용

심층면담 조사내용은 자녀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양육지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으로 구체적인 면담 조사내용은 〈표 IV-1-2〉에 제시되어 있다. 심층면담은 구조화된 면접이 아닌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면접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해당 면접내용의 포함 범위가 조정되었다.

〈표 IV-1-2〉 심층면담 내용

구분	면접 내용
피면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나이, 결혼 상태(기간), 취업여부(근로시간), 소득, 가족유형 및 수 등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 자녀별 나이, 성별, 장애/질병 상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등
결혼 과정 (조손가정은 자녀의 결혼 과정)	• 결혼 시 연령, 결혼유지 기간, 배우자와의 관계 • 이혼(혹은 사별) 기간, 이유 • [조손가정]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 및 양육기간
자녀 임신, 출산 경험*	• 임신 계획 및 준비 상황, 건강상태 • 임신 확인 당시의 감정, 배우자와의 관계 • 취업여부, 경제적 상황 • 산전관리 경험 • 출산 경험(출산 방법, 주변 도움 수준, 감정 등)
(손)자녀 양육 과정	•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즐거웠던(행복했던) 경험 및 이유 •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어려웠던) 경험 및 이유

구분	면접 내용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생활구조 (주요 지지체계 및 자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준</li> <li>•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4장에</li> <li>•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놀이시간</li> <li>• 필요할 때 대신 돌봐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li> <li>• 현재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체계</li> </ul>
부모됨, 부모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li> <li>•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li> <li>•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li> <li>•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li> </ul>

주: 조손가정의 경우, 자녀 임신, 출산 경험에 관한 질문은 본인 자녀의 임신, 출산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관련 내용 질문은 제외되었음.

#### 다) 조사방법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이번 연구의 연구진이 빈곤가정 주양육자와 60~90분 정도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1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질문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격려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접과정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후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 라) 분석방법

분석을 위하여 녹음한 원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강조하는 표현, 의미를 중심으로 일차 개방코딩을 하였다. 이후 의미단위의 유사성에 따라 합산하면서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범주로 통합하였다.

## 2. 가구유형별 양육경험 분석 결과

### 가. 일반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영유아를 키우는 양부모 빈곤가정에서는 부모 4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그 중

한 가정은 미혼모 지원단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면접을 통해 사실혼 관계로 동거증임을 확인하여 양부모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위에 언급한 가정의 경우 현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하여 임신한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하여 둘째를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두 가정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중인 가정이었다.

이번 면접에 참여한 빈곤가정 부모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표 IV-2-1〉 빈곤가정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심층면접자 인구학적 특성	
양부모 빈곤가정	수도권	이00	22세. 법적 한부모(3인가구) 수급가정. 고졸 검정고시. 실제 4인 동거가구, 주부, 사실혼 남편(25, 고졸, 계약직 회사원)과 동거중(1년), 여아(5), 남아(6개월). 가정보육 중. 부부가 함께 면접. 처음 미혼모로 연구 참여 의뢰되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동거 증임을 확인하고 양부모 가정으로 면접함
	비수도권	김00(40, 초혼, 농업)	5인 가구, 40세. 주부/농업. 초혼. 시모(84), 남편(62, 재혼, 건축업), 남아(6), 여아(-), 결혼기간 7년.
		장00	30세. 전문대졸. 임신 후 퇴직. 주부. 가정보육 중. 남편(30세, 회사원) 여아(15개월), 7년 연애 후 결혼(3년).

양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들의 양육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번 면접에 참여한 양부모 빈곤가정은 모두 모가 가정내 양육자 역할을 전담하고 부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와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아이와 부대껴야 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높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험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아이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과 외출도 자유로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장기간 집에 머무르게 되자 주양육자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졌다. 자녀양육에 소극적인 남편의 태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다시 아이에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부모로서 갖는 죄책감도 높아지는 악순환

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양육방식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연적 지지체계 및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도움이 그나마 숨쉴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들이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때로 부담스럽지만,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바꾸어 나갈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표 IV-2-2〉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범주	개념
가정보육과 양육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보육을 선택함</li> <li>•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안감</li> <li>•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li> </ul>
자녀양육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간 양육가치관의 차이</li> <li>• 남편의 제한적인 양육참여</li> <li>• 주변의 도움이 제한적임</li> <li>•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li> </ul>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되거나 미루어짐</li> <li>•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li> <li>• 아이들이 받는 영향을 걱정함</li> </ul>
양육을 돕는 사회적 지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 친지의 도움</li> <li>• 사회서비스 기관의 지원</li> </ul>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감</li> <li>•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됨</li> <li>•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함</li> </ul>

### 1) 가정보육과 양육 스트레스

세 가정의 양육자 모두 ‘아직 어린 자녀를 가정에서 엄마가 키우는 편이 좋다’ 혹은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양육자로서 경험하는 부담감과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이는 초보 부모로서 아이를 위한 적절한 양육 방법을 몰라서 갖게 되는 혼란스러움과 관련되어 있었다.

#### 가정보육을 선택함

“저는 아이를 낳으면 3살까지는 가정보육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변 분들도 많이 그러고, 엄마도 그러셨고... 들어보면, 그런 시간이 되게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기

랑 보내지 못한 시간이 후회스럽대요. 그때 애착 형성이 많이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참가자 3)

“왜냐면요, 애들이 커버리면 같이 어울릴 시간도 없고 솔직히, 저기 뭐야, ‘어릴 때 같이 더 어울려줄 걸’ 후회하느니 나는 지금부터 애 키우면서 조금씩, 나도 지금 노력 중이야... 애들 추억 만들어주고 조금씩 어울려가면서 하려고, 지금 발일을 줄여가면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참가자 2)

“저는 첫째 때는 혼자 역할도 해야 하고, 엄마의 역할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고. 저도 저 나름대로 나이도 어렸고... 이리다 보니까 같이 못 있어 준 게 가장 마음에 걸려서 첫째랑 둘째랑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제가 원하는 그림이죠.”(참가자 1)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의 이면에는 아직 자기 표현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많이 고민이에요, 솔직히... 그냥 모든 부모가 똑같겠지만 그런 기사(아동학대)나 그런 것 볼 때면 내 아이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솔직히...”(참가자 3)

그렇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녹록치 않았고, 이들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죄책감, 잘못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두려움, 더불어 자녀양육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피로감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다.

###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

“저는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 오는 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고 이 아이를 계속 봐야 하고, 이 아이가 잘못될 경우에도 다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긴장을 못 놓겠고...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참가자 3)

“내가 아직까지 애들한테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그렇게 되려고 노

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애들도 그동안 못 놀아주고 발일 핑계 대고 못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엄마는 엄만데 무늬만 엄마,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발일도 줄인 거고, 많이 줄인 거예요, 일. 줄이고 이제 애들이랑 놀아주려고...”(참가자 2)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건 저 스스로도 아이에 대해서 떳떳하지도 못하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커서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니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미혼모가) 되길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저 아이는 엄마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참가자 1)

“안 어렵다고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고요. 첫째를 훈육할 일이 되게 많죠. ‘거기 하면 안 돼’ ‘쓰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걸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던지, 너무 험하게 얘기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죠. 아이들 훈육하는 거... 저 나름대로 동영상도 보고하는데,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그래서 훈육이 제일 어려워요.”(참가자 1 남편)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아이에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아픔과 미안함도 가지고 있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제가 화가 나면 주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욱하고 약간 그런 게, 요즘 들어서 커서 그런지 조금 미안하고요. 제 몸이 힘들니까 같이 놀자고 해도 조금 소홀하게 하고 그러는 게 미안한 것 같아요.”(참가자 1)

“가만히 안 있으니까, 나는 해야겠다고 솔직히 매번 매시간 붙어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면, 애한테 가는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애한테 화를 안내고 싶고, 신경질 안 부리고 싶어도, 저도 사람이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랑도 싸우게 되면 애한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거... 제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야 하는데.”(참가자 3)

## 2) 자녀양육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

참여자들은 면접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표현하였다.

### 부부간 양육가치관의 차이

“완전 상극인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육아하려고 하니까, 오빠는 제가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 너무 규칙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를 왜 저렇게 세게 하지?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런 거로 많이 얘기하죠. 훈육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요.”(참가자 1)

“그런 부분으로도, 계속 부딪히게 돼요. 아이 낳고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이번에도 돌 지나고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별 것도 아닌데 의견 차이가 나서, 스트레스를 서로 받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런 거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참가자 3)

아이를 좋아하고 가급적 양육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는 부의 경우에도 부모로서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과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특히 참여자 2의 경우에는 면접 과정 내내 남편이 집안 일과 자녀양육에 도통 관심을 두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는 점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 남편의 제한적인 양육참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띄엄띄엄이어서요. 계속 몇 시간을 잡고 제가 이런 걸 한다기보다, 저도 저 할 거하고 좀 쉬면서... 첫째는 조금 과격해요. 레슬링 이런 거 좋아해서 가끔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요. 이렇다가. 애(둘째)가 좀 보채면 말 걸듯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기보다는 십 분? 저도 힘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드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씩은 조금, 조금씩 놀아주는 것 같아요.”(참가자 1 남편)

“그런데 우리 애들은, 우리 안에는 아빠란 존재가 작아요. 너무 작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줘야 하는데, 바깥으로만 도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는 어떡냐면, 집안은 잘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는 애기 아빠라는 존재가 작아요. 너무 작아요.”(참가자 2)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가정보육을 하는 양육자들에게, 잠시라도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숨 돌릴 여유를 만들어 주는 주위의 도움은 매우 고맙고 소중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질병 등으로 인해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혼자 오롯이 육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 주변의 도움이 제한적임

“저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고요. 원래는 첫째 때까지만 해도 조부모님이 많이 봐주셨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프니까 애도 제대로 못 안으시고요. 시댁 쪽도 두 분 다 일을 하셔서요, 딱히 양육에 도움을 주신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시니까.”(참가자 1)

“저희가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는 못 가요. 가서 저녁만 먹고 오는 거예요.”(참가자 3)

이번 면접은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면접에 참여한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는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

“겨울 되면 애기아빠가 별이가 없어요. 가을... 이제 추워지면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김장도 해야 돼지, 애기들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제 교육비로 하나씩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밥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더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구. 그래서 항상 애들이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줘.’ 그게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참가자 2)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는 나라에서 받는 수급비. 경제적인 부분은 그런 것밖에 없고요. 이렇게 교류하는 곳은 딱히 없는 거 같은데... 교회를 자주,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빛을) 갠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 아직까지 갠고 있는 중이라...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100만 원 정도?”(참가자 1)

###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짐

특히 올해는 치명적인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높은 전염 위험성과 치명적인 증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돌보는 많은 어린이집이 휴원하였고, 가정에서도 가급적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새로이 등록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어났는데, 낮 시간대에 집에서 아이를 물리적으로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있지만 매우 좁거나 햇빛이 들지 않는 집에는 아이들이 활용할만한 놀이 공간과 놀잇감 등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양육자 스스로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만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되거나 미루어짐

“세 살 때부터 다녔는데, 2월부터는 안 다니고... 지금은 어린이집도 못 가는 상황이니까, 저랑 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죠.”(참가자 1)

“원래 7월 달 쯤에 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총남하고 대전 쪽이 좀 심하다고 해서 내년쯤에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머님도 그렇고 애기 아빠도 그렇고 내년쯤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구요.”(참가자 2)

##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

“저는 요즘 들어서 약간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만 아이 돌하고 하루 종일 실랑이하다 보면,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녁에는 오빠가 오니까 대화를 하고 하지만, 낮에 하루 종일 애들하고 이려고 있다 보면... 그렇다고 바깥바람 쐬러 나가기도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좀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이 오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참가자 1)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죽겠죠. 코로나 전에는, 얘기라도 하면 같이 동병상련 느낌의 위안이라도 받고, 서로 아기가 크는 과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나가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데... 아예 나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육아는 육아대로 힘들니까, 이게 겹치니까 이게 더 코로나블루가 되지 않나.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참가자 3)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는 아이의 삶, 그로 인해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양육자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 아이들이 받는 영향을 걱정함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주로 집콕이 일상이에요.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서 보내는 게 일상이죠. 그게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지 낮가림도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성향도 성향이지만,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못 만나고 매일 봤던 사람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참가자 3)

“첫째 나이 때, 저 나이 때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와서... 좀 지금 많이 만져보고 보고 체험해 봐야 할 게 많이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참가자 1 남편)

#### 4) 양육을 돕는 사회적 지원들

한편,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회적 지원 체계들의 존재는 단비와 같아서 양육자들에게 잠시 숨 돌릴 틈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해준다.

##### 이웃, 친지의 도움

“옆 집 외숙모네도 있어서 거기 도움도 많이 받기는 해요. 거기서 애들 놀다가 오고, 아들도 거기 가서 잘 놀다가 오고...”(참가자 2)

“큰고모가 옆에 사시다 보니까 가끔 일 끝나면 저녁 먹으러도 오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카 본다고 와서 조카 둘 다 같이 놀아주고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고모 찾고...”(참가자 2)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진 영유아를 키우는 빈곤가정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지지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의 도움은 물론이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 특히 드림스타트의 경우 아동에 대한 직접 돌봄을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상담 및 부모교육 등을 통해 부모의 아동양육 과정을 도울 수 있다.

##### 사회서비스 기관의 지원

“우리 엄마 요양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 몸이, 허리 아프다면서 걷지를 못하니까, 요양사님이 있고 거니까... 나 (시집)오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 가족이랑 다름이 없더라고, 한 가족이랑...”(참가자 2)

“몇 가지만 알았지,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건 내가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다 드림스타트에서 교육프로 얘기를 하시길래 갔다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내가 애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고...”(참가자 2)

#### 5)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참여자들은 아직 부모로서 초보에 가깝지만, 부모가 되면

서 겪는 자신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부모로서 높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성격과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 책임감을 느낌

“일단은 삶의 무게부터, 책임감부터 다 달라졌죠. 많이.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바뀐 거 같아요.”(참가자 1)

“같이 살면서 이제 좀 ‘아! 이게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철부지 청년이 아니라, 이제 아이 아빠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가졌을 때 좀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도 제가 (소득에) 만족을 못 하니깐, 제가 그냥 두 탕 뛰어서 일하고...”(참가자 1 남편)

“저는 그냥 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식구들,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 그리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식구들만 늘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만 늘었지... 성격도 조금 바뀌었고 변화된 거...”(참가자 2)

“부모가 된다는 건, 어쨌든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행동에도 책임감이 더 있어야 하고, 생각하는 거나 그런 거에도... 애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나중에 애가 나를 보고 배우겠구나 싶어요. 그런 게 굉장히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솔직히 부담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참가자 3)

###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됨

“옛날에는 노는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우선이었으면, 지금은 모든 게 다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무래도. 다른 걸 생각하기에는 크게 여유도 없을뿐더러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니깐. 모든 걸 다 아이들 위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가장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참가자 1)

“달라진 점이요? 저희는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약이 많아졌다는 점. 급출발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아이의 사이클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는 먹어야 하잖아요. 저절로 먹게 되고, 저절로 해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참가자 3)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함

“저희가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쓸 거 아껴가면서 아이들 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쓸 거 아껴가면서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이 필요한 거,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것들 많이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참가자 1)

“삼시 세끼 다른 메뉴를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거를 접하게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진짜 힘들어요. 사서 먹이고 싶은데, 매번 솔직히 고민해요. 근데 또 시판에는 재료라든지, 충분히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를 늦게 먹이고 싶어서,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참가자 3)

거기에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를 보이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부모로서의 저의 모습은 참 다행인 건,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싸우지 않아요. 막 10년 된 부부 같지만 그렇다고 부딪히면서 싸우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부부관계가 아이들한테 안정된 모습인 거 같아요.”(참가자 1)

이번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키우는 한부모 빈곤가정에 대한 면접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양부모 모두 있는 가정의 양육 상황과 한부모만 있는 가정의 양육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부모 가정의 경우라도, 한모가정과 한부가정의 영유아 양육여건은 다를 수 있기에 두 집단의 면접내용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나. 한모 빈곤가정의 양육경험

이번 연구에서는 3명의 영유아를 키우는 한모 빈곤가정 주양육자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짧은 결혼 기간 후 자발적으로 이혼을 선택한 이들이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아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외에도 폭력, 외도 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당연히 부부관계는 계속 나빠졌고 그 과정에서 시댁의 무시와 모욕도 경험하였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출산 직전까지도 일을 계속 지속해서 스스로의 생계를 부양하고 출산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나 이혼 후에는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만 겨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자녀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제대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혼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주거 등 아이를 키우기에 필요한 자원을 부지런히 알아보았고 보육 및 복지 서비스 역시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일 자리도 구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싶지만, 친정을 포함하여 주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유아를 홀로 키우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여건을 만들기에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부족하였다.

이번 면접에 참여한 빈곤가정 한모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표 IV-2-3〉 빈곤가정 한모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심층면접자 인구학적 특성	
수도권	이00	2인 가구. 36세, 대졸. 수급가정(취업한 지 1달 안됨). 결혼생활 2년, 5년 전 이혼. 여아(6)
	최00	2인 가구. 32세, 대학 중퇴. 결혼생활 1년 반 정도. 이혼재판 중, 조건부 수급, 여아(15개월, 2세)
비수도권	이00	2인 가구, 33세, 고졸.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유급휴직 중, 남아(7, 발달장애, 어린이집/아이돌보미 이용). 결혼생활 3년, 이혼

한모 빈곤가정 주양육자들의 양육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2-4〉 빈곤가정 한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범주	개념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홀로 생계부양, 나홀로 출산</li> <li>• 이혼을 선택함</li> <li>• 막막한 생계</li> <li>• 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함</li> </ul>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li> <li>•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함</li> <li>• 서비스의 질이 열악하고 제한이 많음</li> </ul>

범주	개념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조건부수급</li> <li>•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음</li> <li>• 보육서비스의 문제들</li> </ul>
가정에서의 돌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와 함께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려고 함</li> <li>• 위기시 아이를 돌봐줄 지원체계를 확보함</li> </ul>
부모됨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감을 느낌</li> <li>•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함</li> <li>• 부의 부재가 갖는 영향을 고민함</li> </ul>

한모 빈곤가정은 모가 홀로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다행히 조건이 맞아서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생계부양을 위한 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군부투가 이어진다. 하지만 의욕과 달리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이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는데, 친정에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이들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열악하고 불안한 주거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혼이 완결되면 한부모 지원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이혼 중인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림의 떡이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보육기관을 만나는 것 역시 쉽지 않고, 심지어 보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이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홀로 아이를 감당하고 있는 모의 상황에서 위기 혹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응급 지원체계가 아쉽다. 아이에 대한 지극한 책임감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견디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부모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1)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결혼관계 내에서 아이를 가졌고 낳았지만, 이들은 늘 스스로의 생계를 부양해야 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들과 아이에게 관심도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다. 친정의 도움도 거의 기댈 수 없는 형편에서 이들은 홀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책임

져야 했다.

### 나홀로 생계부양, 나홀로 출산

“그런데 저는 임신하고 아이 낳기 4일 전까지 일을 했어요. 아이랑 같이 살 집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됐고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아야 됐고, 왜냐면 상대방은 신용도가 없는 상태였고 체납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신용관리도 되지 않았었거든요.”(참여자 2)

“어찌되었든 출산까지 결국엔 혼자 다 했어요. 저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주고 결국엔 제가 혼자 다 했어요.”(참여자 2)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관심, 폭력, 외도 등을 경험하던 이들은 이혼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아서 결국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했다.

### 이혼을 선택함

“(협의이혼 서류를) 내려갈 때는 그래도 잘 챙겨주겠다.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겠다 해서 그 말을 믿었는데, 서류를 딱 내자마자 근데 니가 뭘 했다고 내가 돈을 주냐 그러더라구요. 그때부터는 그거를 안가고 취소시켜 버리고 소송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모아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자랑 카톡 내용이라든지 대출독촉장을 가지고 있다가 소송할 때 서류를 다 넣었어요.”(참가자 1)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는 게 이 결혼의 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뭐하고 하면서.”(참여자 2)

이혼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던 이들은 아이와 함께 내몰렸다. 이들은 아이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돌봐야 할 어린 아이가 있으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돈이 없으니 아이와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찾기도 어려웠다. 아직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소송과정 중이었던 이들은 법적인 남편이 아직 있어서 사회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과 제한이 많았다.

### 막막한 생계

“진짜 나와서는 무보증 원룸, 반지하에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싶은데를 가서 돌

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진짜 안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 가정 어린이집 보내놓고 식당 서빙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해보고 학원 행정알바도 하고...”(참가자 1)

“그 때는 진짜 막막하더라구요. 협의도 안 됐죠. 당장 생계비도 걱정이죠. 요새는 어린이집을 진짜 아끼고 나서부터 신청을 해놔야 들어갈 수 있는데 당장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도 없죠. 친정도 없죠. 말길 데도 없죠.”(참여자 2)

“일을 찾아봤는데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가면 딱 보고 왜 돌이어요?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애가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아프면 누가 봐줍니까? 이런 걸 얘기해요.”(참가자 1)

“제가 버려놓은 것도 없었고 모아둔 것도 없었고, 이제 갓 이혼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에 얹혀살면서...”(참여자 3)

남편은 이혼하면서 약속한 위자료나 양육비를 전혀 주려고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압박을 해야만 겨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 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함

“근데 위자료는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양육비도 안 주고 있어서 한부모에서 만든 연합에서 나쁜 부모를 고발합니다에 사진 다 해서 전시를 하고 단체 고소하러 다니고 하니까, 자기도 쪽이 팔려가지고 줄 테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했어요.”(참가자 1)

“한, 두세 번 받았나? 두세 번밖에 못 받았어요. 15만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일 하는 게 그 사람이 일을 잘 안 다니니까, 저도 알고 15만원만 책정해서 그랬는데... 준 거는 한 10만원?”(참여자 3)

### 2)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이들에게는 사회 서비스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

“저도 열심히 세금 내고 살았으니까, 제가 힘들 때 어쨌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인터넷이랑 카페랑 복지 관련된 데는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거의 다 검색해본 거 같아요.”(참여자 2)

“이것도 주민센터에 쫓아가서 복지과에 담당하는 주무관님한테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상 이혼이 아닌 상태면 한부모로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지원 대상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로 (남편이) 일단 수감 중이고 가정폭력 임시보호 조치가 있었고, 나는 아이를 출산한 지 지금 이만큼 밖에 안 됐고 이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참여자 2)

“군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맨 처음에 고용노동부 지원하시는 분 있으신데 그 분이 일 자리를 구해서 다니면 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이제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참여자 3)

“반지하 살 때 쌀 한 번씩 얻었구요. 시설로 들어가니까 지원이 좀 많이 되더라구요. 모자원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2016년에 들어가서, 이맘때 들어가서 작년 9월인가 8월쯤에 기간만료 되어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참가자 1)

한편, 이들이 필요했던 서비스는 쉽게 얻을 수 있거나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역마다 제공여부나 수준도 달랐다. 특히 이혼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함

“그런 지원이 없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이혼)된 게 아니라 소송중일 때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인천에서는 기저귀 하나 얻어 본 게 없어요. 주민센터 가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더니, 막상 서류 받고 보니까 혼인기록이 있어서 이걸 미혼모만 하는 사업입니다해서 거절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지고...”(참가자 1)

“그러니까 (아이)병원비를 내고 그 영수증을 나중에 다 모아서 제출을 하면 다 환급해주고 그런 거... 안산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참여자 3)

“일을 안 하면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쓸 수가 없어요. 아이를 맡겨야 될 하는데, 일을 안 하면 그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면접을 가도 애를 데리고 가면 밖에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참가자 1)

또 겨우 얻은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이 열악하거나 제한이 너무 엄격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 서비스의 질이 열악하고 제한이 많음

“(모자원 생활은) 첫날부터 지옥이었어요. 제 상상과는 다르게 애기한테 쌍욕하고 뭐 던지고. 거기 엄마들이 거의 그래요.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얘기해도 다 들리는... 방음이 안 되는, 거의 50년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집이 그렇더라고요. 방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 던지거나... 그런 거 보고 되게 힘들었어요. 다시 나가야하나 싶었는데 나갈 데도 없구요...”(참가자 1)

“지금 저는 조건부 수급자고, 현재까지는 가정보육을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요, 육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단 몇 시간이라도 나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라던가 공부라던가 할 수 있을 텐데, 안 돼요.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순간 저는 수급자 조건이 해지가 돼요.”(참여자 2)

### 3)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문제점

이들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한모가정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거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양육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육아와 소득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엄마가 직업과 관련한 뭔가를 준비하고 시도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 어린 아이에게 계속 매여 있는 상태에서 애를 데리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조건부수급

“지금 저는 조건부 수급자고, 가정보육을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요, 육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단 몇 시간이라도 나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라던가 공부라던가 할 수 있을 텐데 안 돼요.”(참여자 2)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이의 등하원 시간과 엄마의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 않고 차도 없으니 곤란했지만, 다행히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서 그 간격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

##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음

“어린이집에 가고요. 어린이집에 가는 그 앞(아침 등원 전)에 두 시간이랑 그 후(하원 후)에 두 시간을 시간당 도우미선생님을 썼어요.”(참여자 3)

비록 모의 상황에 맞거나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어린이집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운 좋게 그런 어린이집을 만나면 든든한 지원망을 가질 수도 있다.

“어린이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칼처럼 그 선 이상 안 해주는 데가 있는 반면, 애가 5살까지 다닌 거기는, 제가 일 끝나고 발 동동 구르는 걸 아니까 ‘오늘 어머니 늦으세요?’ 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자기네 집에 가서 밥 먹이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병원 데리러 가야한다고 하면 병원 앞으로 데려다주시기도 하고...”(참가자 1)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았다.

## 보육서비스의 문제들

“저희 애기가 인제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받았어요, 후천성으로... 발달도 지연돼서, 이것저것 치료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발달지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표현을 그런 거를 못 하니 까, 이게... 거의 왕따다 시피해서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참여자 3)

“어느 날은 볼에 이렇게 손자국이 나서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왔는데. 봤더니 (돌보미)선생님이 때렸대요. 그 날 저녁에 6시쯤에 통화했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퇴근해서 보니까 아이 얼굴이 빨개 있고, 화는 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 사단이 난건가 싶고...”(참여자 3)

“예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2주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애를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돌보미를 쓰면 되요. 근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갑자기 공백이 생기는 거죠. 어디 갈 때 항상 데리고 다녀야하고 급하게 병원갈 일이 생겨도 병원에 가서 유튜브 틀어주고 잠깐만 앉아있어 잠깐만 앉아있어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힘들었어요.”(참가자 1)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이 휴원, 등원을 반복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어린이집에) 1월부터 계속 안가다가 잠깐 다니다가 확진자 나와서 또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가고 있어요.”(참여자 1)

#### 4) 가정에서의 돌봄체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규칙적인 일상구조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은 삶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아이에게도 부모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면접에 참여하는 한모들은 모두 아이와 규칙적인 일상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 아이와 함께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려고 함

“기본적으로 제가 다 아침마다 밥을 해서 주는 편이고, 하루에 3끼, 간식은 한 번,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생우유 한 잔 200ml 원샷하는 게 습관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는 혼자 노는 시간으로 내버려 뒹요.”(참여자 2)

“4시 반이면 와서 이제 자기가 할 거 해요. 가방 걸고 옷 걸고 뭐... 그러고서 씻는데, 탕에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다라이를 갖다놔어요. 물 받아서 놀면 한 30분 정도 놀고, 나와서 밥 먹고 그러면 6시 반이더라고요. 금새... 6시 반이면 7시부터 핸드폰 시간이니까 30분은 또 책 읽든지 공부하던지 그런 거 하고, 핸드폰 30분 하고 자고.”(참여자 3)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없을 때 혹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대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자연적 지지체계가 약하거나 제한적인 이에게는 공식적인 사회서비스 체계가 돌발 상황에서의 지원체계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위기 시 아이를 돌봐줄 지원체계를 확보함

“시간 돌보미 선생님이에요. 시간 돌보미 선생님이랑 저희 엄마가. 제가 입원했을 때 (아이 돌보미)선생님 집에 데려다놔어요. 선생님이 봐주신다하셔서... OO이 사진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관리해주고... 항암 치료할 때는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입원할 필요가 없어서. 여섯시 반이면 나가야해서 그 때는 선생님이 조금 일찍 오세요. OO이가 자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 놓고 갔다 올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지인 중에 두 명 정도 있어요. 한 명은 제가 어쨌든 가서 맡겨놔도 다 놀이 공간이고 다 괜찮아서 거기는 맡길 수 있는 집이고. 정말 위급하거나 뭐 하루 정도 일정이 잡혀서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집에 와서 같이 봐줄 수 있는...”(참여자 2)

자연적 지지체계이든지, 공식적 지지체계든지 갖지 못한 이들은 아이에 대한 부담을 홀로 질 수밖에 없다.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냥 제가 아파도 봐야 하고, 애 입원했을 때도 중간에 집을 거의 못 왔다갔어요. 아는 언니가 잠깐 집에 와서 한 번에 짐 가져와서 거의 같이 있었죠.”(참여자 1)

## 5)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양부모 가정의 양육자들과 마찬가지로, 한모들도 부모로서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어쩌면 부모로서 책임감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책임감이 이들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했던 가족들의 믿음이나 혹은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늘 간절했었고... 제 기질이 그런 쪽이었나 봐요. 책임지고 싶었어요. 재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엄마잖아요. 그 단어가 전 참 좋았어요...”(참여자 2)

###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감

“저는 완전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일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내 맘에 안 들면 다 그만 두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랬는데... OO이가 태어나고부터, OO이랑 단 둘이 살면서부터 바뀐 것 같아요. 내가 가장이고 OO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애이고, 내 맘에 안 든다고 회사를 때려치우면 이제 OO이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참여자 3)

“제가 생활력이... 그 전에도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애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전이면 누워있을 일도 벌떡 일어나서 갔다 오고. 청년 때는 일자리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돼야 돼, 돼야 돼...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진짜 애한테 손을 안 벌리고 사는 노년을 만들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참가자 1)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자신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하였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다.

###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함

“부족한 점 너무 많아요. 그냥 00이랑 얘기 때부터 말을 너무, 대화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기들은 어렸을 때 자극을 줘야지 말이 늘고 한다잖아요. 근데 제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어서, 알아서 말을 하겠지 생각을 하고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데다가 우울증 비슷하게... 인제 아이만 집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참여자 3)

“다 모자라죠. 그래도 하고 싶은걸 해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제가 차가 없는데도 복지관 통해서 멀리 놀러가는 거 항상 신청하고... 그래도 좀 밝은 거 같아서 좀 안심이죠.”(참가자 1)

“못 해주고 있는 건가라는 항상 고민? 욕심이나 이런 생각으로는 항상 더 해주고 뭘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몸이 하나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럼 적정선을 아이랑 봐야 하는데 그게 매일 고민이에요. 저한테 안 쓰고 덜 쓰고 다 애한테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거 같아요. 통장 잔고 항상 10만원이 안 되지만... 더 못해줘서 항상 아쉽죠.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참여자 2)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가 있었다면 해줄 수 있는 거나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을 신경 쓰고 있었다.

### 부의 부재가 갖는 영향을 고민함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건, 고집부릴 때도 그렇고 뭐, 짜증낼 때도 그런데... 제일 그런 거는... 아빠를 안 찾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찾을 법한데 일부러 엄마를 생각해서 안 찾는 건지 아니면 기억이 아예 없어서 안 찾는 건지... 그럴 때보면 마음아파요, 그냥.”(참여자 3)

“그런 거 많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못 해주니까. 어딜 가도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마트 가도 그렇고 공원 가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아프죠. 작년부터 (아빠)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초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전화통화라도 하면 좋겠는데, 제 번호를 아예 차단해놔서 그런 것도 안 되고, 애는 찾고... 그런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참가자 1)

### 다. 빈곤가정 미혼모의 양육경험

이번 연구에서는 ‘미혼/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3명의 한모가정 양육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동거 혹은 연애 중에 임신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된 이들이다. 연애중이거나 결혼하지 않으려고 결정한 상황에서 확인된 임신은 ‘환영받지 못했다’, 낙태를 고민하기도 또 권유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출산을 선택하였고 아이 친생부의 부재와 무관심 속에서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었다.

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청소년미혼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무난한 삶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자연적 지지체계가 약하거나 단절된) 미혼모들의 경험은 이혼과 관련된 어려움을 제외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한모 빈곤가정의 경험과 더 유사하였는데, 오히려 ‘미혼모’이기에 사회서비스 지원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면도 있었다.

〈표 IV-2-5〉 빈곤가정 미혼모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심층면접자 인구학적 특성	
수도권	신OO	2인 가구. 31세. 대졸. 남아(36개월). 미혼모시설 거주경험. 자립. 6개월 전에 퇴소, 이직하고 소득상승으로 한부모 지원대상에서도 벗어남.
비수도권	김OO	3인 한부모 수급가구, 19세, 청소년미혼모, 모, 남아(13개월), 임신 후 고교중퇴, 성인 야간고 재학 중.
	박OO	2인 가구, 28세, 대졸. 남아(20개월),

이 연구에 참여한 빈곤가정 미혼모의 양육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IV-2-6〉 빈곤가정 미혼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범주	개념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홀로 생계부양</li> <li>• 나홀로 출산</li> <li>•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li> </ul>
자녀양육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미룸</li> <li>• 경제적인 어려움</li> <li>•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함</li> <li>•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병을 얻음</li> </ul>
관계의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위 시선에 대한 불안</li> <li>•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됨</li> <li>• 코로나로 인해 고립됨</li> </ul>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찾음</li> <li>• 부족하고 제한된 지원</li> <li>• 부적절한 자격기준</li> </ul>

범주	개념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음</li> <li>• 보육서비스의 문제들</li> </ul>
부모됨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되면서 변화함</li> <li>• 후회</li> <li>•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li> <li>• 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음</li> <li>•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li> </ul>

지지체계가 없는 빈곤가정 미혼모들의 양육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빈곤가정 한모들의 양육경험과 유사한 면이 많았다. 이들도 스스로 생계를 부양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양육을 전제로 조건부수급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계획이 취소된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곤란도 비슷하였다. 도움이 절실했던 이들도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미혼모이기에 받을 수 있었던 지원도 있었지만 서비스는 늘 부족하고 제한적이었다. 때로는 부적절한 서비스의 자격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게 보육서비스의 도움은 필수적이지만 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워낙에 약했던 사회적 관계는 미혼모가 됨으로써 더욱 악화되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데 특히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병을 얻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불쑥 치밀어 오르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아이가 주는 힘이 이들을 열심히 살게 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고 있었다.

#### 1)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기댈 수 있는 결혼관계도, 가족의 도움도 없는 빈곤가정 미혼모들은 빈곤가정 한모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생계부양을 위한 노동을 출산직전까지 하고 출산도 홀로 감당해야 했다.

## 나홀로 생계부양

“제일 문제는 돈이었어요. 임신한 거를 숨기고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그랬거든요... 알바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병원 다니고... 새벽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고. 그게 일상이었어요.”(참가자 3)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 때 동안 또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만들려고 그 때 당시에 일을 두 개를 했었어요. 오전에 일어나서 대학 수업 듣고 저녁쯤에 첫 번째 직장엔 출근 했다가 퇴근하고 또 두 번째 직장 해서 새벽에 들어와서 조금 자고 또 다시 학교 듣고... 이거를 막달까지 했었거든요.”(참가자 1)

## 나홀로 출산

“자연분만을 했어도, 그것, 무통주사 부작용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어서 수발을 못 드는데 다행히 친구가 와줬어요. 3일정도 나를 그렇게 해주고...” (참가자 3)

“제가 출산을 하는 주에 그 시설 관계자 분들이 다 바빠서 저 혼자였어요... 유도분만을 했는데 그 때 이제는 촉진제가 말을 들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 때도 2박 3일을 딱 채워서 진통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침대 베드 난간에 두 팔과 다리를 버티고 공중에 떠서 진통을 했는데도 애기가 안 나오더라고요.”(참가자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을 받아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

“산후 조리원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백 얼마, 팔 십 얼마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한 게 조금 서러웠고요.”(참가자 2)

“아직 살아있던 카드로 일단 긁어 일주일이라도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었던 게요. 빚 독촉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빌려준 돈도 있고 해서 받으려고 병원 복 입고 쫓아다니고. 외출도 하면 안 됐었는데 계속 외출하면서 은행 다니고...”(참가자 3)

## 2) 자녀양육의 어려움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초보엄마인 이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서툴렀고 어려웠다.

“많이 힘들고 무섭고 그냥... 처음에는 진짜 못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뭐. 젖은 어떻게 줘야 하고 분유 타는 것도 온도 맞춰야 하고 뜨겁나 안 뜨겁나 이것부터 시작해서...”(참가자 2)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미룸

“코로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때리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OO가 조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쯤, 엄마가 보내자고...”(참가자 2)

“지금 보내려고 대기는 다 났는데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기자 해서 내년 부터 보낼 생각이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게 더 나올 것 같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사랑이라도 많이 주자해서...”(참가자 3)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지만 가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집을 얻기까지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신생아를 안고 거리를 떠돌기도 했고,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빚이 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애가 20개월인데 제가 작년까지도.. 언니 집에서도 나왔거든요. 이제, 친구집을 전전 했죠. 그리고 엄마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애한테 조용히 해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러고 나와요. 한 번도 못 마주치게끔 그렇게 살다가...”(참가자 3)

“생활비가 일단 수급비가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런 애엄마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거든요. 아널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없는 돈으로 생활했어요. 거의 구걸하다시피 산거죠. 동사무소에서 ‘뭐 후원 들어 왔어요’하면 바로 받으러가고... 거기에 기저귀 있다 그러면 1시간이 되도 가서 가져오고, 옷도 그렇게 해서 입히고”(참가자 3)

“힘든 거.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것은 돈인 것 같아요. 이유식을 좋은 걸 사주고 싶고 옷도 새 거 사주고 싶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빚이 너무... 빚이 1,500만원, 1,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저귀 하고, 기저귀 카드가 있다고 쳐도 그걸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참가자 2)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이 녹록치 않기에 이들도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다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고리를 인식하고 조심하고 있었다.

###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함

“제가 그 성질을 못 누른다는 거. 애한테도 해서는 안 되는... 당연히 애가 나를 힘들게 할 거잖아요. 그러한 짜증을 애한테 낸다는 게, 내가 참 못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결국에는 애한테 고통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내 자신이 싫어요.”(참가자 3)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 쓰는 체력도 만만치 않고.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하니까 집에서 아이랑 씨름하면서 키우는 것도 체력이 많이 들고. 또 가장 많이 체력을 소비하는 길은 소리 지르거나 아이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를 제지시키는 그 체력이 진짜 어마무시한 거 같아요.”(참가자 1)

엄마가 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 이 엄마들은 몸과 마음의 병을 얻었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

###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병을 얻음

“사실 이렇게 씩씩하게 말하지만 저도 얼마나 마음에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 원하고 심리센터를 다녀요. 왜냐면 진짜 혼자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애기한테 다 가고 그래가지고.. 한번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나왔는데 우울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울증 증세도 있고”(참가자 3)

“강박적으로 저를 희생하거나 해서, 제 감정을 희생하든지 제 시간을 희생하든지 해서, 그걸 다시 안정적으로 제 통제 안으로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숙하고 애기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참가자 1)

### 3) 관계의 단절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다.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부정적이고 그걸 알아서 미리 관계를 차단

하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였다.

### 주위 시선에 대한 불안

“헤어지고 나서 말하러니까 솔직히 좀 그런 거예요. 말하기가 되게... 애가 나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하지? 친한 애인데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안 좋게 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참가자 2)

“예전에 한번 도와준 그 친구 빼고는. 한~명도 몰라요. 그게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정도로밖에 애를 생각 안했기 때문에 애도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할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참가자 3)

###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됨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배신감도 많이 들 거고. 분명히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라고 집을 나왔죠.”(참가자 3)

“그 전에 1차 시설 들어가서 애기 넣고 키우겠다고 한 순간부터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빠는 인제 너는 너무 부담스러운 딸이다 보지 않겠다고 했고. 엄마도, 저는 그거를 주민센터에서 알려주고 나면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카톡 이런 것도 없어요.”(참가자 1)

그나마 존재했던 작은 지지체계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일지라도 단절되었고 이들은 가정 안으로 고립되었다.

### 코로나로 인해 고립됨

“큰 이모하고 작은 이모하고 그렇게 조금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은 엄마하고 저하고 OO하고 셋이서...”(참가자 2)

### 4)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미혼모가 되면서 하나의 지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 된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찾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음

“그렇게 안 살던 환경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 보고 동사무소 미친 듯이 두드리고... 그거를 6개월도 더 넘게 했었죠.”(참가자 3)

“그때 열심히 신청을 해서 받고, 다행히 얘기를 낱고나서 능력이 하나 생긴 게요. 부끄럽긴 부끄러운데, 그냥 무작정 ‘나 힘들어요!’ 호소하는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도 안하고 무작정 힘들다고만 하네?’이래서 안도와주거든요.”(참가자 3)

“이제 막달이 됐는데 얘기를 낱아야 되는데 혹시나 출산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제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시설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1차 시설을 가게 됐고, 거기 입소한 1차 시설을 찾은 경로는 네이버 검색.”(참가자 1)

미혼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었지만, 받는 지원은 기대했던 것보다 늘 부족하고 아쉬웠다.

## 부족하고 제한된 지원

“출산 관련 카드요. 아기 낱고 부가 비용도 다 들어가고. 산후 조리원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백 얼마, 팔 십 얼마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한 게 조금 서러웠고요.”(참가자 2)

“뭐, 나라 지원금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게, 사실은 턱도 없거든요. 그 돈으로 병원 몇 번 가면 끝이에요. 나중에 태동검사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참가자 3)

“베이비시터요, 그게 3주였나, (아이가) 3개월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아기가 무거운데 이제 제가 학교 갈 때는 엄마가 아기를 안아야 하는데 엄마 인대가 막 늘어났 거예요. 팔이 통통 붓고.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그게 안 되서 서러웠고요.”(참가자 2)

특히 한 참여자는 미혼모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다양한 문제점을 꽤 상세하게 장시간 토로하였다.

“엄마들이 시설 생활 하면서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잘못 보이면 젖병을 하나 받아 오려고 하더라도 우리 애가 쓰는 젖병을 못 받아들지도 모르고...”(참가자 1)

“뭔가 되게, 약간 그런 거 애는 신청서를 주고 애는 신청서를 안 주고 애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저도 신청 할래요’하면 ‘어, 이제 안 해.’

이 사람, 얘기해준 사람도 기회가 같이 찢리는 거예요.”(참가자 1)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의 삶의 조건에서 닿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도 많았다.

### 부적절한 자격기준

“취업성공패키지를 애 50일 때 15만원 받으려고 갔다가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2년 6개월 뒤에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걸 못하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가면 안되냐 하니까,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단되고, 학원은 가야할 것 같은데 돈은 없지...”(참가자 3)

“다른 어린이집을 전화했더니 ‘어머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데 서류들이 엄청 복잡하다’면서 취업했다는 곳의 4대 보험 서류, 그런 것도 들고 와야 하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애를) 조금 키워놓으면 4대 보험 되는 직장 가겠지만... 뭐, 아르바이트가 다지. 그런 데서는 4대 보험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참가자 3)

한부모 지원 자격 소득기준도 너무 낮아 오히려 자립의지를 방해한다고도 하였다. 이 참여자의 경우 그 안에 있을 때 자립을 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지만, 막상 자립해보니 생활이 나아진 게 별로 없어서 허탈해했다.

“저는 이직하면서 소득이 오른 거여서 이제 오른 지 이번 달로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약간 올라서 메리트가 별로 없는 느낌... 저는 지금 이제 거기 법적 한부모 소득 수준에서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고민은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거기서 10만원, 20만원 벗어나서 나온 거지, 거기서 50만원, 100만원이 벗어나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참가자 1)

“그때 그 구간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소득수준이 돼서 더 번만큼, 있었던 혜택을 내 돈으로 메꾸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득 안에 있으면서 일을 좀 덜 하고 아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고 혜택을 받는 것과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참가자 1)

### 5)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문제점

직장을 다니기 위해 일찍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참여자의 경우,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11개월 그 때였나? 10개월 쯤 됐을 때 갔었던 거 같아요.”  
(참가자 1)

“그 전에 학원에서 일을 할 때는 주말에 교육을 받으러 출장을 갔었어야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 못 볼 때가 있었어요. 그 때는 거의 한 정기적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아이돌보미를 활용) 했었고.”(참가자 1)

“일단 정부 지원 시간이 있으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없어서, 사실 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정부 지원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지원이...”(참가자 1)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입장에서 안전하고 질이 좋은 보육서비스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 보육서비스의 문제들

“돌보미요? 제가 그거 썼다가 한번 크게 데이고는 안 쓰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없는 곳에서 나쁜 짓. 제 기준에 너무 애를 막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명령조로 말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애기 컨디션은 생각도 안하고,.. 애 기랑 기싸움해서 이기려고 하고.”(참가자 3)

“퇴소하고 어린이집을 옮겼는데 어린이집이 진짜 완전 개판이었어요, 정말. 아이 밥도 잘 안 주고 그 다음에 식재료도 돌려서 쓰고 선생님도... 4개월 다녔거든요. 4개월 동안 세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가 거기를 퇴소하는, ‘그만 다닐게요, 다른 데로 옮길게요’하는 순간 또 바뀌었어요.”(참가자 1)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두부를 더 먹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대요. 더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혹은 배가 똥똥해진다고. 그 애기를 일주일 내내 3번 들었거든요. 평균적으로.”(참가자 1)

### 6)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더 부정적인 시선을 견디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했던 미혼모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어찌면 더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으며 남에 대한 배려심도 생겼다.

## 부모가 되면서 변화함

“그래도 아이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남들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제 친구도 그래요, 저 많이 달라졌다고,..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보고 똑바로 살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고. 아이 엄마로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진짜 책임감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참가자 3)

“제가 준비가 돼있지 않아도 육아는 계속 도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허구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애기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질문이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라고 바뀌더라고요...”(참가자 1)

“그래도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조금 이기적이고 애들 것도 조금 빼앗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애기를 낳고 이제 제가 솔직히 다 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 보니까 덜 이기적이게, 남을 많이 배려하게 되고...”(참가자 2)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해나가고 있지만, 때로는 후회스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불쑥불쑥 생겨나서 준비하고 있었다.

## 후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많이. 외롭고 친구들 보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고 교복 입고 싶고... 나도 다니고 싶은데. 애들은 다 이렇게 놀러가고 다 같이 하는데...”(참가자 2)

“저도 보육원 보낼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씩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애초에 내가 안 가졌고 지웠으면 나는 평범하게 또 살 텐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애기로 인해 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아쉬울 것도 없고요, 후회도 그렇게 썩 많이 안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참가자 3)

##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

“현재는 애기를 키우려면 전문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용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자격증을 따야 해요, 그래야 취업을 할 수 있어요.”(참가자 3)

“진로를.. 제가 조금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공무원. 아니면 아기들도 좋아해서 유아교육과 가고 싶은데 일단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목표로 (대학을) 갈 생각이예요.”(참가자 2)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현재를 버티는 데 아이는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다.

### 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음

“예쁘고... 음... 그리고 힘이 돼줘요. 이 쪼그만 게 뭐라고 엄청 힘이 되거든요. 잘 때도, 저 막 가위눌리고 이상한 형체보이고 이랬어요, 한동안... 기가 약해져서. 근데 애가 옆에 눕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 쪼그만 게 뭐라고 나를 안심시키나 이래서, 행복하죠, 좋죠.”(참가자 3)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좋은 부모,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사랑은 해요. 사랑을 해주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게 훨씬 많은 거 같아요.”(참가자 3)

“저는 하나의 문제, 어떤 예전에 했던 대화 있으면 그 대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던지면 안 되지 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이 때도 얘기하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터져도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아니면 제가 얘기를 할 문제가 있다면, 이럴 때 대화를 피하지 않는 거는 저의 부모로서의 강점 맞는 것 같아요.”(참가자 1)

“놀아주는 거요. 몸 써서 놀아주는 거. 약간 엄마는 조금 정서적으로 공부 쪽으로 블록 쌓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저는 공 굴리고 던지고 막 이제 박수치고 흔들고 춤 추고 이런 것 약간 신체적으로 막 뛰어 다니고 ‘잡으러 간다’ 이런 거 하는 거...”(참가자 2)

## 라. 빈곤가정 한부의 양육경험

이번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중 한부가정의 양육경험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한부 양육자들은 총 4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은 비교적 오랜 결혼생활 끝에 배우자 외도 등의 문제로 이혼을 하여 한부 가정이 되었고 그래서 영유아가 아닌 비교적 나이가 많은 아동들도 키우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고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혼부가 친생모의 도움 없이는 자녀를 출생 신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양육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IV-2-7〉 빈곤가정 한부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심층면접자 인구학적 특성	
수도권 (미혼부)	양OO	2인 가구. 남아(3). 40세. 미혼부.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하는 중. 첫 결혼(15년 결혼생활 후 이혼/자녀 2명, 여(15), 여(12), 엄마가 양육)에서는 이혼하였음. 이혼후 아이가 생김.
	송OO	3인 가구. 47세. 고졸. 건축업. 여아(5). 치매 노모(82) 동거. 동거 중 임신. 모가 이전 결혼에서 법적 이혼이 안되어 있던 상태라 혼인신고 불가, 이별. 미혼부가 됨
비수도권 (이혼)	조OO	58세, 대졸. 동거 중 임신으로 혼인신고, 10년 정도 결혼생활. 2년 전 이혼. 4인 가구, 남아(14), 남아(12), 남아(7)
	김OO	42세, 고졸. 9년 정도 결혼생활, 3년 전 이혼. 4인 가구, 수급가정. 남아(11, 초4), 남아(9, 초2), 남아(7).

면접에 참여한 빈곤가정 한부의 양육경험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IV-2-8〉 빈곤가정 한부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범주	개념
이혼과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내의 가출과 이혼</li> <li>• 니홀로 육아</li> <li>• 엄마 없이도 잘 키우고 있음</li> </ul>
자녀양육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의복준비의 어려움</li> <li>•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임</li> <li>• 자녀 교육지원의 어려움</li> <li>•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li> </ul>
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li> <li>•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의존도가 높음</li> <li>• 아쉬운 서비스체계들</li> <li>• 위기시 아동돌봄 체계</li> </ul>
근로중단과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를 위한 근로중단</li> <li>• 조건부수급, 자활참여</li> <li>• 지원을 받으며 버티나감</li> <li>• 아이 양육비를 못 받음</li> <li>• 편법적인 근로를 함</li> </ul>
부모됨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감을 느낌</li> <li>•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함</li> </ul>

한부 빈곤가정 역시 부가 홀로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가정보육을 전제로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살게 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 센터를 모두 활용하면서 아이 양육을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한다. 같은 질문



목록으로 진행된 면접이지만, 한모 빈곤가정이 이혼과정의 어려움, 주거 공간을 확보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였다면 한부 빈곤가정은 그보다 아이들과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 특히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이들에게는 영유아가 아닌 보다 큰 자녀들도 있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가정에서 지원해주려는 노력보다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많이 토로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게 보육서비스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유연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기관을 만나는 것은 역시 쉽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이들 역시 자연적 지지체계가 열악하였고, 만일 부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공식적인 서비스체계뿐이었다. 이들 역시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소소하지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 1) 이혼과 육아

이들의 결혼 혹은 동거생활은 오랜 갈등 끝에 아내의 외도와 가출로 끝이 났다. 계기는 그랬지만 이혼하기 전에도 아내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과소비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결혼/동거 기간 내내 지속적인 갈등과 다툼을 경험했다.

#### 아내의 가출과 이혼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셋째까지 낳았는데, 그러다가 끝내는 외도를 해서, 그리고 애들 폭행도 있어서 이혼을 결심했죠...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여기서 집어던진다느니, 죽으라고 얘기도 했었고... 하트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많이 했으니까.”(참가자 4)

“그냥 딴 남자 만나다가 나갔어요. 먼저 협의 이혼을 해 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변호사 사고 별 짓을 다 했더라고. 근데 뭐 변호사 없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겼어요.”(참가자 3)

“건설 사업을 하면 돈을 못 받는 때가 엄청 많아요. 제대로 받아야하는데 못 받으니까 못

갖다 주니까, 그런데서 저기가 된 거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데 애기 엄마가 도벽이 생  
기더라고요. 애기 낳고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나가더라고요. 말도 없이 짐 싸서.”(참가자 2)

이혼 후 이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워야했다. 어린 아이가 있으니  
키우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이들도 큰 문제없이 비교적 잘 컸고 항상 다투던 아내가 없으니 오히려 편하기도  
하였다.

### 나홀로 육아

“혼자. 누구한테 뭐 도움 요청할 상황도 아니고. 그냥 혼자 애들 끼고 살았죠. 만만찮았어  
요, 처음에. 애기가, 막내가 똥 기저귀 갈 때는 진짜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3-4년 지났  
죠. 그러니까 인제 좀 막내가 아직도 저 소변을 완전 못 가리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참가자 3)

“없어요. 뭐 도와주는 것도 어느 선이 있는 거지. 뭐, 전적으로 와서 뭐 도와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인제 애들하고 이렇게 살다보니까 누가 도와주러 온다고 해도 불편할 거 같  
아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참가자 3)

### 엄마 없이도 잘 키우고 있음

“그 전에 살면서 좋은 기억은 개들도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많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막  
내도 전혀 안 찾아요. 엄마 찾으면 내가 혼내서 안 찾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해준단 얘  
기죠. 엄마 손길이 필요하겠지만 잘 해주니까 저기 안 찾는다고 봐야죠. 엄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고 봐야죠. 막내도 안 찾아요.”(참가자 3)

“아예 없으니까, 일단 저부터 편하고... 왜냐면은 있을 때는 맨날 다투고 뭐하고 했었으니  
까. 없으니까 그런 거 없고. 애기들도 오히려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더 잘  
먹이고...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있었으면 더 잘 했을까? 글썄요...”(참가자 4)

## 2) 자녀양육의 어려움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  
을 겪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아이들의 의식주를 챙겨주고 학업을  
지원해주는 일상적인 양육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

“저도 키우다가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2개월 정도 정신과에 입원해 있었다가 그러고 나왔거든요. 뭐.. 사실까지 시도했었으니까..”(참가자 4)

### 식사/의복준비의 어려움

“그거는 뭐, 그것도 전에는 제가 직접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반찬 서비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온 거 하고 제가 조금만 조리해서 후라이라도 하던지 카레 사다가 하든지 그렇게 해서 먹고 있거든요.”(참가자 4)

“참 어려워요. 막내 같은 경우는 햄만 익혀주면 개는 아마 10년이라두 먹고 살 것 같아요. 또 애들도 식성이 다 틀려갖고. 김치 같은 건 대지도 않고. 큰 애는 라면을 주면 살고. 둘째는, 그러니까 아침에도 둘째만 밥을 먹고. 큰 애하고 막내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점심때까지 굶다가 큰 애는 점심을 먹는 거고.”(참가자 3)

“근데 애들이 점점 커 가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데. 애들 옷 맞춰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주는 것도 그렇고, 그날그날 입어야 되는 옷도 그렇고.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오늘은 뭐 비 오는데 반바지 입혀야 되나? 그런 거...”(참가자 4)

스스로는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반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과 대화가 부족했고, 함께 하는 놀이는 거의 없었으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놀기 바라고, 각자 TV,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임

“아무래도 요즘 휴대폰에 다들 빠져갖고 같이 게임한다던가. 아니면 게임 하게끔 놔두고 저는 TV 보고. 아니면 잠깐 담소 나누다가 그 정도?... 주로 하는 건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낚시 데려 가고, 특별히 어디 놀러가겠다 그러면, 그런 거 외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죠.”(참가자 4)

“다 따로. 큰 애 핸드폰, 작은 애 핸드폰, 막내 티비 뭐 유튜브 보던가 핸드폰 보던가. 저녁에 밥 먹고. 또 각자 또 밥 먹고 나서 각자 플레이. 또 각자 플레이.”(참가자 3)

“저는 솔직히 그런 시기 놓친 거 같아요.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는 시기를 놓친 거 같아요. 첫째한테 놓치니까, 둘째, 셋째까지 다 놓치게 된 그런 영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첫째하고 말 하면은 웬만하면 말도 잘 안 하려고 해요.”(참가자 4)

학교를 다니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안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일찍 자야 아침에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어 하니 싸우기 싫어 그냥 두고 보고, 애가 학교에 늦게 가는데 선생님들이 혼내지도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 자녀 교육지원의 어려움

“지금 최고 어려운 게 애들 교육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딴 건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하는데.... 애들이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전부 게임에 완전 미쳐가고, 다. 막내까지 다. 근데 뭐 어떻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핸드폰 끼고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애들. 그래가고 공부 허는 놈은 허는 거고 허기 싫은 놈은 않는 거고.”(참가자 3)

“학교 가도 자고 집에 와도 늦게까지 핸드폰 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더라고. 사춘기까지 와 가고 뭐라고 해봐야 대들라고 해가고. 뭐 어떡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했죠. 일이라도 하라고... 학교 때려치고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참가자 3)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가정에서 아이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했고 그래서 아이를 다시 학교의 긴급 돌봄에 보내기도 하였다.

“온라인 수업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켜놓기만 하고 클릭만 하는 거죠. 그리고 티비다가 저기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여건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근데 전혀 관심 없어요.”(참가자 3)

그러면서도 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는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보내지 못하니 아이들 학업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00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씩크빅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되게 제가 힘들었었어요. 돈이 없어서...”(참가자 4)

“그런데 지금 애들 학원 같은 거 보낼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가고 애들 학원 보낼 수 있는 원 그거를 지원을 받아볼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참가자 3)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

“부족한 거는 일단 경제적인 거. 돈 문제가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못해주고 있는 거는, 현실상 지금 이거 출생신고 못해주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죄지은 거죠. 지금까지도 안했으니까.”(참가자 2)

특히 미혼부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법적인 이유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어린이집도 보내고 싶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어떻게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동사무소를 갔어요.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애기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혼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있어야 일단은 출생신고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많이 좀 꼬였어요.”(참가자 1)

“애기가 어디가 아프지. 병원조차도 못가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출생신고 못한 애들은. 주민등록 못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요.”(참가자 2)

“아이가 어린이집도 못가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주는 이유가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집에 있으면 20만원씩 한 달에 나오잖아요. 그거조차도 못 받는 거예요. 출생장려금조차도 못 받고 있고 다달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못 받고 있고.”(참가자 2)

“근데 그 때 때마침 애기랑 저랑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는데. 애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줘요. 출생신고가 안 돼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보험처리도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났거든요.”(참가자 1)

### 3) 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이용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노력했다.

####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

“그래서 계속 이제 주민센터 가서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겠냐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뭐 이렇게 한 번 해보시겠어요, 저렇게 해보시겠어요. 잘 도와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알아보시고 미리 연락주세요. 진짜로 막.”(참가자 1)

특히 낮 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봐줄 보육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는 이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핵심적인 서비스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의존도가 높음

“어린이집이요. 최대한 어린이집을 빨리 찾았어요. 빨리 찾아서 한 1년 정도 케어를 해주시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에 (그 어린이집의)맘마 쌤이 다니고 있었어요.”(참가자 1)

“요즘은 복지생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유치원에서도 한 4시 반? 세 시 반 이때 끝나서 지역 아동센터로 가서 6시 반, 7시까지 애들 봐주니까.”(참가자 4)

“처음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도움을 받았죠. 애기한테 옷도 사다주고. 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영양제도 사다주고. 하다보니까 도움도 받고 어린이집에서 원비도 감량받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참가자 2)

하지만 사회서비스 체계는 부족했고 이용조건이 까다로웠으며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서비스의 질이 나쁘거나 이용금액이 부담스러워 이용할 수가 없었다.

### 아쉬운 서비스체계들

“너무 뻣뻣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일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다 얘기하고 했으면 그러면 사연을 한 번 올려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아예 엄두도 못 내. 말도 못해요.”(참가자 2)

“(어린이집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더 말하면 애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냥 다른 데로 옮겨보자 했는데... 그 때 막상 나오면서 알아본 게 시간제 보육 그거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애 보냈다가 첫 날에 애가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못 보내겠더라고요.”(참가자 1)

“애들 돌봐주시고... 그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따지면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은 8만원 그 정도 벌거든요. 만약에 돌보미 신청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걸 신청을 하면 하루 나가서 제가 8만원 버는데 한 5만원이 깨지는 거 같아요.”(참가자 4)

자연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이들에게 공식적인 서비스체계가 이들 가정의 응급돌봄 체계 기능을 해주고 있었다.

## 위기 시 아동돌봄 체계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람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자고 애들 출근까지 시켜주고 그러고 퇴근하시고.”(참가자 4)

“현재는 재가복지센터. 제일 도움이 많이 되죠. 어머니 병원 모셔야하면 전화를 하죠. 그러면 센터장님이 차로. 그리고 OO는 요양사 선생님이 병원치료 받을 때 까지 봐주고. OO가 아프면 요양사 선생님이 어머니 봐주고.”(참가자 2)

### 4) 근로중단과 경제적인 어려움

어린 아이를 직접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야간교대 근무 등 근무시간대가 일정치 않거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와 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육아를 위한 근로중단

“일을 하면 아침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정식 직원 돼가고 출근해가고 8시, 9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나가면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면 애들 밥 같은 거, 밥 허고 애들 저기 씻고 뭐 허고 다 챙겨가고 가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먼저 하던 일을 나갔을 거예요.”(참가자 3)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내가 애들 케어를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참가자 1)

그래서 육아를 전제로 조건부 수급자가 되거나,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으며 그러다가 사회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기도 했다.

### 조건부 수급, 자활참여

“거기(자활센터)에서 4시간짜리 근무해요. 막내가 어려가고, 그리고 애들 셋인데, 애들 뭐 돌보고 뭐 가서 일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일 하는 건 불가능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저기 하루 종일은 못 허고. 저기 뭐 아침에 늦게 오고 저녁 때 좀 일찍 가고 그런 거 얘기해봤더니 4시간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참가자 3)

“집에서 혼자 애 키우다 보니까 일 못하고. 그래서 인제 방법을 찾아봤죠. 찾아보면 자기한

데 맞는 기회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뭐죠 영세민? 옛날 말로 영세민이죠. 그 영세민 신청해서 되기도 하고...”(참가자 1)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조건부 수급자가 되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버티나갈 수는 있었다.

### 지원을 받으며 버티나감

“뭘, 여유는 없죠. 그래도 그냥 버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가 많이 좋아져가고. 그래도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한 90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버틸 만은 해요.”(참가자 3)

“그 아기가 어릴 때 12개월 안에 바우처 카드 해서 기저귀, 분유, 조제분유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주니까. 그것도 좀 뒤늦게 알아서 뒤늦게 한 번에 받긴 했죠. 분유 값, 기저귀 값 충당할 정도.”(참가자 1)

“집으로 오셨죠. 처음에 사는 집, 학교 앞 말고 보건소 앞에 살았어요. 완전히 하꼬방 집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부터 얼른 구하자고. 이사하는 집도 LH전세 절차를 밟아주고, 방송출연해서 후원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다 받고 한 거죠.”(참가자 2)

이혼하면서 아내가 주기로 했던 양육비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 아이 양육비를 못 받음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한 번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저번 달까지는 또 잘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은 또 입금이 안 됐습니다.”(참가자 4)

지원되는 금액은 적고 애들이 커나가니 돈이 더 필요하지만 특히 조건부수급을 하는 경우 소득이 늘면 수급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들은 가끔 아르바이트하는 식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기도 했다.

### 편법적인 근로를 함

“그리고 주말에 흑시 일이 잡히면 원래 제가 일을 하면 안돼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편법으로 일을 하는 거죠. 놀이방이나 이런 데 맡기고선 일을 나가거든

요.”(참가자 4)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내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대한 금액이 감액돼서 나와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돈 50만원 감액될 바에야 얘기 못 사주는 게 낫지 이 생각을 하니까. 신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신고는 못하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중간 중간. 그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참가자 1)

## 5)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이들도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높았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을 인식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였고, 이혼하면서도 아이를 전 배우자에게 맡기지 않고 ‘굶어 죽더라도’ 직접 키우기로 선택했으며 또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이를 맡아 키웠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하였다.

### 책임감을 느낌

“제가 그때 안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혼할 때. 너한테 가면 깡통 밖에 더 되냐. 진짜 굶어 죽더라도 내가 기르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면서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거고.”(참가자 4)

“인제 애가 생기면 마음이 자유로웠던 게,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근데 애기가 생겼을 때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가족이란 게, 딱 애가 생기니까 가족이라는 게 딱 생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다잡게 되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참가자 3)

“다 놓고 살았어요. 혼자서... 애 생기고 혼자 키우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개인 회생도 하게 되고, (중)학교도 지금 다시 복학... 방송통신 뭐 그쪽으로 알아보고. 뭐 담배도 되게 오래 폼데 담배도 끊었고. 혼자서 애 키우다보니까 돈도 아깝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부족한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싶지 않단 생각도 들고.”(참가자 1)

“제가 제일 달라진 거는 제가 힘들면 일을 안 갔거든요. 애기가 OO를 낳고 나서는 1년 365일 안 쉬었어요. 일 끝나면 야간 일도 하고. 제가 6시에 끝나면 야간 일을 갔어요. 7시부터 4시간짜리 일을 갔거든요. 냉동창고 가서. 시간당 만원씩이니까 그거 보고 간 거죠.”(참가자 2)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노력해 온 일들은 소소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로서 자신이 지켜온 중요한 기준선이기도 했다.

###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함

“애들하고 유대 관계는 괜찮은 거 같아요. 특별한 트러블도 없고. 애들 혼내는 것도. 친한 거 같아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뭐 친하게 애들하고 유대 관계는 괜찮은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 뭐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허구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허구.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다 그래요. 그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참가자 3)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시켜주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빛을 내서라도. 그런데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OO이한테 그랬거든요. 그래, 공부하고 싶으면 해야지.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테니까,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벌써 근 2년 넘어가네요.”(참가자 4)

“맨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몸은 피곤한데 왜 유아 관련 막 강의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챙겨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구나.”(참가자 1)

### 마. 빈곤가정 조부모의 양육경험

이번 연구에서는 조손가정 면접도 포함되었는데 계획과 달리 2가정에서만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홀로 영유아를 키우는 조손가정 섭외가 쉽지 않기도 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섭외되었던 면접이 계속 취소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 체계에서 조손가정은 보통 대리위탁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에서도 대리위탁부모로 지정받아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두 명의 조부모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본인 자녀인 딸이 임신, 출산 후 가출하여 남겨진 손자녀를 맡아 키우게 된 이들이었다.

면접에 참여한 빈곤가정 조모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2-9〉 빈곤가정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심층면접자 인구학적 특성	
비수도권	수조모	외조모(62). 여아(4). 2인 가구. 대리위탁가정.(외손녀, 딸의 아이)
	소조모	외조모(56). 고졸. 여아(4). 4인 가구. 대리위탁가정. 외조부(63), 셋째 딸(23)

그리고 면접에 참여한 빈곤가정 조모의 양육경험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2-10〉 빈곤가정 조모의 양육경험 분석결과

범주	개념
자녀의 출산과 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낙태를 거부함</li> <li>• 자녀(친생모)가 가출함</li> <li>• 친생부 측에서 아이를 거부함</li> </ul>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싶었음</li> <li>• 가정위탁을 신청함</li> <li>• 경제적인 어려움</li> <li>• 너무 힘든 육아</li> <li>• 병을 얻음</li> </ul>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서비스체계의 도움을 받음</li> <li>•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음</li> <li>•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서비스</li> <li>• 위기사 아이를 돌봐줄 지원체계가 부족함</li> </ul>
부모됨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키우는 보람을 느낌</li> <li>•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놓음</li> <li>•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음</li> </ul>

이번 연구에 참여한 조손 빈곤가정 주양육자는 모두 아이들의 외조모였다.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여러 번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딸이 낳고 싶어했다. 하지만 출산 후 딸은 아이만 남겨두고 가출해버렸다. 손자녀의 친생부를 모르거나 친생부 측에서 아이를 거부하였다. 처음에는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이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더구나 가출한 자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할 수 없었다. 결국 가정위탁을 신청하고 맡아 키우게 되었다. 그렇지만 육아는 너무 힘들었고 여러 가지 병도 얻었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더 고달팠다. 아이를 맡아 키우면서 가정위탁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는 등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프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고민스럽다. 힘들어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자신이 언제까지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다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쁘게 너무 처지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다.

### 1) 자녀의 출산과 가출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임신을 확인했을 때 이들은 자녀에게 여러 번 낙태를 권유했지만 자녀들은 이를 거부했고 낳아서 키우겠다는 선택을 하였다.

#### 자녀가 낙태를 거부함

“저는 이 아가 저기 학교 다닐 때 애를, 애를 임신을 한 거예요. 21살인가 22살인가. 그래서 요새 돈 많이 주면 지울 수 있으니까 3번을 (병원)에 댔고 갔어요. 3번. 그런데 지는, 엄마 이거는 생명을 거는 건데 하면 안 된다면서... 벌을 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까 나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하겠거든. 그래 우에 우여곡절 끝에 낳았어.”(참가자 1)

“내가 애가 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 이거를 해봐라 이래 하면서 찾아 집에서. 주니까 받아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더라고. 그래 지우러 가자 이러니까 안 지울끼래. 낳을끼래. 그래 남자도 모르고 한데 지우러 가자 하나까. 그러면 니하고 같이 관계했는 오빠는?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참가자 2)

그렇지만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한 자녀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만 남겨둔 채 가출해 버렸다.

#### 자녀(친생모)가 가출함

“지도 한 1년은 키웠어.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애 키우는 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편없이 키운다는 게... 이 아가 너무 어리고. 아가 학교를 다니다 말고 가출을 해버렸어. 아만 나한테 말기고. 학교 졸업 하지도 않고.”(참가자 1)

“(이전에도)집을 나간 적이 엄청 많거든요. OO이 낳고 기어 다닐 때도 나갔다가 걸어 다닐 때 다시 또 들어왔다가, 결국은 애를 놔놓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인자 그 때가 6-7개월 됐나. 그 정도 돼서 인자 애를 놓고 나가가고, 아예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디 생사를 모릅니다, 지금.”(참가자 2)

가출한 자녀(친생모)와 나중에 연락이 다시 되기도 했지만, 자녀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본인이 낳은 아이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도 자신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데려가 키우라고 하지 않았다.

“연락은 돼. 연락은 되는데 나는 인자 가가 내려오라카는 거는 안 하지. 지도 이제 살아야지. 지도 살아야지, 안 그래. 이제 25살인데, 지도 지 인생을 살아야지.”(참가자 1)

남겨진 손자녀의 친생부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경우에는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친생부나 그 집에서는 알아서 낳았으니 알아서 키우라며 거부하였다.

### 친생부 측에서 아이를 거부함

“(친생부는) 네, 모르고 있어요.”(참가자 2)

“나는 이 아를 시댁이 가까워, 친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가. 가까운 데도... 몇 번 데리고 갔어. 근데 안 키울라 하는 거예요.”(참가자 1)

“저거 집에 드러누워 있어. 그래가고 취직도 안 해. 있어. 즈그 집에. 즈그 엄마도 아버지하고 이혼한 상태데, 한 번씩 밥 해주고. 드러누워 있고 즈그 아버지하고 살아. 살고 있는데 애를 안 키운다 하니까...”(참가자 1)

## 2)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처음에는 이들도 남겨진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고 싶었다. 나이가 있으니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싶었음

“자주 가서 저 집에 있는데 거도 아를 갖다 맡긴다 카니까, 나도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디 아를 맡길 데가 있으면 맡기고, 저거 엄마도 아무 것도 없어. 맡기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간다든가. (시설에?) 그래 할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 도저히 못 키우겠더라고.”

“처음 즈그 엄마가 나가고 나서 애를 다른 데를 입양을 보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형편도 어렵고, 즈그 할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도 애를 입양을 시키라, 다른 데를 보내자,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어디를 보낼 수 있다고 하데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애를 못 보내는 거라.”(참가자 2)

그렇지만 친생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보내기도 어려웠고, 시설에 맡기자니 아이를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래저래 직접 키우게 되면서 가정위탁 신청을 하게 되었다.

“개도 유기견 센터 맡기는 거, 말이 좋아서 맡기는 거지 버리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참가자 1)

### 가정위탁을 신청함

“그러면 할머니, 이런이런 게 있는데 한 번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니깐 바로 되던대요. 신청하니깐.”(참가자 1)

“우리 딸, 막내 딸이 부라부라 어디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인자 제 밑으로. 제가 후견인이 되고 야가 인자 저거 되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있어야입니까.”(참가자 2)

### 경제적 어려움

안 그래도 어려웠던 형편에, 아이를 키우려니 그나마 하던 일도 계속 할 수가 없고, 이래저래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그거는, 아 키우는 할머니들은 다 그래요. 일을 할 수가, 못합니다.”(참가자 1)

“내가 입원하고 야 입원하고 무슨 이게 빔을 내서 쓰는 것도 한 두 푼이고. 또 내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느낀 거는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참가자 1)

“(할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날이 그거 하고 날이 춥고 뭐 덥고 바람 마이 불고 비 오고 이럴 때는 일하려 못 가고. 그래해보야, 뭐 돈 해보야 8-90만원. 이렇게 밖에 못 받아와요.”(참가자 2)

### 너무 힘든 육아

육아는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컸으며, 육아에 매달려야 하니 본인의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었다.

“내가 막상 키워보니까, 사람은 안 키워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고. 그 우물에 안 빠져 본 사람은 우물에 빠진 느낌을 모르듯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를 키운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지옥의 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옥의 끝.”(참가자 1)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는 거는 체력적으로 엄청스리 수명도 단축되고, 지 행복지수는 아예 없어요. 이제 친구들도 안 만나. 안 만나줘, 내를...”(참가자 1)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육아의 고달픔은 몇 배가 된다.

“힘들 때는 마이 보채고 울고 막 이래 할 때. 아프고 할 때 아이가 마이 아프고 할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병원에 한 3번 입원시키고 했는데. 그 때가 제일 힘들었고.”(참가자 2)

“그러다 또 이 아이가 아파가고 8번을 입원했어. 이 아이도 저거 할머니가 피곤하고 또 또 그 엄마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 아도 스트레스를 받겠지. 원가. 아도 큰 삼성 병원에 8번 입원했어. 그거 또 8번 입원할 때 지키고 있어야 되고, 나는 또 일은 일 대로 해야되고....”(참가자 1)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키우는 과정에서 할머니도 병을 얻었다.

### 병을 얻음

“아 가출하고 아 혼자 불라니까 힘든기라. 그런데 와 나이, 세월은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키우니까 가슴이 열이 막 올라오데. 아이고, 드디어 내가 죽을병이 걸렸는갑다. 과로를 했나 싶어서 또 가니까. 여기 돌맹이가 끼가고. 담석. 그게 이걸 딱 찌지면은 되는 게 있고 수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수술해야 된다대. 거기에 이제 당뇨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내가.”(참가자 1)

“그 때 고관절 해가지고 인자 그 길로 인자 안 나가죠. 이제 일 있다고 한 번씩 와가 해달라하면 딸 한테 좀 봐라 하고 갔다가 3시 되면 오고. 그라고 인자 아예 지금은 일은 안 하고 있어요.”(참가자 2)

### 3) 사회서비스의 도움과 한계

현재 서비스 체계에서 조손가정은 보통 대리위탁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도 대리위탁가정으로 지정받았기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다.

#### 가정위탁서비스체계의 도움을 받음

“얼마야 (한 달에) 60만원인가.”(참가자 1)

“지원금은 지금 기초수급해가지고 50만원씩 받는 거.”(참가자 2)

“쌀 10kg짜리. 야 같은 경우에는 아가야 부모가 없는 수급자니까 쌀은 10kg 와.”(참가자 1)

“가정 위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거기서만 인제 전화 와가지고,

책 같은 거 있다 갖다 주시고. 배개도 갖다 주시고.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런 거는 있어요.”(참가자 2)

당연히 이들에게도 보육서비스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서비스 체계이다. 아이를 낳 시간대에 맡아 주는 것 외에도 좋은 선생님이 엄마가 사라진 후 불안한 정서를 보이던 아이를 많이 도와주었다.

###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음

“그 뭐라하노, 그 돌, 12개월 이후에 갔다고. 엄마가 있을 때는 (집에) 있었지. 엄마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인차 갔죠.”(참가자 1)

“어린이집도 도움을 주지. 어린이집에서도 저한테 그 뭐고 교재비 외에는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을 하는 거 하고...”(참가자 1)

“그래가꼬, 애가 안 떨어질라하고 원장쌤한테도 안 떨어질라하고 그 쌤한테 엄마라 하고 자꾸 다니고... 이사를 때도 애를 델꼬 올 텐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리 와도 적응을 못 할 거 같아서 거기 가는데...”(참가자 2)

“(이사 와서도) 계속 거기 다니고 있어요. 요 와바야 원장이 저 원장쌤처럼 챙겨줄 사람도 없고 쌤들도 그만큼 못 챙겨주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이 운영을 해주겠다, 그래가...”(참가자 2)

그렇지만 사회서비스 이용도 무난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신청해도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이 안되거나 (할머니가 보기에) 자신들의 편이만 생각하는 보육시설 측의 태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알기는 아는데 그 신청을 한 번 하니까 되도 안 하고 괜히 전화로 스트레스만 받고. 신청도 안 돼, 그게. 그게 있다 해도 없어. 신청 안 돼. 그 품만 그런 게 있다. 무늬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없어. 밀려있고. 해당사항이 없어. 무늬만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다 그거지 없습니다.”(참가자 1)

“어린이집에서 말이 6시까지 봐주고 하지, 아니예요. 어린이집 3번 옮겼어요. 4시만 되면 전화가 와... (전단지) 돌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 사람 불안하게... 내가 없던 혈압이 생길 것 같애.”(참가자 1)

힘들어도 지금은 자신이 어찌 해나가고 있지만, 자신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이 크다.

#### 위기 시 아이를 돌봐줄 지원체계가 부족함

“누나 니가 참 이상하네. 아 장래를 위해서 즈그 아빠가 있잖아. 거 갖다주지 누나 니가 왜 그러는데. 나이 묵어가고. 나한테 욕을 오히려 더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아를 무슨 병원에 아 보다 아파도 봐주겠습니까?”(참가자 2)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딸(아이 이모)은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외에는 아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누가 그 때는 울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누가 애를 데리고 가서 한 열흘 봤나?”(참가자 2)

#### 4)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면 보람을 느끼고, 주변에서 아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해주면 자랑스럽기도 하다.

#### 아이를 키우는 보람을 느낌

“뭔가 이렇게 연결 돼서 처음 듣는 말을 하고. 애가 드디어 이렇게 아가 인자 드디어 커가는구나 할 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죠. 그럴 때.”(참가자 1)

“어린이집 선생님들 전부 OO이가 지 또래 애들하고는 재미가 없어서 안 논대. 큰 애들한테 자꾸 섞어 놀아서. 그래서 가만히 말을 종합해보니까 아 똑똑하니까, 말끝마다 쌤이 야가 잘 키우면 공부를 잘 하겠다고 말끝마다 그러더라고. 아 할머니 OO이가 너무 똑똑하다고. 드물게 똑똑한 애들이 한 번씩 있대. 똑똑하다고 이렇게 말. 선생님이...”(참가자 1)

“뭐 쌤들도 칭찬도 마이 해주고 이래하니까 좋다고 막 기분 좋다고 막 그라고. 차 타러 나오면 지 혼자서 노래를 한대. 박수치면서 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막 종알종알 거리고. OO이는 좀 듣고 하는 게 억수로 빠르다하면서 그래요.”(참가자 2)

그러면서도 자신이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될 때는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나 자녀에게 부탁해 놓기도 한다.

###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놓음

“그래가 뭔가 지금 지금 심각한 일이라. 이제 내 이제 아파빠면 끝이지.”(참가자 1)

“공부시키고 이거 할 때는 너거가 좀 도와주라. 아빠 엄마가 경제가 없으니까. 그러게 그카 니까 애들이 애들이 해주겠대요. 그것만 얘기를 했었지.”(참가자 2)

비록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조부모로서 아이양육을 맡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음

“그거는 인자 내가 디딤돌 씨앗 통장이 5만원씩 올해부터 지원돼서 고마워서 나도 5만원 넣으면 나중에 10만원을 준다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한테 도와주고 저는 또 나머지 또 내가 인자 뭐 쉽게, 쉽게 건강히 허락하는 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키워 줄 거예요.”(참가자 1)

“그냥 어느 또래만큼은 해주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뒤처지게, 누구는 이거 하는데 이런 말 안 나오게. 자기도 크면 알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거를.”(참가자 2)

## 3. 소결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결과를 가구유형별로 양부모 빈곤가정, 한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한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라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상황과 경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면접에 참여한 양부모 빈곤가정은 모두 모가 가정내 양육자 역할을 전담하고 부는 생계부양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는 집에서 키우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지만,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도 힘들지만 당분간이라도 가정보육을 지속해야겠다고 생각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부대껴야 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특히 올해는 코비드 19 위협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이용하던 아이도 가지 못하게 되고, 새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과 외출도 자유로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장기간 집에 머무르게 되자 주양육자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졌다. 집에서 제한된 생활만 하는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도 걱정스럽다. 자녀양육에 소극적인 남편의 태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다시 아이에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부모로서 갖는 죄책감도 높아지는 악순환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양육방식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연적 지지체계 및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도움이 그나마 숨쉴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이들이 부모로서 주로 느끼는 감정은 책임감과 부담감이었다. 부모가 되었다는 책임감은 생활의 모든 면을 아이들 중심으로 바꾸게 만들고,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유사한 질문으로 진행된 심층면담이지만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면담내용은 서로 다른 면이 많았다. 양부모 가정의 참여자들이 양육자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관련 지식의 부족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면, 한부모 가정의 참여자들은 결혼 혹은 동거 기간 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 부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사회서비스(복지지원, 보육서비스)의 이용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다. 이는 면접에 참여한 양부모가정의 상황이 한부모가정의 상황보다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소득을 비교해 보지도 않았지만, 면접에 참여한 양부모가정의 양육자들이 빈곤가정 이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가정보육에 전념하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비드 19 확산으로 인한 생활의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양부모가정의 양육자들에게 더 많이 표현되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계획이 취소된 것 외에 코비드 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그리 많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했다. 코비드 19로 인해 양부모 가정의 양육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에 제한을 받았지만,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들은 그 이전에도 홀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거나 놀러간 적이 별로 없고 주로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자니 차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짐이 많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놀러나가면 돈을 많이 써야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근처 식당에 나가는 것도 가급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한부모가정이지만, 한모가정과 한부가정의 면접자 특성과 면담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특성에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들의 연령이 더 어리고 결혼기간도 더 짧았으며 아이가 한 명이었고 아이의 나이도 더 어렸다. 아빠들은 더 나이가 많았고 결혼 혹은 동거기간도 더 길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영유아 자녀 외에 더 큰 자녀들도 키우고 있었다.

면접내용도 차이가 있어서, 한모 빈곤가정이 이혼과정의 어려움, 이혼 후 아이와 머물 주거 공간을 확보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였다면, 한부가정은 그보다 먹이고 입히는 것과 같이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키우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 이전에는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들이 어린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아빠들은 아이에게 TV나 유튜브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음식도 더 많이 사 먹는 거나 지원물품 혹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가 홀로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모가정에서, 다행히 조건이 맞아서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군부투가 이어진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이혼하면서 집도 함께 잃은 이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는데, 친정에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이들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거나 열악한 시설, 혹은 난방도 잘 안되거나 햇빛이 안드는 열악한 월세방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 이혼이 완결되면 한부모 지원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혼 소송중일 땐 꼭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조건이 맞지 않아 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보육기관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심지어 보육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이가 폭력, 왕따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홀로 아이를 감당하고 있는 모의 상황에서 위기 혹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응급 지원체계가 아쉽다. 아이에 대한 지극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열심히 살아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자신의 부족한 면, 아빠가 없어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기도 하다.

지지체계가 없는 빈곤가정 미혼모들의 양육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빈곤가정 한모들의 양육 상황과 유사한 면이 많았다. 이들도 홀로 생계를 부양하고 동시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양육을 전제로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계획이 취소된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곤란도 비슷하였다. 아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절실했던 이들은 이용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정보를 찾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미혼모’이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는 늘 부족하고 제한적이었다. 때로는 부적절한 서비스 자격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게 보육서비스의 도움은 필수적이지만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되레 편견에 시달리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워낙에 약했던 사회적 관계는 ‘미혼모가 됨’으로써 더욱 나빠졌는데, 특히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은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불쑥 치밀어 오르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아이가 주는 든든함이 이들을 열심히 살게 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부 빈곤가정 역시 부가 홀로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가정보육을 전제로 조건부수급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활용하면서 아이 양육을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 특히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이들에게는 영유아가 아닌 보다 큰 자녀들도 있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을 가정에서 돌봐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많이 토로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게도 보육서비스는 꼭 필요한 서비

스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유연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기관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이들 역시 자연적 지지체계가 거의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만일 부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공식적인 서비스체계 뿐이었다. 이들 역시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지만, 소소하더라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조손 빈곤가정 주양육자는 모두 아이들의 외조모였다. 이들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여러 번 낙태를 권유하였지만, 딸이 낳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출산 후 딸은 아이만 남겨두고 가출해버렸고, 손자녀의 친생부를 모르거나 친생부 측에서도 아이를 거부하였다. 처음에는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이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더구나 가출한 자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진행할 수도 없었다. 결국 가정위탁을 신청하고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 하는 육아는 너무 힘들었고 여러 가지 병도 생겼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이 라도 하면 더 고달팠다. 아이를 맡아 키우면서 가정위탁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파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돈을 주고 맡기자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고민스럽다. 힘들어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자신이 언제까지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다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쁘게 너무 처치지 않게 키우고 싶다.

가구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가구특성에 따라 영유아를 키우는 이들의 양육상황과 경험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의 필요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아동학대를 포함한 보육서비스의 문제들, 유연하지 못하거나 비싼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까다로운 서비스 자격기준, 열악한 서비스의 질 등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도 많이 드러났다.



V

---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01 기본 방향

02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V.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1. 기본 방향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빈곤가정 대상 설문조사 및 개별 면접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빈곤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가정 특성별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이상의 두 가지 방향에 관하여 상술하였다.

#### 가.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가정은 대부분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었던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빈곤가정의 67% 정도가 아동수당을 주로 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빈곤가정 영유아의 삶의 질은 그리 높지 않음을 쉽게 추정해볼 수 있다. 조손가정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재의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빈곤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을 위한 선별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빈곤가정의 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빈곤가정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은 본 연구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빈곤가정의 주요 법적 근거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를 기초수급자 가정인지의 여부로 파악하여 본 결과, 기초수급자 가정은 비수급자 가정과 비교해 여러 차원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가정에서는 비수급자 가정에 비교해 자녀 양육에서 외부 지원이나 정보가 부족하였고, 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았고, 자녀의 건강 상태나 영양이 좋지 않았고, 문화생활 경험이 부족하였고, 자녀가 영상 시청이나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의 근접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가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양육지원을 위한 외부 인적 자원 및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적절한 놀이 환경 제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체 발달 및 언어·인지 발달,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 문화적 체험을 통한 사회·정서 발달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총체적 부실은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격차는 점점 커져서 이로 인한 부정적 발달 궤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로 밝혀진 바이다(김수정·정익중, 2017; Heckman, 2008; Wößmann, 2008; Heckman & Corbin, 2016; Doyle et al., 2009).

#### 나.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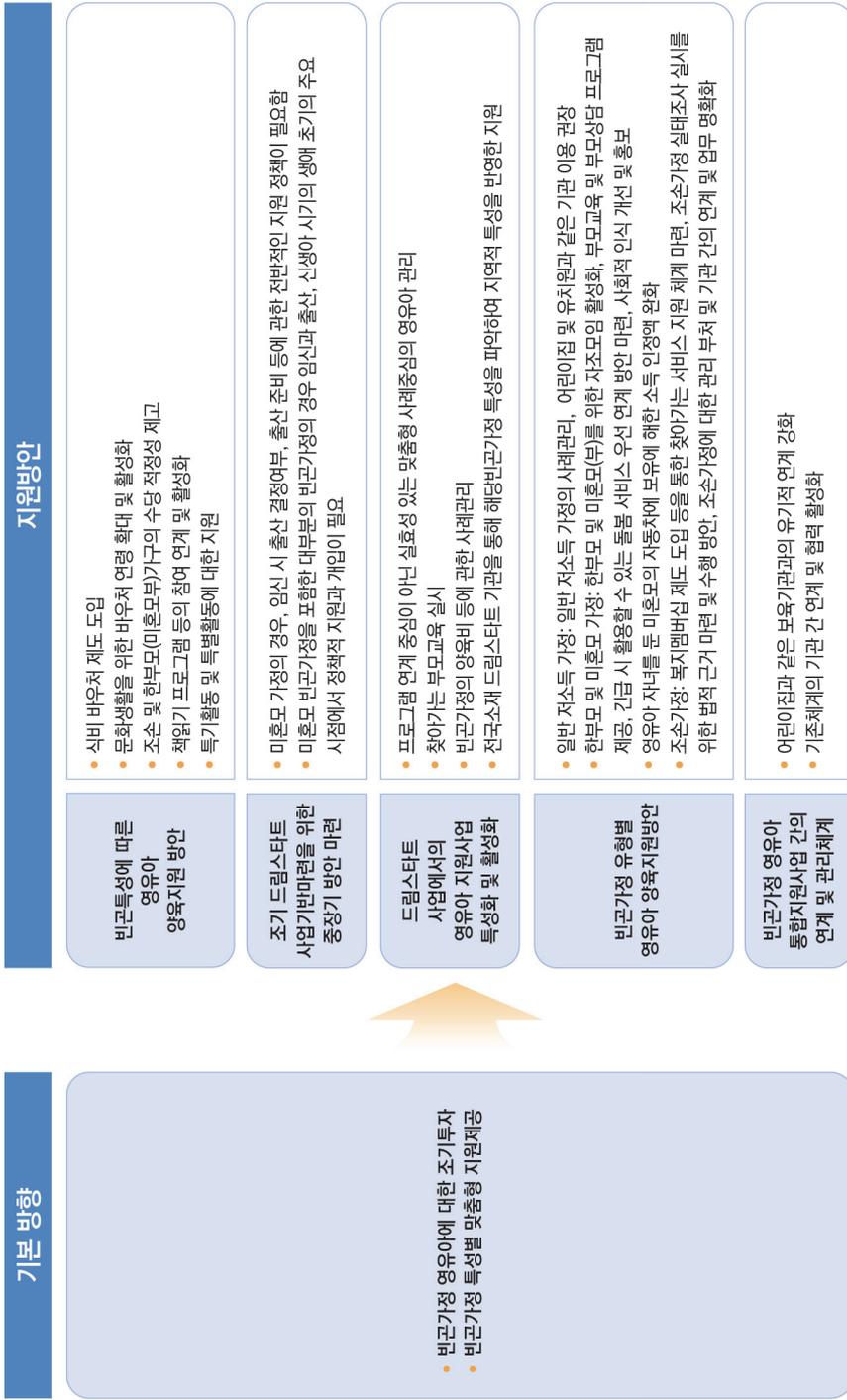
다음으로, 빈곤가정의 전반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4가지 유형의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어려움의 심각성 정도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영역에서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을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빈곤가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공통으로 경제적 빈곤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정 특성별 어려움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난 측면이 있었다. 앞에서 빈곤가정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외 양육에서의 어려움으로 긴급할 때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의 부재, 아이 문제를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의 부재 등을 포함하여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이 빈곤가정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부양책임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로 인하여 부모의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영유아

시기의 자녀를 양육함에 따른 힘들이가 더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인한 사회적 고립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더 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추가되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제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지원과 지지 체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자녀의 생애초기인 신생아, 영유아시기에 아이 돌봄과 관련한 정보와 양육 기술 등을 전달 받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노부모의 나이가 많으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육체적 노쇠함, 사회변화나 정보에 대한 파악이 느림 등으로 손자녀의 훈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정 특성별로 차이가 나타난 특성들을 반영하여 빈곤가정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때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그림 V-1-1>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V-1-1]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원방안



## 2.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빈곤가정 특성별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빈곤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에 기인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제안과 영유아 빈곤가정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빈곤가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핍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다차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현재 국가에서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활성화와 선진국의 사례처럼 조기 투자를 위한 조기드림스타트 사업의 출발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가. 빈곤 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주된 특성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이 설문 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빈곤가정과 관련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고려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식비, 문화생활 지원 등이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에서 이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1)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의 주요 사용처가 식비로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추정해볼 수 있다. 영유아 시기가 신체적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에 식비 제공 등이 필요하다. 식비를 현금지원하게 될 때, 식비로 사용되는 지에 관한 의식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식비를 바우처 등의 방식으

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식비 바우처의 경우에는 식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거나 식당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빈곤가정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

현재 정부 부처에서 빈곤가정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바우처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본 조사 결과,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해당 지원 등이 주로 6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등의 연령 및 대상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빈곤가정만을 대상으로 견학 등을 가고자 할 때 빈곤가정이라는 낙인 등을 두려워하여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한다면, 문화바우처 방식의 제공으로 개별 가정 단위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빈곤가정 사례관리자가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을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

## 3)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구의 수당 적정성 제고

본 연구를 통해 빈곤가정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다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특히 조손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정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25만원 정도의 추가수당이 적절한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정의 주부모와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과 양육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고소득의 정규직 형태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이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양육 수당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책읽기 프로그램 등의 참여 연계 및 활성화

빈곤가정의 영유아가 미디어 등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등의 제공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어린 시기의 미디어

어 노출은 이후의 미디어 과의존과 증독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관한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 선물, 방문을 통한 영유아와의 책읽기, 어린이 대상 책읽기 프로그램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빈곤가정 영유아가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장하는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 5)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

빈곤가정의 영유아 대상으로 특기활동 지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빈곤가정 영유아의 소질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하여 영유아가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에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나.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지원 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면접 결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빈곤가정도 있었지만 상황이 매우 열악한 빈곤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드림스타트를 모르는 경우도 면접사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드림스타트를 통해 연계된 면접 대상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림스타트 인프라 접근성이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5점 척도에서 2.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유해미 외(2019)의 연구에서는 2016~2018년간의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 대상이 취학아동이 절반 이상이었고, 13세 이상 20%로, 영유아는 미미한 상황으로 보고하였다.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부터 사례관리까지 영유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프로그램 연계위주의 사례관리 대신 영유아와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1)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촘촘한 개별사례 지원 중심

영유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계 중심의 사례관리가 아닌 보다 대상자 맞춤형 중심의 촘촘한 개별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적으로 빈곤 가정 영유아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드림스타트의 재정을 국비지원은 감소하고 지방비로 재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프로그램 연계나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로 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례 관리자에 대한 슈퍼 비전 등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가정유형별 요구가 다르고, 아동의 발달 연령별, 수급대상자인지 여부, 주거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요구와 특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빈곤가정 지원이 사례관리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빈곤가정의 경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조부모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빈곤가정이 겪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초기에는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드림스타트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부모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보다 더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빈곤가정의 양육비 등에 관한 사례관리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남편이 있었거나,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법적 절차 및 소송 등에 한부모나 미혼모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소송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영유아 손자녀의 친부모가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연계하여 해당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을 지원한다.

#### 4) 전국 소재의 드림스타트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한 지원 필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 빈곤가정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영유아 자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택시비 지원 등과 같은 교통바우처 지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는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자가용 소지에 대한 비용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소득기준을 설정하는 법과 조례 등이 필요하다.

### 다. 조기드림스타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미국의 대표적인 빈곤가정 정책의 일환으로 1964년부터 수행되어왔던 빈곤가정의 만 3~5세 유아 대상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사업에서는 빈곤가정 영아에 대한 조기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94년 이후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함께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9). 영국에서는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슈어 스타트(Sure Start) 사업이 1998년부터 빈곤지역의 만 4세 이하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보편적인 슈어 스타트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중앙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전반적인 슈어 스타트 사업은 최저 수준의 서비스만을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지원이 필요한 만 2세 이하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유해미 외, 2019: 162-16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조기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 3세

혹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에서 영유아 비중이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더 어린 연령, 영아 및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사업이 필요한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조기드림스타트 사업의 시작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미혼모 가정의 경우, 임신 시 출산 결정 여부, 출산 준비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미혼모 빈곤가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빈곤가정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신생아 시기의 생애 초기의 주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조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이후의 모자 건강과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 라.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의 4가지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에 대해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1) 일반 빈곤가정 지원 방안

#### 가) 일반 빈곤가정의 사례관리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한부모나 미혼모에 비해서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이 조금 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한 결과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남편)의 술 문제 등으로 어머니가 혼자 독박육아를 하게 되어 아버지의 경제력과 양육에 대한 도움 없이는 양부모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일반 빈곤가정을 포함하여 한부모나 미혼모 빈곤가정이 영유아 양육 및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가정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배우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을 위한 보육·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권장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 의 주양육자 면담 시, 방송을 통해서 간혹 보도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꺼린다고 이야기하였다. 빈곤가정 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이용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정림·이미화·오유정, 2013)를 감안한다면, 빈곤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기관은 소수이지만 더 좋은 기관이 많음을 언론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좋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사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 2) 한부모 및 미혼모 빈곤가정 지원 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에 비해 자녀양육 환경, 경제적 상태, 자녀의 건강 및 영양 관리, 문화생활, 영상 시청 및 게임 시간 관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와 미혼모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도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편부 면담 결과, 편부의 경우에는 양육 기술을 잘 모르고 있었고, 양육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 가)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자립과 자존감,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 등의 향상을 위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미혼모 대상의 워크숍에서 미혼모는 자조모임이 자신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지지책임을 강조하였다. 같은 미혼모(부)나 한부모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잘 극복한 사례들로부터 얻는 교훈이나 조언 등으로 해결 방안을 삼아서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점에서 고무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한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모(부)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지지 집단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이러한 자조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및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나)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 영유아 양육 시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인 부모교육이 양부모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이 많음을 고려하여, 한부모와 미혼모의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편부의 경우에는 양육기술과 양육 능력을 조장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한부모 및 미혼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및 양육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양육자의 정신건강이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모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형태의 책자 제공,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센터에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가정 방문을 통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장소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빈곤가정에서 영유아 양육 시 어려움으로 긴급한 경우에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경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와 일시적인 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한부모, 미혼모와 같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 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경우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양육하려고 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자녀를 입양하는 대신 본인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사회는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다양한 방식과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혼모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전달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특히 좋은 제도의 취지가 전달과정에서 희석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마) 미혼 한부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

한부모에 비해 미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신생아 및 영유아 자녀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본 연구 면접조사 및 미혼 모협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드러났다.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란 속에서 부모됨을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주변의 도움과 조언도 많이 차단되고 제한되어 있다. 임신과 출산의 결정, 부모됨의 준비 외 주거 및 생계문제를 해결하여야 스트레스 등으로 모자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미혼모가 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 산부인과 혹은 보건소와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미혼 한부모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미혼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심리적 지지 및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병원 검진과 치료 지원의 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되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제공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및 주거 지원

출산 이후에 신생아 및 영아 돌봄으로 미혼모의 경제적 활동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아 시기까지는 국가에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아이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 및 주거 환경 지원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미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영유아 시기까지는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영유아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소득 인정액 완화

영유아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의 경우 현재 월소득 100%로 환산하고 있는 자동차 환산율에 관한 개선 적용이 필요하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는 자동차가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자동차 소유를 소득 100%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면 미혼 한부모들의 다수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영·유아기·초등1,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에 한해서 자동차 환산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 3) 조손가정

본 연구 결과,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나이가 많아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돌봄 시간은 더 길고, 주변 도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유아 양육의 질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육체적 노쇠와 주변 인프라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영유아를 위한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영유아 건강검진 비율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율도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낮았고 영유아 손자녀의 영상 시청시간과 게임 시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나서 조손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부모의 무의식적인 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였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다음으로 영유아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식과 양육방법을 잘 모르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다음에서 조손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가)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를 통하여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인 신청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손가정은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발달적 자극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성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조손가정을 찾아가서 복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 신청을 받고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조손가정에서는 조부모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손자녀를 돌봄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지원 체계가 약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손자녀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많은 결과에서 조손가정의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이 다른 조사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 및 업무 명확화

조손가정의 경우 현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같이 관여하는 기관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조손가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하는 체계가 미약하다. 이는 조손가정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조손가정이 다른 빈곤가정 유형에 비해 영유아에 대한 방임이 가장 많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조손가정에 대한 주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마.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

빈곤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가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협력을 통하여 영유아 사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빈곤가정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이었고,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빈곤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과 하원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 빈곤가정 영유아의 영양상태, 가정에서의 돌봄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하여 필요시 드림스타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기존체계의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기존 전달체계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빈곤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면, 현재 아동학대라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통한 공공서비 체계로 넘겨져서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학대라고 여겨질 경우 아동학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센터으로 이양된다. 한편,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아동을 아동보호전문센터로 보내고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다시 드림스타트로 넘겨지는 과정을 밟는다. 국내에는 아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가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강문구(2009). 강원도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경호·소순창(2011).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양육지원요구와 영국 사례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21(2), 117-142.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겸·권영복(2005). 아동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본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아동용품·시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1(3), 375-413.
- 김수정·정익중(2017).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사회복지학, 69(3), 9-33.
- 김영정·김성희(2017). 서울시 한부모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지·장혜경·이미정·최인희·김혜영·여유진·김령희·최형숙(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등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배주현·성경(2018).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이배(2013). 빈곤의 세대간 이전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30~40대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2), 89-121.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최수정(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현·권미경·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미혼모·부

-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호·김지수(2018). 경제적 소외계층 유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25(2), 261-289.
- 김효진(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39), 33-42.
-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선보영·장연진·박은정·이재경(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혜정·신희영·박나리(2018). 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김희연·기영화·김남숙·임지영(2011). I·III세대 가정 지원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종·유민상·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2008).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을 위한 미취학 빈곤 아동 건강 및 양육 실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104-115.
- 배옥현·정일선(2011). 경상북도 조손가정 실태와 지원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배윤진·조숙인·장문영(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김현주(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0).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복지포·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 송이은(2018).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지원체계 마련 연구. 서울시 한부모 가족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유진·김미곤·류정희·정은희·강지원·정희선·김명중·우명숙·이원익·조준용(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정·정지연·구미영·정수연·김희주·박종석(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연화·박차상(2018). 제주지역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상균(2017). 드림스타트, 지난 10년의 성장과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59, 115-150.
- 이정림·구자연·김한술(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김아름·엄지원(2018).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 누리과정 유아 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미화·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상희(2020). 헌법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채홍·현승현·김수용(2011). 참여정부 지역간 빈곤격차 변화 요인분석: 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패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 582-605.
-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운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전광석(2019).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집현재.
- 정극원(2010).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16(3), 159-182.
- 정혜영(2009).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10(4), 81-112.
- 최윤영(20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 - 영국 및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7(3), 319-345.
- 한애경(2017). 충북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충북여성재단.
- Blanden, J., Hansen, K., & Machin, S. (2010). The economic cost of growing up poor: Estimating the GDP loss associated with child poverty. *Fiscal Studies*, 31(3), 289-311.
- Doyle, O., Harmon, C. P., Heckman, J. J., & Tremblay, R. E. (2009). Investing in early human development: timing and economic efficiency. *Economics & Human Biology*, 7(1), 1-6.
- Heckman, J. J. (2000).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s*, 54(1), 3-56.
- Heckman, J. J. (2008a).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 Heckman, J. J. (2008b).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CESifo DICE Report*, 6(2), 3-8.
- Heckman, J. J., & Corbin, C. O. (2016). Capabilities and skill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42-359.
- Jenkins, S., & Siedler, T.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Discussion Paper of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no. 693.
- Wöß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

###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06.18.인출)

-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5.] [법률 제10850호, 2011. 7. 14., 제정] h, 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86&ancYd=20110714&ancNo=10850&efYd=201207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

hk=0#0000 (2020.06.19. 인출)

- 4) 아동복지법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6) 한부모가족지원법
- 7)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14&searchCtgId=999&welInfSno=360&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InfNm=%EC%B0%A8%EC%83%81%EC%9C%84&pageUnit=10&key1=list&stsfCn=> (2020.09.10. 인출)

통계청. (<http://kosis.kr>)

- ①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2020.02.27.인출)
- ② 1세별 주민등록인구. (2020.02.27.인출)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특성별. (2020.02.27.인출)

OECD(2019). CO2.2: Child poverty, Chart CO2.2.A. ([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ty.pdf](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ty.pdf)) (2020.06.15. 인출).

## [참고 법령]

헌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수당법



## Support for Infants in Poverty Households to Narrow the Social Gap(II): Analysis of Parenting Needs for Infants Depending on Poverty Household Types

Jeong Rim Lee · Ja Yeun Koo · Yoonkyung Choi · Jeong Ho Jeong

Recently, government has tried to reduce the social gap through universal welfare, regardless of household income and family type. Nonetheless, a multidimensional deficit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poor families is still present as compared to nonpoor families. We need to resolve this problematic situ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ducing the social gap. On this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trategies to support child care in poverty families, more specifically, by differentiating poverty family types.

In the study, poverty familie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1) a poverty family of both mother and father, 2) a poverty family of a single parent, 3) a poverty family of an unwed parent, and 4) a poverty family of grandparents.

The study employs a survey conducted among 350 parents and 24 grandparents of poverty familie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Specifically, 150 two-parent poverty families, 100 single-parent poverty families, and 100 unwed-parent poverty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addition,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arents across the four types of poverty families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ild care needs in each typ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care environments of poverty families with single parents and unwed parents are, on the whole, more deficient in multiple areas compared to those of poverty families with both mother and father. For example, the poverty families of single parents and unwed parents are poorer in economic situations, and they experience more absence of support in an emergency. Single parents and unwed parents experience more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compared to ordinary parents of poor families. Children of single parents and unwed parents had fewer opportunities to experience cultural life.

Second, care time for grandchildren in poor families by grandparents was highest among the four different family types. In contrast, social support for poverty families of grandparents was least among them. Children in poverty families of grandparents also had fewer opportunities to experience cultural life.

Based on these mai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hildcare policies to support poverty families.

First,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early investmen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of poor families, which is already known as the most effective time to invest.

Second, customized support strategies for childcare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poverty household types.

Third, Dream Start,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should focus more on infant and young children of poverty households by investing at the early periods of life.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 the near future, create an early Dream Start program to support pregnant mothers and infants.

Fifth, individualized home-visiting programs for poverty households should be enlarged, especially for poor families of grandparent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Keyword: Poverty, a Single Parent, a Unwed Parent, Early Investment

## 부록 1. 면접 질문지

### 면접 질문지(저소득 양부모 가정)

※ 본 면접은 모든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피면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나이, 결혼 상태(기간), 취업여부(근로시간), 소득, 가족유형 및 수 등
2.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 자녀별 나이, 성별, 장애/질병 상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등
3. (이혼한 한부, 한모가정의 경우) 결혼 과정
  - 결혼 시 연령, 결혼유지 기간, 배우자와의 관계
  - 3-1. (이혼한 한부, 한모가정의 경우) 이혼 기간, 이유  
(사별한 한부, 한모가정의 경우) 사별 기간, 이유
4. 자녀 임신, 출산 경험
  - 임신 계획 및 준비 상황, 건강상태
  - 임신 확인 당시의 감정, 배우자와의 관계
  - 취업여부, 경제적 상황
  - 산전관리 경험
  - 출산 경험(출산 방법, 주변 도움 수준, 감정 등)
5. 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즐거웠던(행복했던) 경험 및 이유
  - 5-1. 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어려웠던) 경험 및 이유
6.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생활구조(주요 지지체계 및 자원 수준)
  -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
  -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놀이시간
  - 필요할 때 대신 돌봐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체계
7. 부모됨, 부모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의미
  - 부모가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
  -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 면접 질문지(조손가정)

※ 본 면접은 모든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피면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나이, 결혼 상태(기간), 취업여부(근로시간), 소득, 가족유형 및 수 등
2.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 자녀별 나이, 성별, 장애/질병 상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등
3. 자녀의 결혼 과정
  - 결혼 시 연령, 결혼유지 기간, 배우자와의 관계
  - 3-1.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 및 양육기간
4.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즐거웠던(행복했던) 경험 및 이유
  - 4-1.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어려웠던) 경험 및 이유
5.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생활구조(주요 지지체계 및 자원 수준)
  -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
  -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놀이시간
  - 필요할 때 대신 돌봐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체계
6. 조손가정의 조부모됨, 조부모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의미
  - 조손가정 조부모가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 조손가정 조부모로서 손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조부모로서 손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
  - 조부모로서 손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 면접 질문지(한부모 가정)

※ 본 면접은 모든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피면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나이, 결혼 상태(기간), 취업여부(근로시간), 소득, 가족유형 및 수 등
2.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 자녀별 나이, 성별, 장애/질병 상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등
3. (이혼한 한부모, 한부모가정의 경우) 결혼 과정
  - 결혼 시 연령, 결혼유지 기간, 배우자와의 관계
  - 3-1. (이혼한 한부모,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혼 기간, 이유  
(사별한 한부모, 한부모가정의 경우) 사별 기간, 이유
4. 자녀 임신, 출산 경험
  - 임신 계획 및 준비 상황, 건강상태
  - 임신 확인 당시의 감정, 배우자와의 관계
  - 취업여부, 경제적 상황
  - 산전관리 경험
  - 출산 경험(출산 방법, 주변 도움 수준, 감정 등)
5. 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즐거웠던(행복했던) 경험 및 이유
  - 5-1. 자녀 양육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어려웠던) 경험 및 이유
6.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생활구조(주요 지지체계 및 자원 수준)
  -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
  -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놀이시간
  - 필요할 때 대신 돌봐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체계
7. 부모됨, 부모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의미
  - 부모가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
  -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 부록 2. 설문지

### 영유아 자녀 가구의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를 둔 가구의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과 육아지원의 만족도 및 요구를 조사하여, 모든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0년 6월



## 1. 선정 질문

선문1. 귀하께서는 미취학 영유아(만 5세 이하)를 1명 이상 양육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종단

선문1-1. 양육 중인 (미취학)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선문1-2. 양육 중인 미취학 영유아의 출생연도와 성별을 응답해 주십시오.

※ 나이-출생연도 대조표

만 0세 = 2020년, 만 1세 = 2019년, 만 2세 = 2018년,

만 3세 = 2017년, 만 4세 = 2016년, 만 5세 = 2015년

구분	출생연도	성별
1. 첫째 아이	(        )년	① 남    ② 여
2. 둘째 아이	(        )년	① 남    ② 여
3. 셋째 아이	(        )년	① 남    ② 여
4. 넷째 아이	(        )년	① 남    ② 여
5. 다섯째 아이	(        )년	① 남    ② 여

선문2. 양육하고 계시는 미취학 영유아와 귀하의 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미취학 영유아의 어머니 → 선문2-1  
 ② 미취학 영유아의 아버지 → 선문2-1  
 ③ 미취학 영유아의 (친/외)할머니 → 선문2-2  
 ④ 미취학 영유아의 (친/외)할아버지 → 선문2-2  
 ⑤ 기타 → 설문종단

선문2-1. 귀댁은 한부모 가정에 해당합니까?

※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 등이 같이 살더라도 한부모 가정에 해당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선문2-1 응답 후 선문3으로 이동

선문2-2. 귀댁은 조손 가정에 해당합니까?

※ 조손 가정이란 부모 없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어 손자 혹은 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 조부모와 영유아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조부모의 다른 자녀(영유아 부모 외)나 기타 친인척 등이 같이 살더라도 조손 가정에 해당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중단

선문3. 귀댁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 ⑰ 제주 |      |      |      |

선문4. 귀댁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귀댁 주민등록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 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인 → 설문중단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⑦ 7인 이상

선문4-1.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출장, 군복무, 요양 등의 사유로 현재는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 같이 살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한다면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 ① 1인 → 설문중단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⑦ 7인 이상

선문4-2. 귀댁의 가구원 중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임금근로자(어딘가에 취업해서 월급(주급, 일당)을 받고 있는 경우),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경제활동(돈을 버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① 없음    ② 1인    ③ 2인    ④ 3인    ⑤ 4인    ⑥ 5인    ⑦ 6인    ⑧ 7인 이상

## [대상 선정 방식]

일반적인 형태로 소득 구간을 먼저 질문하고,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이 포함된 구간까지는 조사 대상으로 구분

차상위 (50%)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	-----------	-----------	-----------	-----------	-----------

## 선문5. 귀댁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를 비롯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근로 및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사회보험수혜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 미만  
 ④ 200~250만원 미만      ⑤ 250~300만원 미만      ⑥ 300~350만원 미만  
 ⑦ 350~400만원 미만      ⑧ 400~450만원 미만      ⑨ 500만원 이상→설문 중단

## 선문6.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까?

※ 근로 및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사회보험수혜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      ② 차상위계층에 해당      ③ 해당 없음



## II. 가족생활 및 관계

문1. 귀하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나 이웃(후원자 포함) 등으로부터 다음 항목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구분	① 매우 도움을 받는다	② 도움을 받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⑤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3. 긴급 시 (손)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4. 육아 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 III. 양육 스트레스 및 효능감

문2. 다음은 (손)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2.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3.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4.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5.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문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골라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며칠 동안	③ 일주일 이상	④ 거의 매일
1.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2.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문4.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다음의 어려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사항 없음
1.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3.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4. 긴급할 때(자녀가 아픈 경우 등)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5.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6.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③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게 이용하고 있다

// 문7=③ 응답자만 문7-3에 응답 //

문7-3. 귀 자녀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 정규 운영시간 외 시간 연장 보육  
이나 휴일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규 운영시간 외 이용 유형〉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24시간보육 (7:30~다음날 7:30)
- 야간12시간보육 (19:30~다음날 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9:00~16:00)

① 예 → 문7-4

② 아니오 → 문8

문7-4. 귀 자녀는 다음의 각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용 빈도와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1) 이용 여부	(2) 이용 빈도	(3) 이용 만족도
	① 현재 이용 ② 과거 이용 ③ 이용한 적 없음	※ (1) 이용 여부=①, ②인 경우만 응답 ① 매일(주5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한 달에 2회 ⑤ 한 달에 1회	※ (1) 이용 여부=①, ②인 경우만 응답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야간연장보육 (19:30~24:00)			
2. 야간12시간보육 (19:30~다음날 7:30)			
3. 24시간보육 (7:30~다음날 7:30)			
4.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9:00~16:00)			

문8. 귀하께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과 별도로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취업부모를 위한  
1:1 개별 보육 등을 국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가정 내 개별서  
비스 방식을 아동돌봄서비스라고 함.

① 예 → 문8-1

② 아니오 → 문9

문8-1.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 ①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② 시간제(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 ③ 시간제(종합형: 가사추가)돌봄서비스            ④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⑤ 잘 모름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1. 대상 아동의 치아관리를 위해 치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대상 아동에게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있습니까?			
3.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때에 하셨습니까?			
4. 대상 아동이 모유수유를 하였습니까?(출생 후 최소 3개월까지 수유한 경우)			
※ 0~36개월 미만인 경우만 응답			
5. 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36개월~미취학인 경우만 응답			
27. 대상 아동은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습니까?			
※ 36개월~미취학인 경우만 응답			
28. 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VI.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

문16. 지난 1년간 귀댁에서는 다음 항목에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1.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2.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3. 식료품비(식비/간식비) 총당		
4.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료)		
5.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6. 자녀의 의료비 총당		
7.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문17. 귀댁의 월 평균 소득 중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정부 보조금 지원, 사적이전소득(부모·친척·형제 등으로부터 받는 돈), 자녀의 부 또는 모로부터 받는 양육비 등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                      )만원

문18. 귀댁의 월 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월 평균 (                      )만원

문18-1. 생활비 중 순수하게 귀 자녀에게 드는 돈은 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교육, 저축, 장난감구입비 등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 )만원

문19. 귀댁에는 채무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0-1                      ② 없다 → 문21

문19-1. 빚을 지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주택 마련 및 보증금                      ② 생활비  
③ 자녀의 보육/교육비                      ④ 의료비  
⑤ 기타( )

// 조손 가정은 VII. 주거 및 지역 내 환경 파트, 문21로 이동 //

문20. 귀하는 귀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0-1                      ② 아니오 → 문21

문20-1. 일을 그만둔 시기는 귀 자녀가 몇 살 때였습니까?

만 ( )세



## VII. 주거 및 지역 환경

문21. 귀댁의 주택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다가구(연립)주택  
④ 기타( )

문22. 귀댁의 주택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보증금이 있는 월세, 반전세 등의 경우는 '③ 월세'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가 → 문23                      ② 전세 → 문23  
③ 월세 → 문23                      ④ 무상 → 문22-1

문22-1. 현재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 ① 가족                      ② 친지                      ③ 친구  
④ 정부지원 시설                      ⑤ 기타( )

문23. 다음은 귀하의 거주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⑨ 잘 모름
1. 문화 및 체험시설(어린이도서관, 박물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2. 육아관련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3. 아동을 위한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이용이 편리하다						
4. 자녀와의 여가 및 놀이활동을 위한 놀이터와 공원 등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5. 이용가능한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6. 이용가능한 드림스타트/영유아통합지원센터 기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VIII. 여가시간 활용

문24. 귀하는 자녀와 함께 다음의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5~6회	④ 한달에 1~2회	⑤ 한달에 3~4회 이상
1. 산책 및 놀이(놀이공원, 동네 공원 등)					
2. 여행					
3. 영화 또는 공연 관람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문25. 귀 댁은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영화, 공연, 박물관, 여행 등)을 위하여 연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해당 빈도가 1년에 1회 미만인 경우는 “0” 원으로 표기합니다.

연 평균 (                      )만원

문26. 자녀의 가장 일상적인 주중/주말 하루를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하루에 얼마 동안 합니까?

※ 시간 환산 : 30분 단위로 응답

구분		활동 시간
주중	1. 책 읽는 시간	( )분
	2.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 )분
	3.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 )분
주말	1. 책 읽는 시간	( )분
	2.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 )분
	3.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 )분

문26-1. 자녀가 언제 최초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까?

- ① 만 0세(만 0~12개월 전)                      ② 만 1세(만 12개월~24개월 전)
- ③ 만 2세(만 24개월~36개월 전)              ④ 만 3세(만 36개월~48개월 전)
- ⑤ 만 4세(만 48개월~60개월 전)              ⑥ 만 5세(만 60개월~72개월 전)
- ⑦ 이용한 적 없다



IX.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개선 요구

문27. 귀하는 다음의 보육 및 돌봄 분야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제도 이용/수혜 여부	(2)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 (2) ③ 모름	※ (1) 이용/수혜 여부=②인 경우만 응답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1. 아동수당		
2. 가정양육수당(기관 미이용가구)		
3.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료 지원		
4. 시간연장형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오후 7시반 이후 어린이집 이용)		
5.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6. 육아종합지원센터		
7. 출산전후휴가		
8.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9. 육아휴직제도		
1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1. 시차출근제(탄력근로제)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료 지원은 0~2세 어린이집 이용 비용 및 3~5세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오후 7시반 이후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함.

// 문27-(1)=②인 경우(아동 수당을 받은 가구)만 응답 //

문27-1. 귀하는 지원받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② 피복비  
 ③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④ 교육/보육비  
 ⑤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⑦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⑧ 기타(                      )

// 문27-(1)=②인 경우(아동 수당을 받은 가구)만 응답 //

문27-2. 귀하는 지원받은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28. 귀하는 다음의 건강 및 의료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사업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 제도 이용/수혜 여부	(2)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 (2) ③ 모름	※ (1) 이용/수혜 여부= ②인 경우만 응답 ① 매우 도움됨 ② 도움됨 ③ 보통 ④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1. 영유아 건강검진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6. 의료급여		
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8.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문29. 귀하는 다음의 주거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사업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 제도 이용/수혜 여부	(2)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 (2) ③ 모름	※ (1) 이용/수혜 여부= ②인 경우만 응답 ① 매우 도움됨 ② 도움됨 ③ 보통 ④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1. 주택 지원(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2. 대출 지원(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3. 주거환경 개선 지원(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등)		
4. 난방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등)		





## X. 배경 질문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배문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배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동거 포함)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배문5. 현재 귀하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배문6. 귀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가구 입니까? (조손가구만 해당되는 문항)

-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